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Happiness



본 백서는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Contents

02 발간사

SK 사회공헌

- 06 행복레터
- 10 사회공헌 철학
- 12 사회공헌 추진체계
- 14 사회공헌 연혁
- 16 사회공헌 하이라이트

그룹 활동

- 22 사회적 기업
- 38 교육 · 장학
- 43 자원봉사
- 54 지역사회 · 환경
- 58 스포츠 · 문화
- 61 글로벌 사회공헌

관계사 활동

- 66 관계사별 사회공헌

재단 활동

- 138 한국고등교육재단
- 144 행복나눔재단
- 152 SK미소금융재단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SK의

2014 사회공헌활동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SK는 1970년대 초 사회공헌이라는 말이

아직 낯설었던 경제 발전 초기부터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경영철학으로 명시하고,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앞장서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백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SK가 보여준 그간의 다양한 활동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SK는 장기적 관점과 진정성,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SK는 우리 사회의 행복한 미래와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겠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1세대 경영인들은 일제치하와 6·25전쟁 등의 환난으로 인해 헐벗은 국가를 살리려는 생각에 기업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위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사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라를 위해 수출을 하는 등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뜻으로 기업을 경영했던 것입니다.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일등국가를 향한 꿈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산야에 나무를 심고, 어린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당시 옆에서 선친의 행동을 지켜봤던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먼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작디작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고, 앓던 청소년이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모여 강이 되는 놀라움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SK는 선대회장이 보여준 이러한 가르침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진정한 존재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K는 이 배움을 공고히 하고자 2004년 SK의 추구 가치를 '이익 극대화'에서 '이해관계자의 행복극대화'로 바꾸었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기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의 방법을 찾아 사회공헌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2004년 SK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전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SK 행복나눔계절', 취약계층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전 세계 재난지역에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긴급구호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009년에는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SK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

SK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최선인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빈부격차, 노인소외, 청년실업 등 당면한 사회문제의 규모와 속도가

이전의 방법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빠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SK는 효율적, 효과적,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의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며, 사회적 기업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SK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SK는 이를 위해 인재, 자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2년 KAIST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하였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선한 자본의 유입을 이끄는 인센티브 시스템인 SPC(Social Progress Credit)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간의 활발한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K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활동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방법 중 하나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SK는 고민의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시사점을 사회적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발전 방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40여 년 전부터 장기적 관점, 진정성, 지속가능성을 기조로 사회공헌에 매진하고 이윤 극대화가 아닌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SK가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SK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4년 12월 SK 회장 최태원

—

이 땅에 행복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SK의 나눔 역사는 대한민국 사회공헌이 걸어온 발자취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행복나눔을 실천해 온 SK의 기틀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에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까지 SK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해 왔다. 앞으로 SK는 장기적 관점(Long-term Perspective), 진정성(Since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에 집중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1

SK 사회공헌

행복레터

사회공헌 철학

사회공헌 추진체계

사회공헌 연혁

사회공헌 하이라이트



서해개발(현 SK임업)을 세워 녹색공헌에 앞장선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SK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3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햇빛은 산을 푸른 강산으로 바꾸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나무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1972

“햇빛은 산에 나무를 심어 지역주민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오.
곧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법이오.”



“열 사람 중 한 사람만 봐도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조건 없이
지원해도 괜찮다.”

1973

당시 갓 50대 중견기업에 들어선 SK의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모두가 외면하던 MBC '장학퀴즈'의 파격적인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한국 방송사상 최장수 기록을
세우는 프로그램이요, 예비 인재 발굴의 산실이라는
성공신화를 이뤄냈습니다.



1974년 11월 26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중심으로 지식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선대회장의 꿈이 담긴 재단이었습니다.

1974

“여러분은 졸업하고 선경 오면 안돼.
오지 마! 더 좋은 데로 가. 좋은 머리를 갖고
나라를 위해 일 해야지.”



“수원은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이 창업의 디딤돌을 쌓은 곳으로,
SK는 수원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문화 발전에 동참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1995

1995년 4월 SK는 그룹의 발원지인 수원에 '선경도서관'을 건립하고
수원시에 기증했습니다.
선경도서관은 4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대형 도서관으로
수원시민의 학습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중심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행복 전도사’로서 행복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강한 의지는
2004년 7월 22일 ‘SK자원봉사단’ 창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SK는 그동안 각 관계사별로 행해지던 자원봉사를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04

“SK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 온 기업이다.
우리가 자원봉사단을 창단한 것은 기업이념으로 천명한 행복 극대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이 되겠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SK가 미래의 희망인 여러분을 위해 더욱 안전한 새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파이찌엔.”

2008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현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공부하는 현지 아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던
최태원 회장은 ‘행복소학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뒤 행복소학교가 문을 엽니다.



2012년 5월 SK는 이틀에 걸쳐 한국경영학회와
‘2012 사회적 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과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2

“유능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는 인재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나 복지 문제에서나 진일보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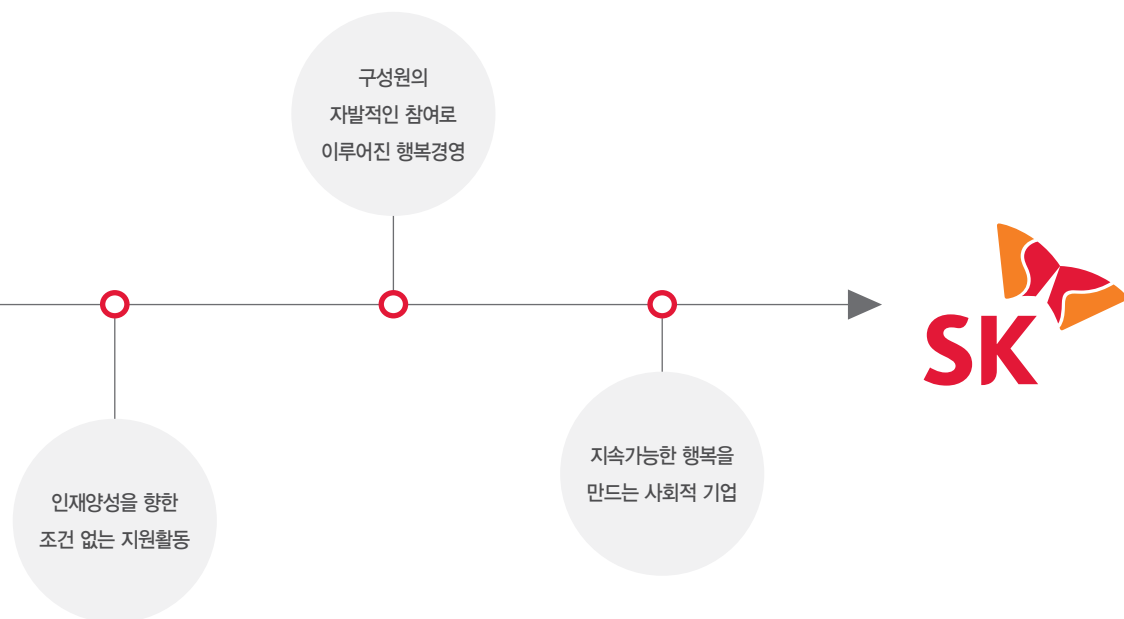
2013

최태원 회장은 2013년 사회적 기업가 MBA
1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사회적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행복이 스스로 자라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를 만들어 가다

SK는 설립 초기부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대의를 품고 ‘인재양성’과 ‘산림조성’에 앞장섰다. 이후 SK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늘날 한층 더 진화한 SK의 사회공헌은 단순히 베풀고 참여하는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스스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향한 조건 없는 지원활동



조림사업

SK가 설립되었던 초창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업 사회공헌이라는 말은 아직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은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의 희망은 인재라는 신념으로 인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가재건에 힘썼다. 학문의 수준이 국력에 비례한다는 생각에서 ‘인재양성 100년 계획’을 세운 선대회장은 고도의 지식산업사회를 목표로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풀 스폰서십 형태로 MBC ‘장학퀴즈’를 파격 지원했으며,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의 해외유학을 전폭 지원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장학사업의 기금 조성을 위해 조림기업인 서해개발(현 SK임업)을 인수했다. 물론 여기에는 민둥산으로 험벗은 국토를 다시 푸르게 만들겠다는 녹색공헌의 의지까지 깃들여 있었다. 실제로 SK가 지금까지 심은 나무는 330만 그루로써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듯 숲을 가꾸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조건 없는 나눔을 베풀던 시기였다. 이 당시 SK가 키워낸 인재와 숲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행복경영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는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경영철학이다. 따라서 SKMS는 화석화된 경영이념이 아니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최적화되어 활용되는 살아있는 경영시스템이다. 1979년에 SKMS를 최초로 정립한 SK는 80년대에 이르러 SKMS에 대한 이해와 확산의 도모를 위해 노력했다. 90년대에는 SUPEX추구법을 도입해 SKMS의 실천력 제고와 성과 극대화에 주력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SK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궁극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태원 회장의 강한 의지는 2004년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핵심 경영철학으로 제시하게 됐고, ‘SK자원봉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봉사단 출범 이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도드라지는 시기였다.

SK 구성원들은 행복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SK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드높이는데 큰 힘이 됐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현재 전 세계는 빈곤, 환경오염, 물 부족, 질 낮은 의료시설, 열악한 교육시스템 등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문제로 가득하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SK는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단순한 나눔이나 참여만으로는 심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민 속에서 SK는 새로운 해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게 됐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사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전사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재 육성, 착한 자본의 유입,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성숙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복의 혁신으로 만들어낸 더 큰 행복

SK는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기업경영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는 결국 모든 기업활동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SK는 과거의 일방적인 자선과 시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근본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취약계층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한다. SK는 장기적 관점(Long-term Perspective), 진정성(Since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3가지 추진방향으로 모든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 관점(Long-term Perspective)

과거의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자선이 주를 이뤘다. 물론 배고픈 이에게 당장 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시적 방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SK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의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SK는 단기적인 효과성보다는 오랜 비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진정성(Since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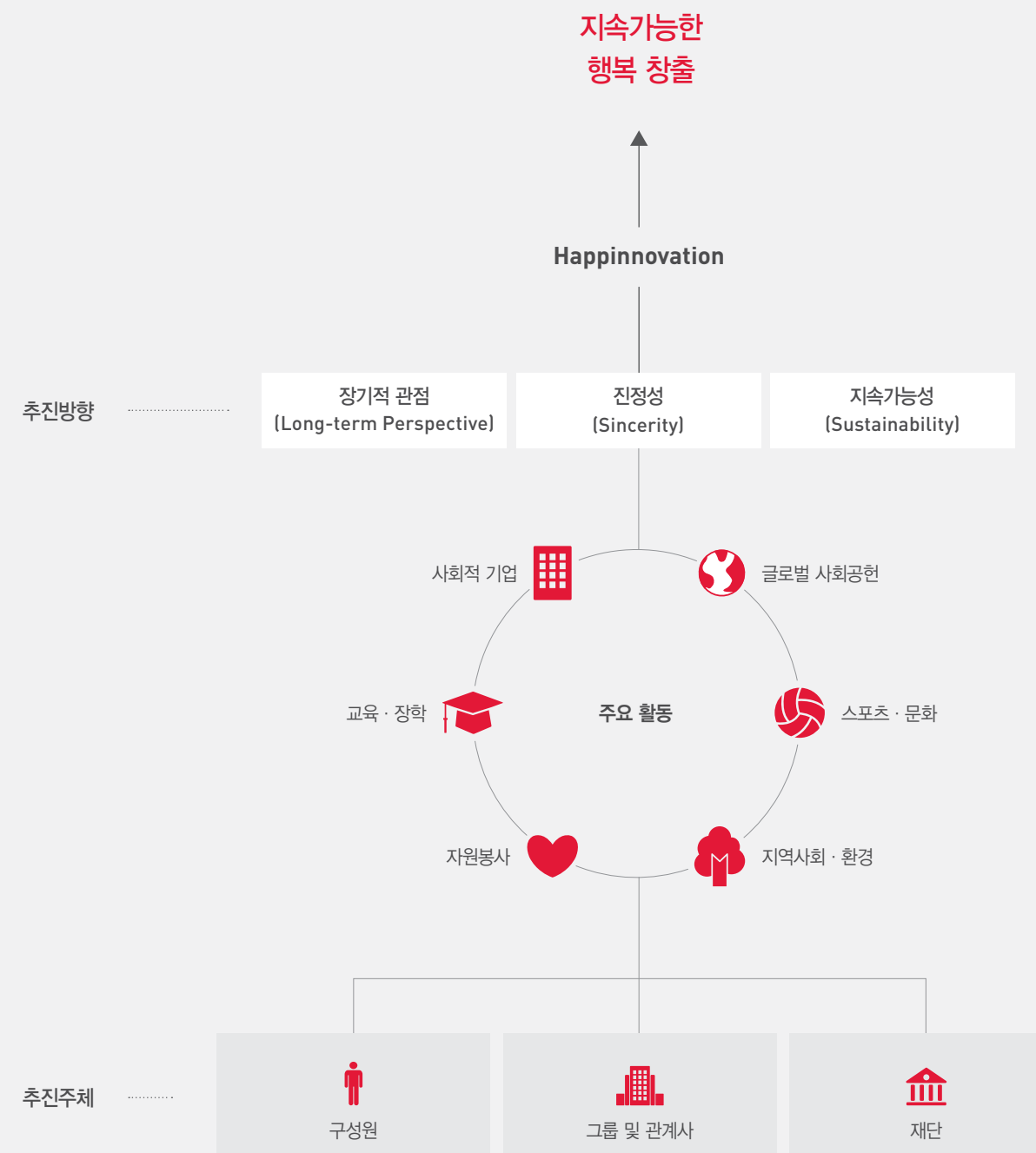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 또한 이러한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더 큰 진정성을 불어넣는다. 대다수의 관계사가 봉사단을 운영하는 SK는 최고 경영층부터 전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 냄새 나는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웃의 작은 상처 하나까지 어루만져준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SK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순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힘쓰고 있다. SK의 사회적 기업 활동은 사회적 기업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어 자생적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공헌 추진체계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우다

1972~

- 1972 충주 인등산 '인재의 숲' 조림 시작 ¹
- 1973 MBC '장학퀴즈' 프로그램 시작 ²
- 1974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다

1990~

- 1990 서울대에 'SK경영관' 준공 · 기증 ¹
- 1994 SK에너지 '환경사랑 글 모음 대회' 시작
- 1995 수원시에 '선경도서관' 준공 · 기증
- 1996 SK텔레콤 지원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시작 ²
- 1998 이화여대에 '이화-SK텔레콤관' 준공 · 기증
- 1998 KAIST에 'KAIST SUPLEX경영관' 준공 · 기증
- 1999 SK텔레콤 주최 '장애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실시 ³
- 2000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 실시
- 2000 중국판 장학퀴즈 'SK장웬방' 프로그램 시작 ⁴
- 2000 아트센터 나비 설립



1 2



1 2 3 4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다

2003~

- 2003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SUNNY) 결성 ¹
- 2004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학술포럼 제1회 '베이징포럼' 개최
- 2004 'SK자원봉사단' 결성
- 2005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학술포럼 제1회 '상하이포럼' 개최 ²
- 2005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2005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SK 행복나눔계절' 선포
- 2006 교육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1318 해피존' 사업 시작
- 2006 수원시 '해비타트-SK행복마을' 사업 시작 ³
- 2006 울산시에 준공 · 기증한 '울산대공원' 개장
- 2006 결식아동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도시락' 사업 시작
- 2007 SK텔레콤 중국 우루무치에 'SK애심소학교' 준공 · 기증
- 2008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베트남 '국가우호훈장' 수훈
- 2008 태안지역 해양오염 사고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살리기 진행
- 2008 쓰촨성 재난구호 지원 활동
- 2008 UN글로벌컴팩트 이사에 한국인 최초로 최태원 회장 선임



1 2 3

지속가능한 행복에 투자하다

2009~

- 2009 대기업 최초 'SK프로보노 자원봉사단' 발족 ¹
- 200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포털 '세상(www.se-sang.com)' 오픈
- 2009 행복나눔재단 내 사회적 기업사업단 창단
- 2009 'SK미소금융재단' 설립 ²
- 2010 SK 설립 1호 사회적 기업 '행복한학교' 출범 ³
- 2010 기업인 최초로 '숲의 명예전당'에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 헌정
- 2010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 준공
- 2011 대한핸드볼협회에 '핸드볼전용경기장' 완공 · 기증 ⁴
- 2012 그룹사 소모성자재 공급기업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로 전환
- 2012 사회적 기업 포럼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업가정신' 개최
- 2013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2013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정규 학제인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개설



1 2 3 4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SK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며, 사회적 기업 양성과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 및 논의를 지속해 왔다. 2012년 SK는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사회적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최태원 회장은 지원기관, 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각종 현안을 진단하고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SK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Rio+20 기업 지속가능성 포럼'에서 전 세계 사회적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SE 액션 허브'를 제시했다. 또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인 SPC (Social Progress Credit)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 육성 경험과 고민을 담은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을 2014년 출간하여 새로운 논의의 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꾸준히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SK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비전을 찾아낼 것이다.

1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는 SK



2 SK, KAIST와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개설



SK는 우리 사회에 혁신적 사회적 기업이 보다 많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존속하게 만드는 주체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에 MBA 과정을 접목시켰다. 2012년 5월 SK는 KAIST와 사회적 기업가 MBA 개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그 해 10월 10일 KAIST 서울 홍릉 캠퍼스 내에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개설했다. 2013년 2월 1기생 20명을 선발한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는 해외 현장실습,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창업 멘토링 지원 등을 시행했다. SK는 우수한 인재들을 기반으로 건강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에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그룹사 소모성 자재 공급기업을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로 전환

2012년 SK는 당시 1,5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MRO)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로 전환하여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제시했다.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판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동시에 많은 수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SK는 '사회적 기업 매출 증대→수익 창출→고용 확대→지속경영'이라는 비즈니스 선순환의 구조를 이끌고 있는 행복나래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행복한학교' 설립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위해 SK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학교를 설립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의 4개 지역에 설립된 행복한학교는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운영과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통해 공교육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을 기업인 최초로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했다. 숲의 명예전당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거나, 나무 신목종 개발 및 임업기술 연구개발 등에 공헌한 사람을 추천받은 뒤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여하는 임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74년 사재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출범시켰고, 이 재단의 재원조달을 위해 SK임업의 전신인 서해개발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조림에 나섰다. 현재 SK임업의 조림지인 충북 충주 인등산, 충남 천안 광덕산, 충북 영동, 경기 오산 등 4개 사업소 4,100ha(약 4,000만㎡)의 임아에는 팔만대장경에도 쓰인 고급 수종인 자작나무를 비롯해 조림수 40여 종, 조경수 80여 종 등 33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SK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는 선대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녹색공헌에 매진할 것이다.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5



6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

평소 우리강산이 분묘로 뒤덮여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1998년 영면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로는 거의 처음으로 화장을 택하는 유언을 남겨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묘지로 인한 국토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숭선수범했던 선대회장의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 SK는 뜻 깊은 기부에 나섰다. 2007년 세종시에 부지를 확보한 SK는 2010년 1월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를 준공했다. 장례문화센터는 무색, 무취, 무연의 시설을 구비하여 최첨단 수준을 자랑하며, 화장시설 조성을 준비하는 서울, 창원, 울산 등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7 SK와 이웃이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맞이 ‘SK 행복나눔계절’

2005년부터 SK는 행복나눔계절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 행복나눔계절에는 그룹 최고경영층과 구성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나눔, 소통, 상생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SK 행복나눔계절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장나누기, 연탄배달, 바자회, 소액기부 캠페인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나눔을 펼치고 있다.



8 19년째 이어져 온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SK가 베트남에서 펼쳐온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은 얼굴기형 어린이를 위한 무료수술이다. 베트남 전쟁 후 구순구개열 어린이가 베트남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베트남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SK는 1996년 5월 하노이를 시작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먼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무료수술 사업을 본격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지원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SK에게 2008년 국가우호훈장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9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SUNNY’

2003년 탄생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SUNNY는 ‘선한 이’라는 뜻으로써 서울부터 제주까지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생 스스로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이다. 2010년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NY China’를 성공적으로 창단했고, 2013년부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해피노베이터(Happinnovator)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SK핸드볼코리아리그’ 출범과 ‘핸드볼전용경기장’ 건립

SK는 비인기 종목 스포츠 육성에 국가적 사명을 갖고 앞장서 왔다. 그 중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국민을 감동시킨 핸드볼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SK는 2011년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핸드볼코리아리그를 회생시켜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출범시켰다. 같은 해 10월에는 핸드볼전용경기장을 완공하여 대한핸드볼협회에 기증했다. 핸드볼 경기가 없을 때는 타 종목 경기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SK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SK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교육 · 장학’, ‘자원봉사’, ‘지역사회 · 환경’, ‘스포츠 · 문화’, ‘글로벌 사회공헌’ 등의 분야에서 나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 인재가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오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육 · 장학,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는 SK가 특히 중점을 기울여 행하는 행복나눔 활동이다.

그룹 활동

사회적 기업

교육 · 장학

자원봉사

지역사회 · 환경

스포츠 · 문화

글로벌 사회공헌

효과적, 효율적,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통해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기업 추구가치로 설정한 SK는 대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고민 끝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솔루션을 접하게 됐다. 이후 사회문제 전담 해결사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생태계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SK 사회공헌의 장기적, 지속적 추진 전략으로 삼게 됐다. SK는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지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디딤돌이자 동반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SK 사회적 기업 배경 및 방향

SK는 효과적,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2009년 사회적 기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보다 진화된 기업 사회공헌의 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에 매진해 왔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경영·재무지원, 사회적 기업 직접 설립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기업 – 효과적, 효율적, 지속가능한 솔루션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SK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어떻게 하면 사회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가에 대해 항상 고민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사회문제들은 이전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그 양상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보게 됐다. 즉,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하고(효과성)”, 둘째,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효율적이어야 하며(효율성)”, 셋째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팩트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지속가능성).”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로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 19조, 유사명칭사용금지)

그러나 본 백서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 기업’ 모두 구분 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표기했다.

SK는 ‘경제적 수익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이러한 세가지 특성을 갖춘 최적화된 대안이라고 생각해 사회적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한편 행복나눔 재단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조직을 통해 SK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도 했고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SK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확대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라고 보게 됐다. 현재 SK는 사회적 기업이 자립·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인재’, ‘자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K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SK는 이를 통해 얻게된 교훈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진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활동

SK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왔으며, 콘테스트 등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부터 SK가 직접 설립한 16개의 사회적 기업들은 해당 사회이슈, SK의 역할, 협력 파트너의 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설립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모델’, SK그룹 관계사 고유역량을 활용한 ‘SK 역량활용 모델’로 나눌 수 있다.

SK는 외부 사회적 기업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자본은 물론 SK가 보유한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 등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투자에 매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직접 설립

민관협력 모델 정부,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행복한학교 _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의 해결방안 제시

행복한도서관 _ 도서 기증 사업을 통해 정보 및 지식 격차 해소에 기여

행복한뉴라이프 _ 출소자에게 전문 직업교육을 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

대구행복한미래재단 _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강사 양성

행복전통마을 _ 전통 가옥을 기반으로 문화상품 개발 및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도모

행복F&C _ 한식의 우수한 경험 제시와 청년의 자립 지원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_ 공공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농원



행복한웹앤미디어

SK 역량활용 모델 SK 관계사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각 관계사별 고유 역량이 잘 발휘되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행복나라 _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으로 동반성장형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

행복ICT _ ICT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고용 창출

행복한농원 _ 초화 · 관목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행복한녹색재생 _ 자원 재활용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환경문제 해결

행복한웹앤미디어 _ 장애인 특화 IT 서비스 사업 추진

행복한에코폰 _ 중고 스마트 기기 지원 및 사용법 교육으로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

페루 ProSynergy SK이노베이션 페루지사가 설립한 글로벌 사회적 기업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자립,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프로시너지(ProSynergy)는 농촌진흥센터 ‘야차이와시(Yachaywasi)’를 별도로 설립하여 대학, NGO, 정부와 함께 영농기술 전수, 농지 임대, 저금리 대출, 농산물 판로 지원을 하고 있다.

| SK 사회적 기업 고용 인원 |

		일자리 창출 단위 : 명	비고
민관협력 모델	서울행복한학교	261	위탁학교 수 : 19개 학생 수 : 7,300명
	부산행복한학교	60	위탁학교 수 : 28개 학생 수 : 2,100명
	대구행복한학교	305	위탁학교 수 : 45개 학생 수 : 8,200명
	울산행복한학교	151	위탁학교 수 : 11개 학생 수 : 3,400명
	행복한도서관	14	-
	행복한뉴라이프	11	출소자 수 : 3명
	대구행복한미래재단	62	참여자 수 : 66,756명(누적)
	행복전통마을	1	영업 1년 미만
	행복F&C	24	-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4	-
SK 역량활용 모델	행복나라 (구)MROK	136	(예비)사회적 기업 : 63개 사회적약자기업 : 44개
	행복ICT	30	취약계층 : 6명
	행복한농원	13	취약계층 : 7명
	행복한녹색재생	51	취약계층 : 19명
	행복한웹앤미디어	31	취약계층 : 14명
	행복한에코폰	54	-
Total		1,208	

*일자리 창출 : 2013년 말 기준 구성원 수

외부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SK는 외부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SK의 경영노하우, 시스템 등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지원했다.

| 외부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

 행복을나누는도시락 결식아동 급식 제공	 메자닌아이팩 포장 BOX 생산	 메자닌에코원 친환경 블라인드 제조
 고마운손 가방, 잡화류 제조	 카페티모르 커피전문점	 실버극장 노인 영화관람
 서울리소스센터 폐가전 재활용	 마을과아이들 · 아가야 영유아 보육	 7월의무화과 장애학생 고용 매장

행복도시락, 실버극장, 7월의무화과 외 지원 종료(2013년 기준)

행복을나누는도시락 | 2013년 기준



전국센터
28개소



연매출
235억 원



일자리 창출
365명



공공급식
11,260식/일

‘행복을나누는도시락’은 결식 이웃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고용하여 사회적 일 자리를 늘릴 목적으로 NGO · 지자체 ·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2006년 설립됐다. 대통령 주재 사회서비스 창출 성과보고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것은 물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2007년 ‘하버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행복을나누는도시락’ 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사각지대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SK소액기부캠페인에서 모은 성금을 바탕으로 방학 중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결식아동 1만 3천여 명 / 제공급식 42만 여 식, 2013년 기준)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주요 현황 | 2014년 기준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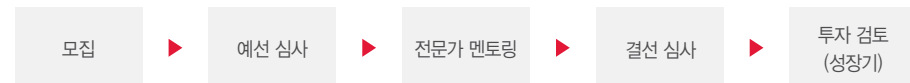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 주요 현황 | 2014년 기준



혁신적 사회적 기업 발굴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국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등용문으로써,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형태로 풀고자 하는 사람과 기업을 발굴하는 경연의 장이다. 선정된 사회적 기업에게 전문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한 임팩트투자를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787개 아이팀 제안, 총 57개의 수상팀을 배출했다.

| 심사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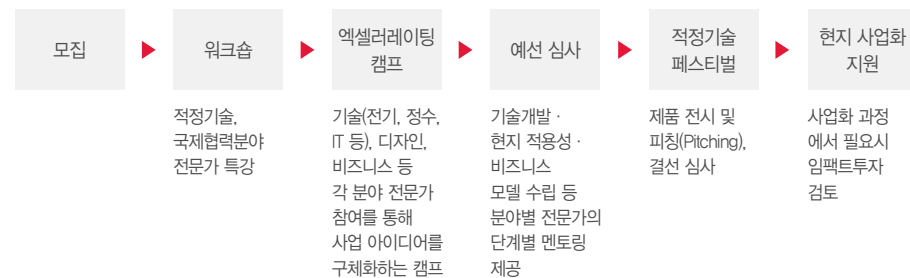
| 심사 기준 |

사회적 기업가 정신  · Social Mission을 통한 명확한 비전과 열정 · 사회적가치 창출을 향한 열정과 진정성	사회적 임팩트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 창출하는 Social Impact 규모	비즈니스 모델  · 시장 매력도 (산업 성장성 및 수익성) · 경쟁우위 전략의 타당성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경영 역량  · 핵심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역량 · 외부자원 연계 능력 (투자유치, 네트워크, 이해관계자)
---	--	--	--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형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프로그램이다. 적정기술 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시장 조사, 현지 적용성 검증, 세미나, 멘토링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학 개발자와 사업가의 교류를 통해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회적 기업가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95개 아이팀 제안, 총 27개의 수상팀을 배출했다.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 제3세계 빈곤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존과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 시제품을 개발하여 저개발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 프로세스 |



Interview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형태로 풀어내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발굴의 장, 세상 콘테스트



세상 콘테스트 수상자 | 변형석 대표

국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등용문인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수상자인 변형석 (주)트래블러스맵 대표에게서 내일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느껴보자

Q 운영하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주)트래블러스맵은 지역의 경제와 사회,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사입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의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설립해 현재 6년차를 맞고 있으며, 35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기업에게는 인력, 시장, 자본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본과 관련한 수요와 필요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수한 인력과 튼튼한 시장이 뒷받침되고 있기를 생각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는 성격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력도 생기리라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가의 측면에서 보면 더 넓은 영역,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의적 접근이 다른 기업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사회적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영역은 그 범위가 대단히 좁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Q 세상 콘테스트에 참여하고 준비하면서 어떠한 점을 배우고 얻게 되었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A 창업 6년차를 맞아 새로운 전환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 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매년이 도전이고 기회인 것도 사실이지만, 일정한 규모를 넘어선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업의 규모에도 특정한 번곡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5년을 설계하며 기업의 현재 위치를

한층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콘테스트는 현실적 바탕 위에서 새로운 5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Q 세상 콘테스트에 참여한 다른 사회적 기업가 분들과 어떤 소통과 협력을 하고 계신지요?

A 세상 콘테스트에 참여했던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과는 이미 다양한 차원의 협력 혹은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서부터 직접적인 사업협력까지 함께한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SK는 혁신적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모델이 공유,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활성화에서 SK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인재양성, 자본투자의 활성화,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이다.

오래 전부터 인재양성을 경영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은 SK는 우수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는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KAIST와 함께 마련했고, 다른 교육기관들과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선한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착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사회 혁신 아이디어가 널리 퍼지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세상 웹사이트’, ‘글로벌 SE 액션 허브’와 같은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인재 양성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개설된 풀타임 MBA 코스다. SK가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KAIST는 수준 높은 경영교육과 사회적 기업 창업에 특화된 커리큘럼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 양성 전문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의 이론과 실체가 결합된 커리큘럼 · 경영자로서의 기본 경영지식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역량 축적 ·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을 위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 글로벌 사회적 기업 현장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세계적 수준의 MBA 교육 경험 및 역량 보유	· AACSB, GMAC, EQUIS 등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인증을 선도적으로 획득한 MBA · 2011년 국내 최초 파인셀스타임즈 선정 글로벌 100대 MBA 진입 · 1995년부터 19년간 쌓아온 KAIST MBA 교육 노하우 및 동문 네트워크 ·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MBA로서의 교육 인프라 및 노하우
SK 사회적기업가 센터와 협력 및 연계	· KAIST 경영대학 산하 SK 사회적기업가 센터와 연계 운영 · 사회적 기업가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업 지원 및 멘토링 · 국내외 사회적 기업 관련 네트워킹 활동 및 지식 공유

Interview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효과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지원이 있는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1기 허미호
(주)위누대표)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적 역량과 경제적 역량을 동시에 제고시켜 주는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허미호 1기 (주위누대표)에게서 사회적 기업가의 미래를 가능해 본다

Q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07년에 설립된 (주)위누(Weenu)는 문화예술 전시 기획 대행, 교육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0년 서울형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 SE Start 10 선정 'Red Herring Asia Top 100 Finalist'와 'Asian Social Entrepreneurs Summit'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기타형)과 더불어 회계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주)위누는 일상 속 문화예술 시장을 형성해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진 작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셜미션을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 에이전시로서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온라인 솔루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대학 재학 중, 30개국이 넘는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이때 저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여행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함께'의 의미를 배운 저는 내 삶과 세상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일반기업의 사회공헌과 같이 이윤창출에 따른 일정 부분의 배분이 아닌, 과정 자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망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가 됐습니다.

Q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커리큘럼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A 현장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소셜이슈를 전달받을 수 있는 소셜이슈 분석 및 기회탐색 수업과 프로젝트 관리 스킬을 배우는 커리큘럼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아소카 펠로우라는 상징적 인물과 관련한 사업을 체험

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연수도 좋았습니다. 지원제도 측면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사무실을 제공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Q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로서 향상된 역량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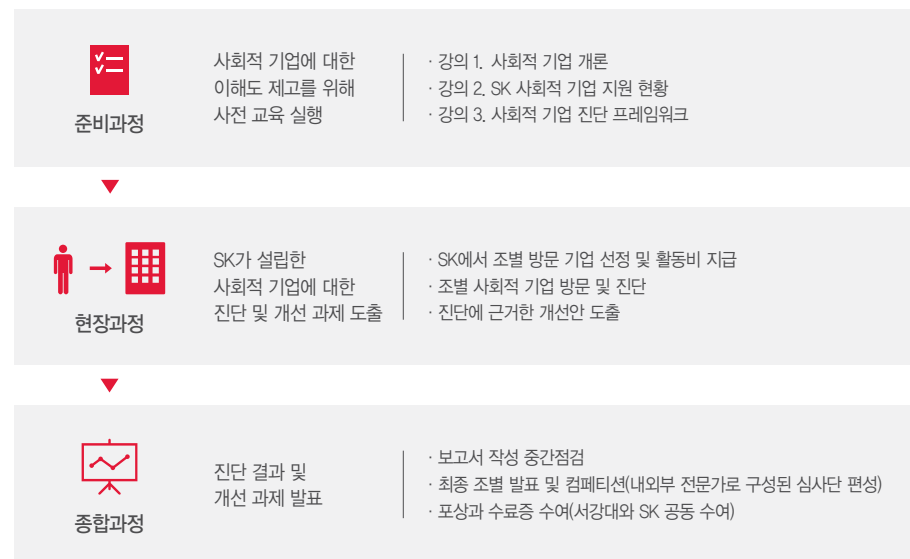
A 우선 경제적인 역량이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입학 이후인 2013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2.5배 규모로 매출이 성장했으며, 2014년에도 전년 대비 1.8배 정도의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무적 성장에 따른 선순환으로 정규직 인원은 2배(8명)로 늘어나고, 비상근 직원은 3배(12명)가 됐습니다. 사회적 역량도 제고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글로벌하고 비즈니스적인 형태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함께 일하는 팀원이나 파트너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강 SK 사회적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서강 SK 사회적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SK와 서강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업 방문을 통해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 결과 및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현장형 교육이다.

| 수업 프로그램 |



자본투자의 활성화

정책 제안 – ‘Social Progress Credit(SPC)’ SK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2012년 보아오 포럼을 비롯하여 UNGC의 Rio+20 지속가능성 포럼, SK 사회적 기업 포럼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2013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이르러 ‘SPC(Social Progress Credit)’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SPC란 사회적 기업이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뜻한다. 사회적 기업 모델 중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반해 지속가능성이 낮은 모델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게 사회문제를 많이 해결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만한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늘려 사회적 기업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SPC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가속화되어 보다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현재 SK는 SPC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SPC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참여 SK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펀드’에 주요 민간 투자자로 참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한 펀드 투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SK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이 펀드에 2011년 5억 원, 2012년 5억 원, 2013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는 ‘오르그닷’, 공정여행을 기획·진행하는 ‘트래블러스맵’ 등의 사회적 기업이 투자를 받았다.

임팩트투자 시행 SK는 사회적 기업의 질적인 성장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임팩트투자(Investing for Impact)’를 실시하고 있다. 임팩트투자란 사회나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일종의 착한 투자다. ‘사회적 기업이 정신’, ‘비즈니스 모델 지속가능성’, ‘소셜 임팩트’, ‘경영 역량’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사회적 기업을 평가·결정하고 있으며, 피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임팩트가 향상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임팩트투자 프로세스 |



임팩트투자 네트워크 구축 참여 SK는 국내 임팩트투자 분야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SIEN (Social Impact Evaluation Network, 사회적영향 평가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정부 기관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사회투자, 행복나눔재단 등 임팩트 평가·투자·연구·지원기관 및 학계 등 임팩트투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내 확산에 뜻을 함께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문역량이 결집돼 탄생했다. SIEN은 ‘사회적 가치 평가 그룹’과 ‘평가활용 그룹’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평가그룹에서는 실용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을 도출하고, 개발된 방법을 다양한 국내 사회적 기업 유형에 실제 적용·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 그룹’에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연구조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투자, 심사, 관리, 정책지원 등의 임팩트투자 프로세스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플랫폼 구축

‘세상’ 웹사이트 운영 2009년 SK는 사회적 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온라인 플랫폼 ‘세상(www.se-sang.com)’을 오픈했다. 세상은 ‘SE(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를 상상한다’는 의미로써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가)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웹사이트이다. 세상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며, 사회적 기업가로 성공해



글로벌 사회적 기업 액션 허브 모바일



행복나래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상은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소통의 장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인큐베이팅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글로벌 사회적 기업 액션 허브(Global SE Action Hub)’ 론칭 SK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촉진하는 유엔 기관)와 함께 글로벌 사회적 기업과 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매칭하는 플랫폼인 ‘글로벌 사회적 기업 액션 허브(Global SE Action Hub)’를 2014년 론칭했다. 액센츄어(Accenture), 인텔(Intel), 코카콜라(Coca Cola Company), KPMG 등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한 글로벌 사회적 기업 액션 허브는 유엔의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활동(Action Oriented Activity)과 구체적인 성과(Tangible Outcome)를 촉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은 자금 및 판로가 부족하고 임팩트 투자기관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투자 정보와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이를 투자자, 기업, NGO와 공유함으로써 투자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사회적 기업 액션 허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다양한 IT 환경에서도 비디오, 오디오, 소셜 미디어 등 생생한 정보가 신속하게 교환되어 현지 활동가들의 유연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협력 플랫폼 -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SK가 설립한 소모성자재(MRO) 구매 대행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는 영세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여 SK 그룹 사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는 2012년에는 17억 원, 2013년에는 50억 원 규모로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했으며, 2014년에는 100억 원으로 구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SK는 2012년 연간 1,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SK 자회사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로 전환시켰다. 현재 행복나래는 국내 최대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영세 사회적 기업들과 대기업들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억 원의 순이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했으며, 전체 임직원 152명 가운데 15%인 22명을 취약계층에서 고용하고 있다.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뿐만 아니라, 협력 사회적 기업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설비·마케팅 지원, 물류 대행 및 IT 시스템 지원(홈페이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력 사회적 기업들과의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더욱 활발한 협력을 위한 논의 및 네트워크의 장도 마련하고 있으며, 명절 판촉전 등을 통해 이들의 상품 홍보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소모성자재(MRO) : 기업은 활동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용품, 공구, 기계 부품 등의 대량 구매 및 관리를 MRO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 행복나래 경영지표 주요현황 |

		2011	2012	2013	예상 2014
매출 단위 : 억 원		1,249	1,543	2,122	2,200
고용	전체 단위 : 명	114	135	137	153
	취약계층 단위 : 명	0	14	14	23
	이직률	14.9%	12.6%	11.6%	-

Interview

사회적 기업을 돕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행복나래 | 강대성 대표

Q 행복나래를 운영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1년 8월, MRO사업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최태원 회장의 제안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3년이 넘게 행복나래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행복나래가 대기업 계열사고, 매출이 1,000억 원(현재는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도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묵묵히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작년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 개척입니다. SK MRO구매대행회사인 행복나래는 당사의 비즈 모델과 역량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SK 관계사 등에 판매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협력사 상품 개선 및 개발 사업이나 홈페이지 구축 사업,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경영 지원, 행복나래 온라인 쇼핑몰(스피드몰)을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행복나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기업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후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행복나래는 올해 7월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자 대통령표창을 수상

하는 잊지 못할 순간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구성원들의 자부심 향상입니다. 초반에는 대기업 MRO의 어두운 면이 집중 조명되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갈등을 느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표가 단순 영리추구에서 공익으로 변하고, 비난받던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바뀌자 구성원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2012년 말 실시한 조직 진단평가에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전체 조사 항목 중 최고점을 얻었고, 이직률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Q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3,000개가 넘는 업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내부적 성장은 더딘 편입니다. 특히 매출·이익 부분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존 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 위주의 직접지원(인건비)에 치우쳐 있었고, 최근예야 비로소 사회적 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행하고는 있으나 내실 있는 성장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2년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판로개척(45.8%)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을 도출해보면, 국내 사회적 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 확대 및 고정적 매출처 확보 등 매출 기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행복나래 활동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사회적 기업 판로개척 지원 모델이라는 점이 행복나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들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SK 관계사를 비롯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행복나래의 사회적 기업 구매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육성사업을 동시에 펼쳐 사회적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행복나래의 향후 계획과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행복나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적 기업 Reference Model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나래는 SK의 기업문화와 사회적 기업 고유의 가치를 융합했고, 이윤 추구 중심의 기업문화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계했습니다. 상생과 조화라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든 대표 기업 행복나래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세한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및 지원 정책 등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연구 · 지식 인프라 구축

사회적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진하고,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도출과 전파를 위해 SK는 사회적 기업 분야 연구 · 지식 인프라 구축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발전 논의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론을 나누는 '2012 사회적 기업 포럼 개최', 하버드대, 슈왓재단과 SK가 공동으로 우수 사회적 기업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SK-슈왓재단 공동연구', 동아시아 주요 연구자, 활동가들의 학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징포럼 · 상하이포럼 내 사회적 기업 세션'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연구 · 지식 인프라 구축 활동이다. SK는 이와 같은 연구활동과 국제 포럼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 · 참여 등을 통해 앞으로 국내외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12 사회적 기업 포럼

2012 사회적 기업 포럼 개최 SK와 한국경영학회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 학계, 중간지원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2012 사회적 기업 포럼'을 2012년 4월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중간지원기관, 정부 인사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SK는 포럼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재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개설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성과 평가 체계, 사회적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듀린 샤나즈(Durreen Shahnaz), 아시아임팩트투자거래소(IIx) 창립자, 니콜라 아자르(Nicolas Hazard), Groupe SOS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이러한 인재 확보, 인센티브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SK-슈왓재단 공동연구 SK는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사회적 기업 육성재단인 '슈왓재단', 하버드대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보고서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 극복 : 사회 혁신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가이드(Breaking the Binary : Policy Guide to Scaling Social Innovation)'를 2013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SK와 하버드대, 슈왓재단이 1년간 전 세계 10개국의 주요 정책사례와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20개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로써, 사회적 기업의 혁신과 장애요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은 단일 섹터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섹터를 넘어선 공동연구(Cross Sectoral Research)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됐는데, 대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학술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연구를 진행한 유례없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제시 담론은 남미,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로 확산됐다. 실제 2013년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남미포럼 '소셜 이노베이션 서밋(Social Innovation Summit)'에서 연구보고서가 공식 론칭됐고, 미국과 런던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연계 행사에서도 별도의 론칭 행사를 통해 소개됐다.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6가지 정책 방향

- ▶ 시장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 ▶ 정부의 실행 역량 개발
- ▶ 시장의 인프라와 역량 강화
- ▶ 사회적 기업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 민간 자본의 투자 장려
- ▶ 정책 검토와 수정



2014 상하이포럼

베이징포럼 · 상하이포럼의 사회적 기업 세션 SK는 북경대 및 복단대에서 각각 개최되는 연례 국제학술회의인 '베이징포럼'과 '상하이포럼'에서 별도의 사회적 기업 세션을 개최하여 아시아 차원의 사회적 기업 관련 논의 기회를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 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사회적 기업가, 학자,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동아시아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다. 앞으로도 베이징포럼 · 상하이포럼에서 개최되는 사회적 기업 세션은 동아시아 내 사회적 기업 관련 학술 교류의 장으로써 사회적 기업 및 임팩트투자 분야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베이징포럼 · 상하이포럼의 사회적 기업 세션 진행현황 |

Beijing Forum 2012	·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와 사회적 기업이 생태계
Beijing Forum 2013	·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개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정신(동아시아적 관점)
Shanghai Forum 2014	· 아시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사회적 기업학회' 지원 국내 사회적 기업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SK는 '사회적 기업학회' 창립을 지원했다. 2013년 창립된 사회적 기업학회에는 조영복 부산대 교수, 배종태 KAIST 교수 등 사회적 기업 및 임팩트투자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한 30여 명의 국내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5월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역할' 춘계 학술대회를 주최했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연구소 그룹 지원, 학회지 발행 등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영 현장과 연구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산학협동사업과 국제 학술행사 참가, 해외 유명 석학 국내 초청 등으로 국제 학술교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 사회적 기업 국제학술대회' 지원 SK는 아시아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제3회 아시아 사회적 기업 국제학술대회(2014년 7월 4~6일,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사례를 공유하고 재정을 지원했다. 국내외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모델 국제 비교연구'란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사례가 분석됐고,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제공됐다. 세계 최대의 사회적 기업 연구 네트워크인 EMES(EMergenc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Europe)의 유럽지역 학술대회와 연계돼 개최됐으며, 기조 연설은 EMES 창립멤버인 자크 드푸르니(Jacques Defourny) 벨기에 리에주 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아시아 사회적 기업 국제학술대회

SK 사회적 기업 워크숍에 참석한 유누스 교수와의 협력 논의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SK를 비롯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SK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은 한 단계 진화된 CSR 활동으로 글로벌 선진기업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창립을 통해 빈곤퇴치에 앞장선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교수가 2013년 7월 26일 SK 서린사옥에서 진행된 '사회적 기업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 워크숍에는 20여 명의 SK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SK의 의지를 보여줬다.

워크숍에 앞서, 유누스 교수가 설립한 사회적 혁신 컨설팅 기관인 '그라민크리에이티브랩(Grameen Creative Lab)'은 '사회적 기업 컨설팅 워크(Social Enterprise Consulting Week)'를 통해 행복한 학교, 행복나래 등 SK의 사회적 기업들을 방문하여 운영사항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적 기업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누스 교수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SK가 설립한 '행복나래'와 같이 사회적 기업을 돕는 혁신적 사회적 기업 모델은 향후 확장성이 있는 플랫폼으로써 글로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외에도 SK가 직접 설립한 사회적 기업 모델인 '행복한학교'와 '행복도시락'도 대단히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써 사회적 성과가 크다고 평했다.

유누스 교수는 SK만큼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한 단계 진화된 SK의 기업사회공헌활동은 글로벌 선진기업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와 유누스 교수는 향후 SK와 그라민재단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Interview

사회적 기업의 능동적인 생태계 조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적 기업학회



사회적 기업학회 | 조영복 회장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학회의 조영복 회장(부산대 경영학과 교수)을 만나다

Q 사회적 기업학회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사회적 기업학회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됐습니다. 사회적 기업학회는 우선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과 정책방안, 사회적 기업 경쟁력과 핵심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연구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국내외 정책동향과 연구·조사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기업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기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사회적 기업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A 우선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현실 검증입니다. 폭넓은 국제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국제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 연구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정당성, 투자 합리성,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등 사회적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Q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 분야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직까지도 사회적 기업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진 우수사례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현

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학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친사회적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여 실제 기업환경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의 허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Q SK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이 SK입니다. 기업이 펼치는 사회공헌의 방향을 사회적 기업으로 구상했고, 세계에서조차 전례 없는 사회적 기업사업단을 만들어 현장과 이론적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행복나눔재단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 설립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많이 발굴해 사회적 기업 발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키워

세상의 더 큰 미래를 이루다



나라의 미래가 사람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SK는 창립 초기부터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선도 리더의 산실인 ‘장학퀴즈’,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이후 SK의 인재양성 목표는 사회혁신 리더를 육성하는 것으로 확대 발전됐다. 또 인문학과 행복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선도 리더 양성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인재양성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장학퀴즈’를 후원했다. 또한 세계적 석학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만들었다. 훗날 선대회장의 인재양성 철학을 이어받은 SK는 우리나라의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우수 대학에 각종 교육시설과 기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장학퀴즈 후원 사업

장학퀴즈의 후원은 SK 사회공헌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 개발과 성장을 모토로 오직 경제발전 하나만을 생각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은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다. 중견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직후부터 SK가 장학퀴즈를 후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1973부터 MBC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한 장학퀴즈는 1997년부터는 EBS로 옮겨져서 방영됐다. 한국 방송사상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이 된 장학퀴즈는 지금까지 대략 1만 여 명의 학생이 출연했다. 실제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된 장학퀴즈 출신 인재들은 오늘날 ‘수람’이라는 친목모임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공부를 돕고 있다. SK는 2000년부터 중국판 장학퀴즈인 ‘SK장웬방’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인기가 대단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는 장학퀴즈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며 이 땅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MBC 장학퀴즈



베이징포럼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가이자 사회사상가로 민족애가 남달랐다. 그는 민간기업 최초로 ‘일등 국가, 일류 국민 도약과 고도의 지식산업사회 건설’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다. 100년을 목표로 한 세계적 석학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610여 명의 박사학위자를 비롯해 총 3,090명의 인재가 양성됐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인재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 전액을 조건 없이 지원했는데,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적 성과였다.

오늘날 SK는 선대회장의 뜻을 한층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의 인재를 키우는 지평을 넘어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는 아시아의 리더로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총 15개국, 710명의 아시아 학자의 연구를 지원했으며, 아시아 7개국 대표 17개 대학에 ‘아시아연구센터(Asia Research Center)’를 설립했다. 또 2004년에 ‘베이징포럼’을, 2005년에는 ‘상하이포럼’을 발족시켰으며, 이들 국제학술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발전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상세 내용은 P.138 참조)

교육인프라 지원

후진양성을 위한 SK의 대표적인 장학사업 중 하나는 교육인프라 지원이다. 1990년 SK는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 SK경영관을 준공, 기증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1998년 8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공사비 전액은 물론 교육관 내 마련된 정보통신연구소 운영비 일체를 지원한 ‘이화-SK텔레콤관’을 기증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산학협동 기반 조성비와 정부 재원으로 KAIST의 기존 이학동을 보수한 ‘KAIST SUPEX경영관’을 건립했다. KAIST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최종현홀’을 마련했는데, 후원자의 이름을 직접 건물 내에 명명한 국내 최초의 사례였다.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에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된 기숙사인 ‘SK국제학사’를 기증했다.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금 마련에도 앞장선 SK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고려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을 후원하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혁신 리더 양성

인간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한 SK는 과거 국가를 재건할 인재양성에 주목했다.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안목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의 필요성을 깨달은 SK는 도전과 혁신으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사회혁신 리더 양성에 전폭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현재 SK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사회적 기업가 육성, 전문적인 재능 기부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SK프로보노 봉사단 운영, 혁신을 거듭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할 청년혁신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SK프로보노 발대식

사회적 기업가 육성

2012년에 들어와 SK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 의지는 크게 진화했다. 바로 KAIST와 함께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기존 경영대학원 MBA 코스에 사회적 정신을 접목시킨 해당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였기에 더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상세 내용은 P.28 참조)

기업문화 혁신리더 육성

SK는 2009년 대기업 최초로 'SK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했다. SK프로보노 봉사단은 전문적인 재능, 따뜻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익단체의 성장을 돕고 있다.

SK프로보노 봉사단은 경영전략, 마케팅 · 홍보,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현재 총 600여 명의 SK 구성원들이 SK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으며 300여 개 단체에 자문을 제공했다. (SK프로보노 상세 내용은 P.45 참조)

청년혁신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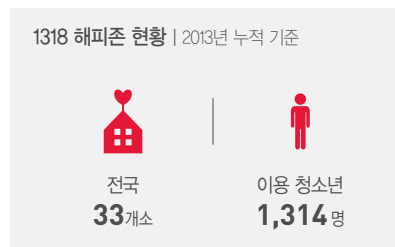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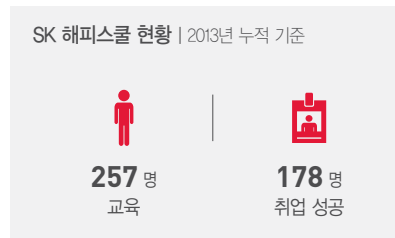
청년혁신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는 SK는 2011년부터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뽑은 후, 워크숍과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시킨 사업계획 및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총 4회 개최된 본 페스티벌에는 95건의 사업계획 및 제품이 제안됐으며, 27개 팀이 수상했다(2014년 기준).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눈을 깜빡여서 클릭하는 안구마우스 '씨릴(SeeReel)'은 이 페스티벌을 통해 주목을 받은 청년혁신가의 제품이다. SK SUNNY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 주도적 · 실천적인 실행력으로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이다. 대학생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해피노베이터(Happinnovator)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사회 혁신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SK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의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취약계층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해주는 'SK 해피스쿨'과 교육 및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1318 해피존'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경최종건재단'에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SK 해피스쿨 지원

SK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SK 해피스쿨'을 통해 교육나눔을 추진하고 있다. SK 해피스쿨은 SK의 행복나눔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전문요리사 양성을 위한 '쿠킨스쿨'과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카스쿨'을 운영해 왔다. SK 해피스쿨을 통해 2013년까지 총 257명이 졸업했고, 17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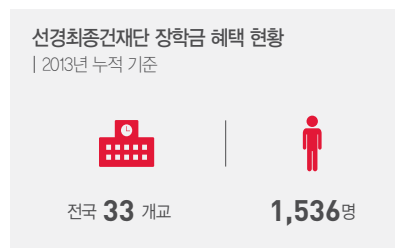


1318 해피존 지원

2006년 SK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318 해피존'을 기획했다. 총 113억 원을 들여 전국 31개소에 1318 해피존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 진로정보, 급식, 동아리활동 등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318 해피존은 기업, 정부 NGO의 파트너십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민간기업인 SK는 건립 및 운영 자금과 관련 자원봉사 인력 등을 제공하고, NGO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운영을 맡았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적 지원과 장소 지원에 참여했다. SK의 직접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3년 현재 전국에 33개소에 1318 해피존이 운영되고 있으며, 1,314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선경최종건재단 설립

SK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직계가족의 사재출연을 기반으로 최종건 창업회장 30주기 기념식 때 설립한 '선경최종건재단'이 대표적 장학사업 기관이다. 선경최종건재단은 출연기금 64억 원의 연간 이자수익인 4억여 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2013년까지 총 이자소득 26억여 원으로 전국 33개교 총 1,536명의 학생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다.



인문학 · 행복연구 확산

SK는 행복경영 철학이 더욱 발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재)플라톤아카데미’, 행복을 추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행복마을’, 시대의 진정한 행복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 지원

인간중심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SK는 인문학의 사회적 심화와 확산을 돕는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재)플라톤아카데미에서는 국내외 대학과 인문학회 그리고 선별된 인문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인문학 공부의 기회와 학술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서울 및 지방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실을 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인문학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누적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일반시민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60초로 인문학을 정의해 보는 대학생 인문학영상공모전을 개최하고,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인문학 거리 페스티벌도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양질의 인문학 콘텐츠를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플라톤아카데미 TV’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대, 다양한 세대와의 원활한 인문학적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마을 운영

시대의 화두인 힐링과 발맞춰 SK는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닫게 만드는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마을에서는 마음의 안정으로 비롯된 행복 명상법인 동사섭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이러한 행복의 의미를 전파할 동사섭 지도자 육성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행복마을 소모임인 깨알자원봉사단 등도 SK의 지원으로 더욱 활발한 나눔을 행하고 있다.

*동사섭 : 1980년대에 유타스님이 창안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으로 행복을 스스로 찾게 하고,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지원

SK는 국내 유일의 대학교 내 행복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사회의 행복 확산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행복에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와 다수의 관련 논문 및 행복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다. 또 모든 사회구성원과 행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를 공유하는 ‘행복연구센터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보다 자세히 행복에 관해 배우고 싶은 일반인들을 위해 연경별 행복수업도 진행해 행복교육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시민 대상 인문학 공개 강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지원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간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겠다는 SK의 강한 의지는 ‘SK자원봉사단’의 창단으로 이어졌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SK자원봉사단은 각 관계사의 조직별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SK 행복나눔계절’, 경영자문 재능기부활동인 ‘SK프로보노’,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SUNNY’,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돕는 ‘긴급구호’ 등이 대표적 활동이다. 이러한 활발한 자원봉사를 통해 구성원은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참된 행복나눔을 통한 삶의 의미까지 만들어 가고 있다.

SK 행복나눔계절

SK는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진정으로 행복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SK는 2005년부터 이러한 상생이념을 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SK 행복나눔계절’을 선포했다. 저소득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 있는 SK 행복나눔계절은 우리 사회의 훈훈한 겨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눔

1996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김장나눔’은 SK 행복나눔계절을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는 SK 경영진을 포함한 구성원은 물론 협력사 CEO, 관계사 노조위원장, 종교단체 관계자, SK스포츠단 선수,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SUNNY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SK그룹의 ‘행복나눔’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행사로써 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들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실제 매년 약 8만 포기의 김장이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800여 곳과 관계사들이 직접 후원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사랑의 김장나눔



결식아동돕기 기부캠페인

결식아동돕기 기부캠페인

방학 중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결식아동돕기 기부캠페인’은 최고경영진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동참하는 구성원 소액기부 활동이다.

SK 구성원들이 소액기부 캠페인에서 모은 성금으로 전국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에서 준비한 무료 도시락을 하루 한차례 결식아동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거나,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등에서 배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2009년 1,399명의 아이들에게 45,045식의 도시락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1,913명의 아이들에게 371,832개의 행복도시락을 전달했다.

행복나눔바자회

2004년부터 연말이 되면 SK는 용산 KTX 역사에서 구성원 및 각 관계사의 기증품을 판매하는 ‘행복 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행복나눔바자회는 구성원이 물품기증 및 현장 판매봉사에 참여하는 대규모 바자회이다. 더불어 SK스포츠타운 스타와 바자회 취지에 공감하는 연예인들도 대거 참여하여 이 프로그램을 빛내주고 있다.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서의 의미도 큰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진행여부와 시기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문의를 해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 행복나눔바자회에서 거둔 수익은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5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모았다.



행복나눔바자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기본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SK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업이 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웃사랑’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전 구성원들의 따뜻한 성원을 담은 성금은 연말에 기부된다. 2013년에는 SUPEX추구협의회 의장과 전 구성원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을 기탁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계사 자원봉사활동

SK는 각 관계사의 특성을 살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기업의 특성과 노하우가 반영된 체계적인 나눔일수록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SK는 관계사별로 실질적이고 연속성 있는 실천방안을 찾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관계사 활동 상세 내용은 P.66 참조)

SK프로보노

SK는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프로보노 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2009년 9월 대기업 최초로 ‘SK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했고, 현재까지 총 600명이 넘는 SK 구성원이 350개 이상 단체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SK프로보노는 경영전략, 법률 등 일반적인 자문 외에도 요리, 외국어, 사진 촬영 등 구성원이 보유한 다양한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돕고 있다. SK는 대한민국 프로보노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팁과 경험 공유, 자문 니즈 및 자문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자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프로보노 :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문구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보노 활동은 재능봉사의 일환이지만 주로 개인보다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조직의 경영능력을 높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지칭한다.

SK프로보노란?

	미션	—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공익단체의 성장을 돕는다.
	인재상	— 전문적 재능보유 + 따뜻한 시민의식 + 적극적 추진력
	자문 대상	— (예비)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및 NGO와 같은 공익 단체와 미소금융대출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자문 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 · 홍보, 인사 · 노무, 법무 · 재무 · 회계, 무역, IR, 디자인, 외국어, 사진, 요리 등 기업 · 단체 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

SK프로보노 지원 프로그램



발대식 · 오리엔테이션

자문 활동 프로세스 소개 및 자문 대상에 대한 이해도 제고



프로보노 임팩트 데이

프로보노 간 자문 노하우 공유, 프로보노와 사회적 기업가와의 오픈 미팅 등 소통의 장 마련



주제별 네트워킹

사회적 기업가와의 만남, 소셜 다이닝, 자문스킬향상 토크 콘서트 등 개최



우수사례 발표 · 시상

자문 활동 평가와 시상상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인정

SK프로보노의 참여 방식



자문 분야별 주요 활동



'비전웍스' CS개발가이드 작업



마케팅 A to Z 교육



'언니네티발' 로고 작업

경영전략	경영이슈 진단,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제안서 작성 등 1:1 코칭 제공
법률·특허	계약서 검토 및 특허 출원, 상표 등록 등 법률 전반 자문
재무·회계	재무관리, 회계, 자금관리 등에 대한 1:1 코칭
인사·조직	조직문화 구축 자문, MBTI 워크숍 등
마케팅·홍보	시장조사, 소비자 행동,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세부 분야별 1:1 코칭 및 교육
CS가이드	고객 서비스 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가이드 제공
디자인	로고 개발 : 기업 로고, 브랜드 로고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제공 패키지 디자인 : 제품의 라벨, 포장 등을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
IT 코칭	홈페이지, 모바일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제공
사진	행사사진, 제품사진 등 사회적 기업의 홍보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공
번역	무역서류, 홍보자료 등 실무에 필요한 각종 문서에 대한 번역 제공(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SK Pro Bono Story

“사회적 기업과의 대면으로 보다 넓은 시각과 유연한 태도를 기르게 됐습니다”

SK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보노에 관심이 컸던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SK프로보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K프로보노로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설립 초기 단계였던 ㈜놀이나무의 사업전략과 수익 모델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2011년에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사업화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성 개선 및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 홍보 방안과 추가 수익원 개발에도 매진했죠. 그 결과 2012년에는 매출 3.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당시 집중한 활동은 신규 사업 추진(자기주도학습 및 제휴방안 수립), 단위 사업에 따른 조직개편, 체계적인 고객관리방안 수립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매출 5.9억 원을 달성함과 동시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 모델 정비와 집중 영역 선정에 따른 수익성 강화가 있었죠. 또한 각 사업별 수행 조직의 독립적 운영 강화, 고객 유형별 증감 통계에 따른 유지 · 관리 프로그램 실행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목표 매출 9억 원에 따른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갖추어야 하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다 더 창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서있는 것이죠. 저는 SK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

업의 높은 열정은 물론 혁신적인 시도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보다 넓은 시각과 유연한 태도로 회사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SK프로보노는 공익적인 가치와 함께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SK프로보노 이대준 매니저 | SK텔레콤

이대준 매니저(SK텔레콤 · 솔루션사업전략)는 ㈜놀이나무 설립 초창기인 2010년부터 SK프로보노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5년간 비즈니스 모델 수립,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수익 모델 발굴, 조직 개편 등 ㈜놀이나무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코칭 활동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활동 내용

- 2010**
 - 사업 전략 수립 및 수익 모델 확립
- 2011**
 - 사업화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 전략 수립
 - 마케팅 · 홍보 방안과 추가 수익원 개발
- 2012**
 - 신규 사업 추진, 자기주도학습 및 제휴 방안 수립
 - 단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 체계적 고객관리방안 수립

- 2013**
 - 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모델 정비 및 집중영역 선정, 수익성 강화
 - 각 사업별 수행 조직의 독립적 운영 강화
 - 고객 유형별 통계관리를 통한 고객 유지,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
 - 매출 5.9억 원 달성(흑자 전환)

- 2014**
 - 목표 매출(9억 원) 달성을 위한 프로모션 전략 수립 및 실행

(주)놀이나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그에 맞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놀이 중심의 활동을 통해 동기부여 학습을 제공

하는 엄마들의 품앗이 교육에서 출발한 (주)놀이나무는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통한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등의 전문적인 도움과 함께 감동까지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2011년, 커피지아는 자폐성 장애인 4명을 비롯한 총 6명의 식구들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2년 만인 2013년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큰 난관에 봉착했죠. 책임져야 할 식구들은 많은데 운영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판로개척에 대해 고심하던 중, 같은 해 겨울 무렵 강남구청에서 온 ‘프로보노’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SK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죠. 당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커피지아는 주저 없이 프로보노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본업이 있는 분들이 커피지아에 얼마나 신경을 써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과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작은 사회적 기업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SK프로보노와의 첫 대면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녁식사까지 거머쥔 열심한 커피지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SK프로보노 정재호 매니저님(SK텔레콤)과 김성현 매니저님(SK텔레콤)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분 좋은 예감까지 들었죠. 커피지아는 SK프로보노를 통해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 특히 도움이 된 것은 경영과 마케팅 전반에 걸친 ‘컨설팅’입니다.

한가지 예로 들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커피지아는 결점두를 없애는 핸드픽 공정에 자폐성 장애인 2명을 투입했고, 이 친구들은 한 알의 결점두도 놓치지 않았죠. 이것을 본 SK프로보노 매니저님들은 자폐성 장애인들의 우직함과 집중력을 활용하여 능력을 개발시키는 모습을 좀 더 어필하고, 이것을 커피지아만의 강점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인 직원들과 저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하는 일을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 끝에 ‘초능력 공 감별사’라는 재미있는 별칭을 만들었습니다. 두 매니저님들은 아주 재밌는 별칭이라며 응원해 주셨고, 동시에 컨설팅으로 활용하도록 조언해 주셨죠. 실제로 ‘초능력 공 감별사’는 커피지아만의 독특한 아이콘이 됐고,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이 외에 ‘법률 자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커피지아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문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SK프로보노를 통해 계약서 검토와 투자에 관련된 많은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죠. SK프로보노와 성공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자로서 SK프로보노를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은 ‘SK프로보노를 신청하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급해 하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SK프로보노가 도와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과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컨설팅과 피드백을 해주고, 몇 개월이 지나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SK프로보노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SK프로보노를 만난 커피지아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분들의 격려가 헛되지 않도록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자폐성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일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쓰는 커피지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커피지아 | 김희수 대표

커피지아의 김희수 대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SK프로보노에게 경영과 마케팅 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법적인 자문 등을 받으며 점차 사업의 발판을 넓혀 나가고 있다.



‘커피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처럼 맛있는 커피집,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집으로 자리하길 희망하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뜻한 나눔의 철학이 담긴 요리솜씨를 나눕니다”



SK프로보노 봉사단은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프로보노 활동에서는 보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SK네트웍스 셰프들이 활약하는 ‘요리’ 분야입니다. SK네트웍스 워커힐의 조리장을 필두로 사회취약계층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보노의 취지와 효과에 적극 공감한 요리 분야 프로보노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커

hil R&D센터의 ‘소스·메뉴개발 교육’은

‘사회적 지식을 빼놓고 기술만 연마해서는 진정한 셰프가 될 수 없다’는 요리철학을 갖고 있는 워커힐 R&D팀.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소스·메뉴개발 교육에 힘쓰고 있다.

hil R&D센터의 ‘소스·메뉴개발 교육’은 요식업 관련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창업팀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스·메뉴개발 교육의 중심은 한·중·일·양식 등의 소스 개발과 이를 응용한 조리법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밖에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맛을 내는 새로운 조리법과 재료 손질이나 보관에 대한 특급호텔 조리장만의 비법 등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해 나눔의 행복을 공유합니다”



‘제주 평화의마을 나눔디너쇼 코스요리 개발 및 조리지원’은 워커힐 조리팀의 손꼽히는 SK프로보노 활동입니다. 제주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평화의마을은 매년 봄 지역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공연과 만찬을 제공하는 나눔디너쇼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커힐 조리팀은 2011년 제주 평화의마을에서 생산하는 흑돼지 소시지 레시피 개발 자문으

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평화의마을 나눔디너쇼가 가진 훌륭한 취지에 감동한 워커힐 조리팀은 만찬 코스 요리의 레시피 개발 및 조리를 3년째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SK프로보노 워커힐 조리팀은 전수받은 요리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음식을 나누듯 요리솜씨를 나눠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도울 것입니다.

SK네트웍스 워커힐 조리팀의 나눔디너쇼 지원활동 가장 지속적이고 활발한 자문활동을 펼치는 워커힐 조리팀은 전수받은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사회적 기업을 볼 때 행복함을 느낀다.



커피지아

커피지아는 자폐성 장애인에게 바리스타로서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까지 찾아주는 사회적 기업이다. 커피지아는 한자 ‘家(집)’자의 중국어 합성어로 ‘커피집’,



SK SUNNY

SK SUNNY

SK는 2003년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써니)’를 발족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SUNNY는 패기와 열정으로 뭉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자신의 재능을 사회로 환원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SK SUNNY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소외 없는 ‘행복한 노인’, 장애편견 없는 ‘행복한 사회’를 3대 해결과제로 삼고 있다. 대학생 스스로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K SUNNY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SK는 2010년 중국에 ‘SK SUNNY CHINA’를 창단했다. 2013년 한국에서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10개 지역, 중국에서는 북경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한·중 4만 3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국내 최대, 중국 내 외국기업 최초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라는 SK 사회공헌 자산을 계승·발전시켜 2003년 SK텔레콤 고객 자원봉사단으로 발족됐다. 국내 최초 고객 자원봉사단인 SK SUNNY는 대학생이 선도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추구하며 즐겁고 창의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조성·확산해 왔다.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와 정신을 중국 사회에 전파하고자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CHINA’를 창단했다. 중국 최초로 외국기업이 만든 현지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서 북경, 상해, 심천, 사천성, 장수성 중국 5개 지역 18개 대학교의 학생들이 동참해 나눔의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교육 격차 없는 ‘행복한 아동’, 환경오염 없는 ‘행복한 도시’, 취약계층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 800여 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중 대학생들의 주도적 참여와 활동으로 성장해 온 SK SUNNY는 홈페이지 회원 15만 명, 누적 활동인원 4만 3,000여 명, 누적 활동시간 110만 여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자원봉사 트렌드 주도

SK SUNNY는 대학생의 창의적, 열정적 발상과 실천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는 등 자원봉사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1:1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하이터치(2003~현재)’, 해안지대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맵 대장정(2004~2007)’,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격차 해소를 위한 노년층 휴대폰 활용 교육 지원 ‘행복한 모바일 세상(2007~현재)’, 낙후지역 건물 벽화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담사랑(2007~현재)’,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캠프(2005~현재)’를 진행하면서 각 지역에서 필요한 도움뿐 아니라 글로벌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학교폭력, 노인소외, 장애차별 세 가지 사회문제를 주요 주제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 SUNNY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나눔의 방법을 혁신하고 자발적·주도적·실천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개선하며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SK SUNNY는 아이들이 뛰놀고 미래를 그리는 행복한 학교를 희망한다. 학교라는 건강한 터전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며 놀이, 자원봉사, 지역사회 등을 테마로 창의 인성 교육 ‘SUNNY 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심, 준법성, 사교성을 향상시킨다.

소외 없는 ‘행복한 노인’ SK SUNNY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연륜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치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미술, 요리, 휴대폰 등을 매개로 1·3세대가 교류하는 ‘SUNNY SILVE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과 대학생이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류함으로써 어르신들은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대학생들은 세대간 단절감을 해소한다.

장애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 SK SUNNY는 일방향적인 봉사가 아닌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양방향의 봉사를 지향한다. 장애인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나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SUNNY TOGETHE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장애 청년들의 아티스트로의 성장을 돕고, 장애로 인해 더 뛰어나게 발달한 감각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소리로 하는 여행 콘텐츠 ‘사운드투어가이드’를 통해 장애인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행복의 방법을 혁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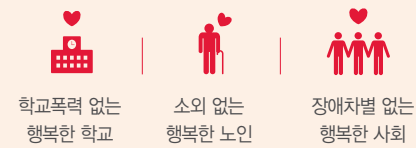
SK SUNNY의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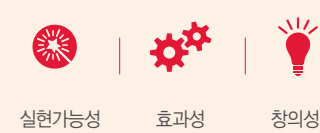
SK SUNNY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피노베이터(Happinnovator) 콘테스트는 행복의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들의 장이다. SK SUNNY 3대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전문 인큐베이션을 통해 거듭 발전시키고 있다.

SK SUNNY는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에 최종 선정된 팀들에게 국내외 관련 단체나 기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사회혁신 청년들과의 교류도 지원하고 있다.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 활동 주제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 선정 기준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 과정



2013 · 2014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 수상팀



메이아이

| 분야 : 장애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
| SUNNY 팀원 : 배윤슬, 박재형, 이다진, 정현진, 박민규, 안소연, 이영현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문화 정착을 통해 장애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프로젝트이다. 시각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사운드투어가이드' 콘텐츠를 시작으로 여행에서 문화로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행복동 이야기

| 분야 : 소외 없는 행복한 노인
| SUNNY 팀원 : 김기경, 김선욱, 송승현, 정유진, 김주연

'이야기'를 통해 어르신과 젊은 세대가 교류하는 프로젝트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어르신의 이야기를 대학생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세대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생산한다.



패럴로드

| 분야 : 장애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
| SUNNY 팀원 : 박정웅, 정용현, 오수영, 윤지원, 윤혜민

자기 옹호 교육으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권리 신장 인식을 확산시키는 프로젝트이다.



메이아이

| 분야 : 장애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
| SUNNY 팀원 : 배윤슬, 박재형, 이다진, 정현진

오감 키트를 활용하여 시각·비시각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통합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과 관련된 놀이들을 통해 오감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감각을 발달시키면서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모두의 미술관

| 분야 : 소외 없는 행복한 노인
| SUNNY 팀원 : 조재운, 최푸름, 원유진, 김라운

어르신-손자·손녀-대학생이 한팀이 되어 미술을 통해 세대간 소통을 높이는 프로젝트이다. 대화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와 관련된 미술 작품을 감상한 후 느낀점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등 소통을 통해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는 활동이다.

2013
2014

긴급구호

SK는 날이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2005년 긴급 재난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지역 구호활동을 강화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원봉사 현장구호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2002년부터 매년 의류, 세제류, 장류 등이 담긴 긴급구호 키트를 1,500~2,000개씩 사전 제작해 재해 현장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SK는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어디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시민의 역할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지금, SK는 앞으로도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18일, UN 글로벌 콤팩트 총회에서 올려퍼진 최태원 회장의 폐막연설 일부분이다. 위의 연설 내용에서처럼 글로벌 기업 대열에 서있는 SK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SK는 국내 긴급구호활동을 비롯하여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전 세계 재난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다.



긴급구호 키트 제작



동두천시 수해복구활동



동해안 폭설피해복구

국내 긴급구호 주요 활동현황

- 2002~** • 매년 1,500~2,000개의 긴급구호 키트 사전 제작, 재해 발생시 전달(2002년부터 매년 진행) (월드비전과 파트너십으로 지원대상 선정)
- 2007** • 제주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따른 구성원 자원봉사, 임대폰 및 의류 지원
- 2008** • 태안 가의도 전체 기름 제거를 위한 그룹 차원의 대규모 자원봉사
• 태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SK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구입
- 2011** • 동두천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 투입, 중장비 지원 등
- 2014** • 동해안 폭설 피해복구 및 난방유 지원

해외 긴급구호 주요 활동현황

- 2005** • 미국 카트리나 태풍 성금 16억 원 지원
- 2006** • 인도네시아 지진 성금 2억 원 지원 및 5,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지원
- 2008** •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복구 기금 및 의류 지원 및 소학교 건립 등(총 72억 원 규모)
- 2010** • 중국 칭하이성 지진 기금 3.6억 원 지원
- 2011** • 일본대지진 14억 원 현금 지원, 구성원 성금 및 구성원, SK SUNNY 구호활동
- 2013** • 중국 쓰촨성 구호활동 기금 11억 원 지원, SK SUNNY 헌혈 캠페인 지원

우리 성장의 터전에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다



SK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수원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선경도서관’ 및 ‘수원SK아트리움’ 등의 문화복지시설을 건립, 기증했다. 그리고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울산에는 ‘울산대공원’을 준공, 기증했다. 국가발전에 힘써온 SK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70년대부터 헐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 왔고, 우리강산이 묘지로 뒤덮이는 것을 막고자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 왔다. SK는 성장의 터전이 된 지역사회와 환경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큰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수원 향토기업 SK의 끝없는 행복나눔

SK는 수원의 작은 직물공장으로 시작해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업체로 도약했다. SK에게 있어 수원은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의 꿈을 키워준 성장의 산실이었다. SK는 고향이라 칭할 수 있는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 수원에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건립,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행복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수원 선경도서관 건립

1995년 4월, SK는 그룹의 발원지인 수원에 ‘선경도서관’을 건립하고 수원시에 기증했다. 당시 2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이 도서관은 수원에 있는 3개 시립도서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며, 국내 전체를 따져도 규모 면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대형 도서관이었다. 현재 수원 선경도서관은 수원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도서관으로써 학습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SK청솔노인복지관 건립 및 재건축 지원

SK가 공사비 55억 원을 지원한 ‘SK청솔노인복지관’이 2010년 재개관 했다. SK청솔노인복지관은 1981년 (주)선경합섬이 세워졌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97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복지관 1층에는 노인들의 건강 진료와 치료를 위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실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과 컴퓨터 강의실을 갖추고 있다. 2층에는 6개의 강의실과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그리고 3층에는 300석 규모의 대강당과 한번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바둑실·장기실, 노래교실,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SK는 SK청솔노인복지관에 재건축 자금 지원뿐 아니라 노인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SK아트리움 건립·증여

수원지역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위해 SK는 ‘수원SK아트리움’을 2013년 3월 건립·증여했다. 수원SK아트리움은 35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충실한 음향시설은 물론 전문 공연단체의 상주로 한층 향상된 공연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설

2005년 3월 15일 SK는 한국 해비타트, 수원시와 함께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SK의 발원지역인 수원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SK가 단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구성원의 자원봉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6년 10월 1차로 18세대가 입주했으며, 2015년 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비타트-SK행복마을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사회변화를 추동한 실질적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설

울산시민의 변함없는 사랑에 보답하는 SK

SK는 1980년 유공을 인수하면서부터 울산의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SK에너지, SK종합화학 등의 관계사가 위치한 울산 CLX는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SK는 이와 같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준 원동력이 시민들의 성원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울산대공원’을 건립, 기증했다.

울산대공원 건립 기증

오랜 산업개발로 공해도시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여가와 휴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울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SK와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조성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1997년부터 SK는 울산시 남구 옥동·신정동 일원 110만 평에 1,02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2002년 4월 1차 개장, 2006년 4월 공원조성을 완료했다. 10여 년에 걸친 대공사를 마무리 짓고 완공한 후에도, SK는 매월 다양한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울산대공원은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으며, 울산시민의 여가·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친환경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울산대공원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40여 년을 이어온 녹색공헌

산림조성이야말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SK는 지난 40여 년간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심어 왔다. 그 결과 충주 인등산, 천안 광덕산, 영동 시항산 등 민등산이었던 일대가 거대한 산림으로 변모했다. SK는 환경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화장(火葬) 유언 남기기’ 캠페인에 일조한 것은 물론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최고 수준의 화장시설인 ‘장례문화센터’를 건립, 기증했다.

인재의 숲 조성 사업

1974년 SK는 조림사업체인 SK임업(전 서해개발)을 설립했다. SK가 이윤이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조림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험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키워 얻은 수익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 때문이었다. 오늘날 ‘인재의 숲’으로 불리는 충주 인등산, 천안 광덕산, 영동 시항산 등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4,100ha에는 80여 종 330만 그루의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1989년 SK는 조림지 일부를 충남대에 연습림으로 무상 기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SK의 녹색공헌을 선도한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의 업적이 국가적으로 인정되어 2010년 기업인으로서 최초로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됐다.

*숲의 명예전당 : 산림청이 산림녹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행적을 전시하기 위해 설치한 전시관



SK 조림 전후 인등산 모습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 건립 기증

평소 우리강산이 분묘로 뒤덮여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은 1998년 영면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로는 거의 처음으로 화장을 택하는 유언을 남겨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곧바로 ‘한국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가 결성됐고,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됐다. 이 캠페인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화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묘지로 인한 국토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했던 선대회장의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 SK는 뜻 깊은 기부에 나섰다. 최고 수준의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해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세종시에 부지를 확보한 SK는 2010년 1월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를 준공했다. 장례문화센터는 무색, 무취, 무연의 시설을 구비한 최첨단 수준을 자랑하며, 화장시설의 조성을 준비하는 서울, 창원, 울산 등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 타계 당시 27%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13년 말 77%까지 상승했다.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

무한한 환희와 감동으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물들이다



행복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SK는 우리 사회 곳곳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핸드볼, 펜싱 등의 비인기 종목과 기업의 특성을 살린 e스포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스포츠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디지털미디어아트와 선두주자인 '아트센터 나비'와 노인 전용 영화관인 '실버극장' 등을 후원하여 창조적이고 선진화된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행복 에너지가 가득한 SK 스포츠

SK는 지난 45년 동안 우리 사회의 스포츠가 더욱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인기 종목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특히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핸드볼과 국제 대회에서 매번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펜싱 분야에 물심양면의 후원을 쏟고 있다. 또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e스포츠와 최경주, 최나연 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 개개인에게도 후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핸드볼 지원 사업

2007년 대한핸드볼협회와 후원 계약 이후 2008년부터 핸드볼 회장사가 된 SK는 대한민국 핸드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메인 스폰서로서 국내 최고 권위의 리그 대회인 '핸드볼코리아 리그' 후원을 비롯하여 유망주 장학금 지급, 유소년 발굴 및 육성, 심판·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등 핸드볼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건립, 핸드볼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냄과 동시에 SK의 핸드볼 사랑에 대한 결실을 맺었다. 'SK핸드볼경기장'은 국제 규격에 맞춰 본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을 최신 시설로 구성했으며, 5,000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팀 해체로 은퇴 위기에 놓인 용인시청 여자 핸드볼팀을 인수해 2012년 2월 여자 핸드볼구단 'SK슈가글라이더즈'를 창단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체계화된 구단 운영과 수준 높은 경기력을



핸드볼전용경기장 건립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선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핸드볼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선수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의 지원으로 비유럽권 최초로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난징유스올림픽 금메달, 아시아남자청소년선수권대회 금메달 등 세계대회에서 유소년들이 선전하고 있으며,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핸드볼 금메달과 남자 핸드볼 은메달의 쾌거를 이뤘다. SK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신화를 이어가는 핸드볼 선수들의 열정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것이다.

펜싱 지원 사업

2003년부터 대한펜싱협회 회장사가 된 SK는 저변 확대와 선수 지원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매년 10억 원 이상 지원하며 펜싱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 SK의 아낌없는 후원에 힘입은 대한민국 펜싱팀은 국제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승승장구 했다.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펜싱팀은 역대 최고의 성과인 금 2, 은 1, 동 3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 8, 은 6, 동 3개로 역대 아시안게임 중 최고 성적을 갱신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확고 부동한 메달 기여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e스포츠 지원 사업

SK는 2005년부터 IT와 스포츠가 접목된 e스포츠에 투자하고 있다. 2013년까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사로서 e스포츠 중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를 도왔으며, e스포츠 구단 중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SK텔레콤 T1 프로게임단'을 운영하고 있다. T1 프로게임단은 스타크래프트(StarCraft) '08-'09 시즌 우승 등 최다 우승, 스타크래프트2(StarCraft2)/스페셜포스(Special Force) 최초 동반 우승, 한국 최초의 롤(LOL) 월드챔피언십 우승 등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기며 세계 최강 명문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수 선수 지원

SK는 유망한 아마추어 선수 및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원을 받은 박태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훈련 전담팀을 통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실격 파동이란 아픔을 딛고 은메달을 획득해 대한민국 수영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K는 제2의 박태환 발굴을 위한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SK의 각종 후원을 받은 선수 중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이 많다. 그 중 2010년부터 지원을 받은 프로골퍼 최경주는 2011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을 비롯해 2012년까지 PGA 투어 8회, 유럽 투어 1회 우승 등의 기록을 양산했다. 2005년부터 후원을 받은 최나연은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우승을 포함해 2012년까지 LPGA 투어에서 총 7회 우승을 하며 세계적인 여자 프로골퍼로 성장했다.

선도적인 문화를 열어가는 SK

국민들이 행복하고 수준 높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SK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디지털미디어예술 관련 전시 및 학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21세기를 리드할 통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SK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노인 전용 영화관 '실버극장'을 후원하여 노년층에게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레스토랑 오늘'과 '프로젝트박스 시야'는 식·공연 문화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 지원

SK가 지원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디지털미디어예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등 각종 전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명 미디어아티스트 공개강연 등의 학술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문, 예술, IT, 공학 분야 등의 인재를 선발해 내적 창조성을 기르는 '타작마당'을 2013년 개관하여 통섭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버극장 후원 및 운영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국내 최초 노인전용 영화관인 '실버극장'을 후원 및 운영하고 있다. 실버극장에서는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담이 적은 2,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영화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있다. SK에서 매년 1.2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버극장은 설립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으며, 2009년 국내 극장 최초로 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다.

식·공연 문화 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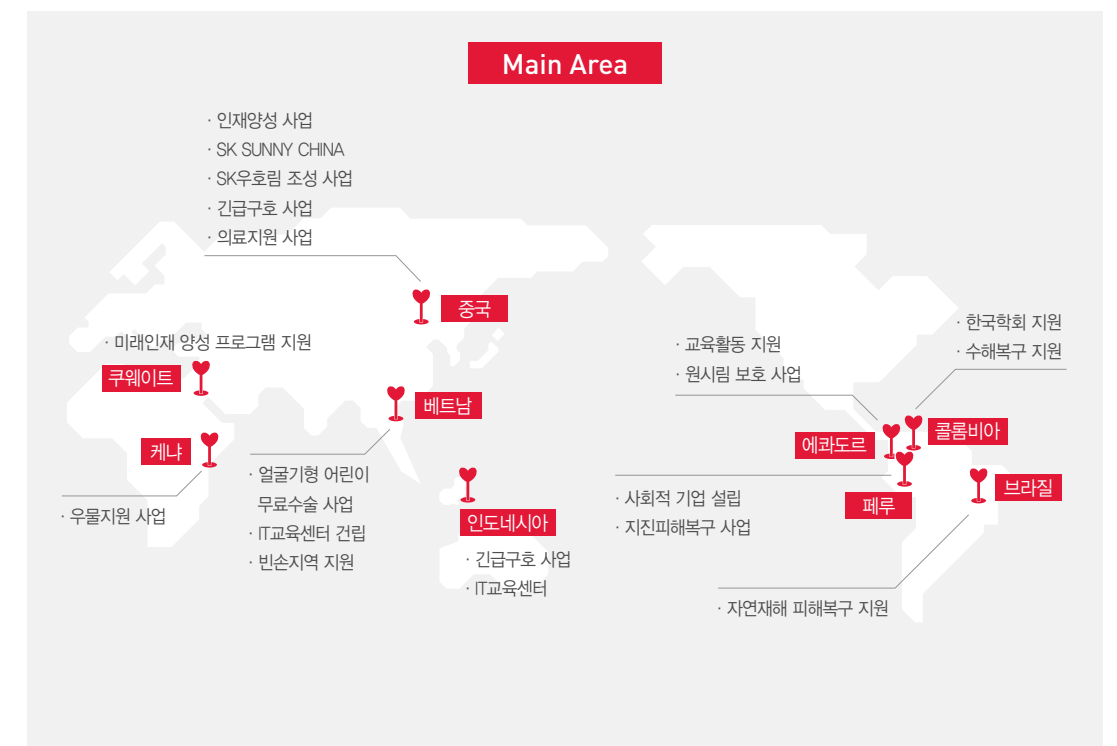
SK는 대한민국 한식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적인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오늘'은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SK 해피스쿨 졸업생의 인턴십 및 취업처로서의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는 다양한 문화 분야의 인력 및 콘텐츠 발굴지원을 위해 '우란문화재단'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박정자 주연의 '14인 체휼' 등 기획공연과 창작자 및 배우를 위한 전문심화교육을 진행했다.

글로벌 사회공헌

세계시민 SK,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세상을 실현하다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SK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체가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페루, 쿠웨이트 등을 주요 지역으로 설정해 사회공헌과 비즈니스 전략이 연계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는 이들 국가에 천편일률적인 사회공헌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나눔으로 행복을 뿌리내리고 있다.



중국의 마음을 사로잡은 SK 행복나눔

SK는 누구보다도 먼저 중국의 빗장을 연 기업이다. '차이나 인사이더(China Insider)'라는 지향점을 갖고 한국기업 SK가 아닌 '중국기업 SK'로서 나눔을 행한 것이다. 교육, 자원봉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을 펼친 SK는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글로벌 기업 3위(중국 CCTV 발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인재양성 사업

중국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SK 사회공헌 중 하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새 밀레니엄과 함께 출발한 SK의 중국판 장학퀴즈 '장웬방'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아시아센터' 및 '베이징 · 상하이포럼' 등의 국제학술사업도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 중 · 고등학교 과학교실 인프라를 후원하는 'SK창신교실', 1995년부터 북경대, 칭화대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SK장학금', 대학생 대상 창업 ·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AB(Know About Business)' 등도 큰 호응을 얻었다. 쓰촨성 지진피해 지역 어린이를 위한 3개의 '행복소학교' 설립도 빼놓을 수 없는 SK의 인재양성 활동이다.



SK창신교실 전경

SK SUNNY CHINA

2010년 SK는 중국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SK SUNNY CHINA'를 창단했다. SK SUNNY CHINA는 북경, 상해, 심천, 사천성, 장수성 5개 지역을 기반으로 연간 18개 대학의 8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격차,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돕는 뜻 깊은 활동으로 SK SUNNY CHINA는 2012년 중국인민일보 인터넷사이트 인민왕에서 주는 우수공익상을 수상했다. 2013년에는 사천성 지진 현장에서 헌혈, 학교 복구지원, 아동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중국 사회에서 청년 활동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SK우호림 조성 사업

SK는 중국의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매년 봄이면 골치를 앓게 하는 황사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황사의 주발원지인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지역 3백 6십만㎡에 방사림을 조성하는 'SK우호림' 사업을 실시했다. 총 230만 그루의 조림을 완료했으며, 이중 84%가 뿌리를 내려 황사 피해를 저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2011년 SK우호림 사업은 장화시보에서 주최한 '최고 기업 공익활동 창신상'을 수상했다.



SK우호림 조성

긴급구호 사업

중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구호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거대한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난 쓰촨성은 SK의 긴급구호 활동이 빛을 발한 곳이다. SK는 2008년 쓰촨성 지진 당시 성금, 의류, 소학교 건립 등에 필요한 4,000만 위안(72억 원)의 금품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펼쳤다. 2014년에 또다시 일어난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에는 610만 위안(11억 원)의 현금 지원 및 SK



중국 긴급구호 사업

SUNNY CHINA와 함께 헌혈 캠페인을 펼쳤고, 그밖에 2010년 칭하이성 지진 당시에는 205만 위안(3.6억 원) 규모의 금품 지원과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의료지원 사업

SK는 중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SK는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심장병 아동의 수술을 적극 지원했다. 2012년 기준 동북 3성 지역에서 28명, 쓰촨성 및 청두지역에서 12명의 아동이 치료를 받았다.

베트남에 새 희망을 전하는 SK

현대사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여러 굴곡진 인연을 맺어왔다. 이렇게 오랜 시간 국교를 단절했던 양국은 1992년 12월 '한 · 베트남 수교'를 통해 풀리기 시작했다. SK 역시 이 기회를 계기로 기업을 진출시킨 것은 물론 나눔의 뜻까지 펼쳤다. 현재 얼굴기형 어린이 수술은 SK의 대표적인 베트남 사회공헌활동이다.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베트남 전쟁의 큰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얼굴기형 아동의 급증이었다. 이에 1996년 SK는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아시아권 국가 중 가장 먼저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시작했다. 얼굴기형 무료수술은 외모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구순 · 구개열 등의 안면기형 환자들에게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 동안 매년 진행하여 3,400명 이상의 아동이 수술을 받아 새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108군병원 의료진들과 동시에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선진 의료기술 이전은 물론 사업 이후에도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얼굴기형 어린이 수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술 및 마취 장비, 의약품 등을 기증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SK는 200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가우호훈장을 수상했다.

IT교육센터 건립

SK는 베트남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IT 인력양산에도 매진했다. 2007년 호치민 광종 특구에 건립된 IT교육센터는 SK텔레콤이 사업기획 및 예산을 지원하고, SK C&C가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 지원을 담당하며, 송실대가 전반적인 관리를 맡은 IT인재양성 전문 기관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송실대 대학원 유학과 SK텔레콤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진로까지 지원했다.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은 송실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IT교육센터 건립



베트남 자원봉사활동

빈손지역 지원

베트남 빈손(Binh Son)지역에 자원개발 및 투자 관련 사업으로 진출해 있는 SK는 해당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SK는 글로벌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빈손 인근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했다. 해당 도서관 건립으로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문화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동 및 중남미지역 맞춤형 SK 사회공헌활동

아시아권 외 SK 사회공헌활동이 두드러진 곳은 중동과 중남미지역이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민간외교로 시작된 인연의 끈이 오늘날까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지역은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 중인 쿠웨이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중남미 사회공헌 지역은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손꼽을 수 있다. SK는 이러한 현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우호적 관계 구축 및 비즈니스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쿠웨이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11년부터 SK는 쿠웨이트에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Leaders for Development Initiative : Thukhur)'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쿠웨이트는 언젠가 도래할 석유자원 고갈에 대한 준비 차원으로 청년 일자리창출과 벤처창업을 지원하고자 했다. 더불어 젊은층의 호응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SK가 힘을 보탰다.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쿠웨이트의 '2035 경제개발 계획'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 및 육성하는 교육활동이며, 현재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KEP(Kuwait Entrepreneurship Program)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Thukhur : 쿠웨이트어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란 뜻

페루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진피해복구 사업

SK는 페루에서 지속가능한 행복을 실현해 나갈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마이 스쿨(My School)'은 IT 플랫폼을 이용해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자가평가 서비스 등을 행하는 교육진흥 사회적 기업이다. 그리고 '야차이와시(Yachaywasi)'는 농업기술 판매, 농업 경영 컨설팅, 농기구 대여 및 판매 등을 하는 농촌진흥 사회적 기업이다. SK가 페루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은 현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SK는 2007년 일어난 페루 대지진 피해복구에도 적극 동참했다. 피해지역인 피스코(Pisco), 이카(Ica) 등지에 48개의 학교 및 5개소의 의료시설을 복구해 현지인들의 아픔을 달랬다.



페루 마이 스쿨(My School)

브라질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브라질과 SK의 만남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76년 대한민국과 브라질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발족된 '한·브라질 경제위원회'에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한국측 대표를 맡았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이러한 끈끈한 인연은 오늘날 사회공헌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복구 기금으로 SK가 3.3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수많은 브라질의 이재민들은 SK의 기금으로 식수, 식량, 의류, 약품 등의 긴급구호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콜롬비아 한국학회 및 수해복구 지원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SK는 콜롬비아 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콜롬비아 한국대사관 '한국학회'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콜롬비아가 큰 수해를 입었을 때 SK는 긴급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복구비용 1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에콰도르 교육활동 지원 및 원시림 보호 사업

2009년 정유공장 재건사업으로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에 진출한 SK는 현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을 선보이고 있다. SK가 에콰도르에서 제일 먼저 행한 사회공헌활동은 교육 관련 사업이다. 진출 다음 해인 2010년 SK는 에스메랄다스의 하이메 우르따도 곤잘레스 초등학교 개보수 및 학교 앞 진입도로 공사를 지원했으며, 아이들에게는 학용품도 기부했다. 2011년에는 축구꿈나무 양성을 위해 에스메랄다스 체육협회와 함께 'SK배 고교 챔피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축구꿈나무에게 유니폼, 축구화 등의 용품을 전폭 지원했다. 이와 함께 에콰도르의 자연보호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파괴되는 원시림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5만불 씩 지원했다.



에콰도르 지원활동

케냐 우물지원 사업

SK는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가뭄에 시달려온 아프리카 케냐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SK행복우물'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발 전문 NGO인 팀앤티민터내셔널과 함께 우물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케냐의 타나리버, 와추오다, 셀리지역에 5정의 SK행복우물을 완공했다. 또한 8곳의 기존 우물 펌프를 수리하여 14,000여 명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식수를 공급했다. SK행복우물 사업은 케냐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생존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SK의 주요 관계사는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위해 사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SK는 전국 곳곳에서 취약계층 지원, 환경 개선 활동, 1사 1촌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은 물론, 해외에서도 행복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구성원도 자발적, 의욕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해 왔다.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業)의 특성과 노하우를 살려 ICT 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취약계층 주거활동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관계사 활동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케미칼

SKC

SK C&C

SK건설

SK하이닉스

SK해운

SK증권

SK E&S

SK가스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텔레시스

SK 이노베이션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SK이노베이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각종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시청각·발달장애 아동이 참여하는 ‘환경사랑 글 모음 대회’, 협력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1994

· '제1회 환경사랑 글 모음 대회' 개최

1995

· 울산대공원 및 부대시설 완공 후 울산시에 무상 기부

2000

· 지역별 초·중등학생 대상 '사랑의 학교' 사업 시작

2004

· 전사적 차원의 자원봉사 조직 'SK1004봉사단' 발족

2005

· 사랑의 김장·연탄나눔 시작

2006

· 시간제 보육시설 '아가야' 지원을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전환 지원

2007

· 임직원 대상 소액기부 프로그램 '인 1후원 계좌' 시행
· 페루 사업지역 중심 교육·의료·환경·글로벌 사회공헌 시작

2008

· 정부부처(통일부, 보건복지부), NGO(열매나눔재단)와 함께 메자니아이팩, 메자니에코원, 고마운손 등 설립 지원

2010

· 초등학생 대상 에너지·환경교육 실시
· 베트남 교육지원 사업 실시

2011

· SK이노베이션 사회적 기업 '행복한농원' 설립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상

2012

· 페루 농업기술센터 '아차이와시' 1호점 설립(페루)
·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관장상
· 가온복지재단 감사패
· 부산시장 표창장

2013

· 개도국 결식아동 학교급식 지원
· 'Table For Two' 시작
· '행복파트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실시
· 사회적경제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 시행
· 페루 농업기술센터 '아차이와시' 2호점 설립
·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Pop-up Store' 오픈 및 운영
·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감사패
·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감사패
· 영도구장애인복지관 감사패
· 제주시 자원봉사협의회 감사패
· 제주특별자치도 표창패
· 제주도 자원봉사센터 표창패
· 한국관광공사 감사패

2014

· 영도구청 표창패
· 새나루공동체 감사패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발굴 및 지원

2013년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공모결과 65개의 제안서가 제출됐으며, 엄정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서울, 대구, 전주, 영광 등 4개 기관의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회계, 노무 등 기관별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을 도왔다.



사회적경제 발굴



행복한농원



팝업스토어

고용을 하기 위해 꽃을 파는 사회적 기업 행복한농원 설립 및 지원

SK이노베이션은 2007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사회적 기업인 메자니아이팩, 메자니에코원, 고마운손의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2011년에는 SK행복나눔재단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도시 녹화·미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농원'을 설립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행복한농원은 초화 재배와 판매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장애인 직업훈련, 원예치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행복한농원을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롤모델로 정착시킬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을 위한 팝업스토어 오픈 및 운영

사회적경제의 활로는 판매 증진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매출 확보를 위해 팝업스토어 운영, 마케팅 교육, 매매 알선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도왔다. 2013년 7월에는 '사회적 기업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위한 '팝업스토어(Pop-up Store)'를 오픈하고 운영했다.

교육·장학

꿈나무 과학멘토 및 어린이 골든벨 퀴즈대회 실시

SK이노베이션 대덕 글로벌 테크놀로지(Global Technology)에서는 유성구청과 함께 관내 3개 초 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꿈나무 과학멘토' 행사를 시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전기자동차를 직접 타 보고 과학키트를 조립하며 석유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너지 개발에 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CLX에서는 2010년부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아동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6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골든벨 퀴즈대회'를 실시했다.



사랑의 학교



꿈나무 독서캠프



사랑의 연탄나눔

김장, 연탄 지원 가구 수 단위: 가구				
	2010	2011	2012	2013
김장	12,600	13,735	11,879	11,392
연탄	3,709	4,536	686	428

장애인 행복나눔 걷기 행사 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참여인원	217	187	206	240
장소	부산 황령산	경주 도함산	부산 태종대	부산 이기대 공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사랑의 학교 사업 진행

2000년부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울산사업장과 인천사업장을 비롯한 전국 물류 센터 인근 지역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급식비, 교복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사랑의 학교 사업은 각 지역학교와 협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혜를 선물하는 사랑의 책나눔 프로그램 운영

2013년 SK에너지는 SK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마다 횡수당 5원씩 기부되는 고객 이벤트와 인근 지역 아동센터와 1:1 결연을 맺고 일정액을 기부하는 SK주유소 나눔활동으로 마련된 기부금으로 매월 도서를 구입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또 도서관이 없는 곳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꿈나무 독서캠프’ 등의 행사를 열어 수상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2014년부터는 사랑의 책나눔 홈페이지(<http://lovebook.endclean.com>)에 들어가 응원 의 댓글을 남기면 댓글 1건당 책 한 권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사랑의 김장나눔 및 사랑의 연탄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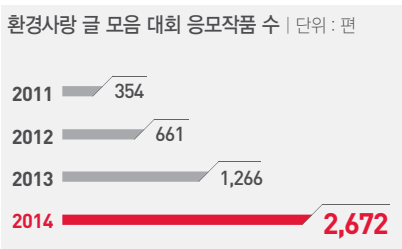
매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SK 행복나눔계절’ 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김장나눔’과 ‘사랑의 연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사랑의 김장나눔과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사랑의 연탄나눔은 최고경영층부터 일반직원까지 전 구성원이 봉사자로 참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13년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함께 복지시설,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국 214기관 1만 1천여 가구에 포기김치 13만kg을 지원했으며, 전국 430여 가구에 11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장애인과의 시민이 화합하는 장애인 행복나눔 걷기 행사 진행

매년 가을 SK에너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시민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장애인 행복나눔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0회째를 맞이한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총 240여 명이 참여하여 부산 이기대 공원 일대를 걷고 오로도를 관람했다.



인천지역 '어깨동무 페스티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SK행복나눔 벚꽃축제

인천재능대학교와 함께한 다양한 지역 자원봉사활동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사회공헌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인 ‘어깨동무 페스티벌’은 인천 소재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110여 명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선사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근 지역 독거노인 정기목욕봉사, 졸업기념전시회 초청행사 등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환경

환경의식을 키우는 환경사랑 글 모음 대회 진행

2013년 제21회를 맞이한 ‘환경사랑 글 모음 대회’는 어린이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 하에 발족됐다. 과거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이 행사는 2011년부터 대상을 초·중고 시각장애 학생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청각장애 학생, 2013년에는 발달장애 학생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했으며, 2014년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2013년 기준 전국의 시청각·발달장애 초·중고 학생 1,300여 명이 참여했고, 수상을 한 53명의 학생들은 1박 2일 캠프에 참가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지역 여가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울산대공원 조성 및 기부

SK이노베이션이 울산시에 기부한 울산대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장미축제와 각종 상설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여가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2013년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행복향기 가득한 Rose City Ulsan!’이라는 주제의 제8회 장미축제에는 전국에서 약 15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즐겁게 행사를 관람했다. 그리고 본 축제에 따른 지역사회의 활성화 효과로 인해 2014년 4월 울산시의 시화가 장미로 바뀌기도 했다.

인천 대표 지역행사로 자리한 SK행복나눔 벚꽃축제 개최

국내에서 손꼽히는 벚꽃나무 군락지를 가진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내 자연 녹지를 활용한 벚꽃 축제를 1985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벚꽃과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자연 속에 둘러싸인 친환경 정유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평균 2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SK행복나눔 벚꽃축제’는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표적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강꽃길 만들기



‘행복파트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협약식

친환경 도심을 위한 SK행복꽃동산 및 한강꽃길 만들기

매년 봄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복지시설의 유휴공간에 다육식물과 꽃을 식재하고 ‘SK행복꽃동산(미니정원)’을 조성해 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자연을 통한 정서적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에 ‘한강꽃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한강공원에 1만 5천 본의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써 친환경 도심 만들기에 작은 힘을 보탰다.

사회복지

협력업체의 사회공헌활동에 힘이 되는 ‘행복파트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공모사업

2013년부터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초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는 있지만 예산, 인력, 노하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행복 파트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등 주요 자회사의 협력업체 240여 곳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된 업체는 사회공헌 자금과 전문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지난 2013년에 13개 협력사에서 30개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협력사 소재지역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으며, 동반성장을 사회공헌 영역으로 확대시킨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즐거운 여행을 제공하는 Barrier Free Tour 후원

SK이노베이션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물 없는 편안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투어(Barrier Free Tour)를 후원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배리어프리 투어를 통해 저소득 청각장애인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이 짝을 이뤄 부산, 울산, 경주를 다녀오는 등 총 4회의 여행을 통해 200여 명의 장애인이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1인 1후원 계좌 프로그램 시행

행복나눔 경영 실천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SK이노베이션은 2007년부터 ‘1인 1후원 계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300여 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매달 5천 원~2만 원의 소액기부에 동참했다. 이렇게 모금된 1억 6천여 만 원의 성금은 지역봉사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 등 주변의 소외이웃에게 전달됐다.

스포츠 · 문화

제주유나이티드 FC프로축구단 운영 및 선수단 연계 사회공헌활동

1983년 유공코끼리축구단으로 출범, 2006년 부천에서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한 축구단은 전용구장을 갖춘 유소년클럽 운영, 지역 유망주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국내 프로 축구 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축구교실, 행복나눔 행복날개 캠페인 등 선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4년에는 제주교육청과 함께 369 캠페인을 실시, 아이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슈가글라이더즈 여자 핸드볼팀 운영 및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진행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0월 올림픽공원 내 펜싱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개장했으며, 2012년에는 SK슈가글라이더즈 여자 핸드볼팀을 창단하는 등 비인기 스포츠인 핸드볼을 그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SK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팀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핸드볼 교실 운영, 연고지역 어린이 초청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페루 교육향상 프로그램 My School

SK이노베이션은 페루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향상 프로그램 마이 스쿨(My School)을 개발했다. 마이 스쿨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펼쳐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교사와 학생에게 Teaching Skill, 강의자료 및 학습정보, e교과서 등의 양질의 교육자료와 자가 평가시스템, 학부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제공해 교육기관의 역량 제고, 학습역량 향상, 사회적 관심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마이 스쿨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교와 교사,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페루 농촌에 국내 최초의 글로벌 사회적 기업인 Yachaywasi 설립

SK이노베이션은 국내 기업 최초로 페루지역에 농촌자활형 사회적 기업인 ‘야차이와시(Yachaywasi)’를 설립했다. 야차이와시는 현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직접 설립한 NGO ‘SK-프로시너지(ProSynergy)’가 설립과 운영을 전담하고, 지방정부의 토지 무상임대, 가톨릭대학의 영농기술지원 등 기업-정부-대학-NGO가 동참하는 협력모델로 확대됐다. 2012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300km 떨어진 농촌마을인 후안카노에 야차이와시 1호점을 개소했으며, 이후 농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2013년 7월 페루 필피차카지역에 2호점을 열었다. 현재 야차이와시에서는 페루지역민을 위한 각종 농업기술 전수, 농지 임대, 저금리 대출, 농산물 판로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나눔 행복날개 캠페인



여자 핸드볼팀 SK슈가글라이더즈



페루 교육향상 프로그램 마이 스쿨(My School)

2013년 야차이와시 농촌진흥 프로그램 진행 성과			
	344개	농가 방문교육 이수 (지방정부 인턴십 취득)	
	157명	농촌학생 방문교육 이수	
	796개	타 지방 농가 방문교육 이수	
	40개	농가 선진 농업기술 이전 완료	

SK 텔레콤

ICT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며 고객, 사회와 동행하다

SK텔레콤은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Partner for New Possibilities)’라는 비전 아래 고객 · Biz 파트너 ·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ICT 생태계를 구축하며, ICT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과의 ‘행복’, 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방향 아래 ICT 기반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를 돕는 ‘BRAVO! Restart’ 추진 및 ICT 창업가, Biz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행복창업지원센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 나아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ICT 솔루션을 접목한 전 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정보소외 현상, 디지털 중독 및 범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온 국민이 ICT 기술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1996

·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지원 시작

1999

·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시작

2002

· SK텔레콤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시작

2003

· 대학생 자원봉사단 SK SUNNY 발족

2004

· SK텔레콤 자원봉사단 발족
· 모바일 기반 공익 플랫폼 구축 및 제공

2006

· SK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설립
(현재 행복나눔재단 운영)

2007

· SK 해피스쿨 시작(현재 행복나눔재단 운영)
·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 전국 실시

2011

· 기업 역량 연계 사회적 기업 (재)행복ICT 설립
· UNGC 가치대상 지역사회부문 대상

2012

· ICT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2012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장관상

2013

· ICT 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BRAVO! Restart’ 추진
· 기업 역량 연계 사회적 기업 (재)행복한에코폰 설립
· 스마트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전북 완주군)
· 중국제일시장,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18회 한국유통대상 대통령상
· UNGC 가치대상 지역사회부문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대상

2014

· 인도네시아 정보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IT교육 지원

사회적 기업

ICT 기반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재단법인 행복ICT

2011년 SK텔레콤이 설립한 ‘재단법인 행복ICT’는 ICT 기반 사회공헌 및 공익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한 행복ICT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과 서비스로 사회적 기업 IT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고 단말기의 가치 있는 재활용을 위한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전문감정평가사의 품질평가를 거쳐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고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T에코폰’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어 2013년 4월 T에코폰 업무를 수행하던 T에코센터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을 설립했다. 행복한에코폰은 중고 단말기의 매입부터 감정평가, 클리닝, 패키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은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등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재)행복한에코폰

교육 · 장학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창의적 교육사업 추진

2014년 4월 SK텔레콤은 로봇 관련 중소기업체들과 함께 전국 80여 개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로봇 및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로봇활용 교육복지분야 창조행복 나누美 발대식’을 개최했다. SK텔레콤은 스마트로봇 ‘알버트’ 및 이를 이용한 전용 놀이학습 · 프로그래밍 교육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인 ICT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로봇활용 교육복지

자원봉사

스마트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는 구성원 자원봉사단

2004년 결성된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은 구성원의 보유 역량을 적극 활용한 ICT 전문자원봉사와 방과후 과외,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한 재능나눔봉사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IT전공 고등학생 · 대학생 대상 IT진로스쿨’, ‘인터넷 활용교육’ 등 스마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청장년층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BRAVO! Restart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ICT 기술, ICT 상품개발, 법무, 특허, 마케팅의 분야에서 ‘BRAVO! Restart 프로보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벤처 창업 성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3년 각 분야 전문가 20명(1기)으로 출발한 BRAVO! Restart 프로보노 자원봉사단은 2014년도 현재 2기 20명이 경영 전문컨설팅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구성원 자원봉사단

지역사회·환경

ICT 융합형 벤처창업 프로젝트 BRAVO! Restart 지원



BRAVO! Restart

SK텔레콤은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BRAVO! Restart'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창업자금 지원, 맞춤 컨설팅,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용 업무공간 제공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본 프로젝트는 창업생태계 발전은 물론 창조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 CSV(Creating Shared Value)의 대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2013년 7월에 선발한 1기 10개 팀에 이어서, 2014년 4월에 선발한 2기 13개 팀이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청·장년 창업가들이 창업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BRAVO Day'를 격월로 운영함으로써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ICT 융합형 벤처창업 프로젝트 BRAVO! Restart |



창업자 대상 시제품 제작활동 무상 지원



SK텔레콤 팹랩서울

SK텔레콤은 예비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당사가 보유한 3D 프린터 등의 첨단 시제품 제작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시제품 제작소 운영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창업 활성화 및 ICT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소인 'SK팹랩서울(SK Fab Lab Seoul)'을 열어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에 집중된 기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이 따르는 하드웨어 개발 분야까지 창업 지원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외에도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R&D 인프라 T open lab 운영 및 사업화 지원

자체 개발 시험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협력사와 개인 개발자에게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R&D 인프라인 T 오픈 랩(T open lab)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T 오픈 랩을 통해 테스트된 ICT 관련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SK텔레콤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구현 등 사업화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ICT를 통한 스마트경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SK텔레콤은 ICT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2년 서울 중곡제일시장에 이어 2013년 5월에는 인천 신기시장으로 확대했다. 체계적 고객관리를 위한 DB 확보, ICT를 활용한 DB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차별화된 전용 멤버십 제도 도입, 스마트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ICT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경영을 통해 전통시장의 또 다른 성공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지원



SK텔레콤 스마트 로컬푸드시스템

SK텔레콤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스마트한 지역 농산물 유통 시스템인 '스마트 로컬푸드 사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전북 완주군은 SK텔레콤의 스마트 로컬푸드시스템을 바탕으로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고,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로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K텔레콤은 다른 지자체로 스마트 로컬푸드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 거주지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회복지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



SK텔레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앱

각종 도서·뉴스·잡지·생활정보·재활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무료 음성 도서관 서비스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2010년부터 SK텔레콤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개발·운영 중에 있다. 또한 SK텔레콤 구성원들이 시각장애인 음성도서 녹음 자원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SK텔레콤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SK텔레콤 인도네시아 IT교육 지원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개최

1999년 이래 제16회째 이어 오고 있는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는 매년 시각·지체·청각·정신 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IT 활용 실력을 겨루는 장이다. 2014년 현재 350여 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본 대회를 통해 장애청소년의 자활의지 확립은 물론 IT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추진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휴대폰 활용교육과 함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혜택 등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준 높은 디지털 생활 향유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인도네시아 정보취약계층 아동·청소년 IT교육 지원 사업

2014년 2월 SK텔레콤은 인도네시아 정보취약계층 아동·청소년 IT교육 지원을 위해 동 자카르타에 위치한 2개 국립고등학교 등에 스마트클래스(스마트보드와 태블릿PC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를 구축했다. 향후에도 SK텔레콤은 글로벌 지역에서 IT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Rural ATC사업

(Alternative Telecommunication Components, 오지 대안 통신)

SK텔레콤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말레이시아 오지에 위성 통신망을 이용, 야간 시간대에 대용량 데이터를 서버에 미리 다운로드 받는 방식의 기술 혁신을 통해 교육·헬스케어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소외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ICT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동행'

SK텔레콤은 앞선 ICT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며,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을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하고, 동반성장 및 창업활성화 등 ICT생태계 육성을 통해 사회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상생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또한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BRAVO! Restart'를 고도화하고, Biz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행복창업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도 앞장서며, 개방화 시대에 맞춰 농수산업 등 1차 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 양식장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것이다.

창조경제 성과 창출 위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SK텔레콤은 대전시와 함께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SK의 산업 선도 역량과 대전의 유망기술을 결합하여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벤처 발굴 및 인큐베이션을 통한 벤처 성공 모델 창출, ② 활발하게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문화 창출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③ SK 사업 역량과 대전의 기술역량을 결합한 대전 미래산업 발전 및 성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술 기반의 융합 성장을 이루어 대전의 실리콘밸리화를 이끌어 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ICT 융복합 기반의 낙후산업 활성화

ICT솔루션 접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ICT솔루션을 활용하여 낙후산업 또는 지역경제(농업 등)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사회적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동반성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행복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지원 포털, 멘토링 등 ICT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SK텔레콤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유입되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ICT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ICT 구현

인터넷 중독, 보이스피싱 피해 등 ICT 부작용 관련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바른ICT연구소'를 설립하여 ICT 순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ICT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바른ICT캠페인·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바른' ICTnomic을 구현할 계획이다.

SK 네트워크

전 세계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다

SK네트웍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SK네트웍스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방식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각지에서 드림 패키지 프로젝트(Dream Package Project)를 비롯, 프로보노를 통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SK네트웍스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장애, 아동, 사회복지, 동반성장 분야 의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이해관계자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0

· 중앙아시아 의류(학생복 · 캐주얼) 기증

2004

· 지역사회 봉사단 출범

2005

· 장애인 차량 무상 정비
· 사랑의 쌀 · 연탄 나눔

2006

· 주유소 내 장애인 운영 카페 오픈
· 중국투자유한공사 양로복지원 봉사
· **적십자 감사패 수여**

2007

· 태안반도 기름제거 활동

2008

· 1사 1촌 농촌사랑 자매결연(가평군 업소리)

2009

· 도서 · 산간지역 고등학교 교복 기증
· Speedmate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2005~)

2010

· 사랑의 찐빵 나눔(2005~)
· 어린이 경제교육 실시

2011

· 라파엘 자원봉사 동호회 운영

2012

· 시각장애 아동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2013

· 글로벌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학용품 지원
드림 패키지 프로젝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201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체자료 제작 보급
· 드림 패키지 프로젝트 확대 시행

자원봉사

Speedmate 재능기부활동 장려

SK네트웍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프로보노 활동 등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그 중 Speedmate의 자동차경정비 기술력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무상 점검하는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SK네트웍스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기능 대회'를 후원하며 보다 많은 구성원의 재능기부를 이끌어내고 있다.



Speedmate 재능기부활동 장려



위커힐 호텔 소스 개발 프로젝트



시각장애 아동과의 행복한 동행

위커힐 호텔 소스 개발 프로젝트 진행

SK네트웍스 위커힐은 호텔 일류 조리장이 지닌 전문적 노하우를 식음료사업 분야 사회적 기업에 전수하는 '위커힐 소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고의 요리기술을 가진 웨라톤 그랜드 위커힐 호텔의 프로보노들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을 총 망라한 다양한 소스를 사회적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 메뉴 개발, 품질 관리, 위생환경 개선, 조리 시연 및 기술 전수 등으로 이어져온 본 활동은 관계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 아동과의 행복한 동행 활동

SK네트웍스는 시각장애로 인해 외부 활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구성원과 시각장애 아동이 어울려 야외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의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SK 행복나눔계절의 다양한 봉사활동

매년 10월 SK네트웍스 구성원들은 SK그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SK 행복나눔계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장 담그기, 바자회, 해비타트, 결식아동돕기 소액모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변의 소외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

SK네트웍스는 지역복지관과 연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무의탁 어르신께 따뜻한 한끼가 될 수 있는 도시락의 제작 지원금 지원은 물론 구성원들이 직접 배달에 참여하는 참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 환경

지역사회 벽화그리기 및 환경정화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SK네트웍스는 그늘지거나 우울한 담벼락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SK 행복한 숲' 만들기와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의 환경정화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

점자도서 제작 지원



점자도서 제작 지원

SK네트웍스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양질의 도서를 점자도서로 변환하는 제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작된 점자도서를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아일시보호소 아기 돌보미 활동



영아일시보호소 아기돌보미

SK네트웍스는 입양될 가정을 찾을 때까지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된 아기들을 보살펴주는 '영아일시보호소 아기 돌보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아기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Dream Package Project



드림 패키지 프로젝트(Dream Package Project)는 열악한 학습환경에 처한 전 세계 불우한 아동들에게 학습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SK네트웍스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국내외 모든 구성원과 그룹 관계사, 시민 자원봉사자, 사회적 기업 등이 함께 동참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기업의 진정성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Global Post 활동



드림 패키지 프로젝트(Dream Package Project)

SK네트웍스가 활발히 행하고 있는 글로벌 포스트(Global Post)는 각국 지역사회 양로원, 장애인학교, 어린이 공부방 등에 정기적 봉사활동과 기부금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더불어 SK네트웍스는 글로벌 포스트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에도 힘쓰고 있다.

SK 케미칼

깨끗한 세상과 건강한 삶의 공동 가치를 구현하다

SK케미칼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션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특히 노년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실버영화관은 사회공헌활동의 우수 사례로 학회에 소개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희망메이커 역시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SK케미칼은 친환경, 사회복지, 행복확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4

· SK케미칼 자원봉사단 조직

2005

· 친환경경유기능산물 유통사업 '자연이랑' 론칭 및
구성원 구매 지원

2009

· 서울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1호 실버영화관 지원

2010

· 사회적 기업 지원 서울시 표창 수상

2011

· 피아니스트 손열음 재능지원 'G.rim 아티스트 선정'
· 한국컴패션 연계 해외 저소득 국가 아동 지원(300명)

2012

· 사회공헌 중장기 전략 수립
· 전국 14개 지역복지관과 연계한 희망메이커 프로그램 론칭
· 희망메이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희망릴레이' 진행
· 친환경 하천정화 자원봉사 A.cure 론칭
· SK행복우물 프로젝트 진행(우물 3개 개발)
· 1차년도 행복한 초록교실 진행(성남지역 240명 교육)

2013

· 실버영화관 포토 세션 진행
· 실버영화관 효사랑 자원봉사 활동
· IAGG(세계노년 · 노인의학회) 사회공헌 포럼
우수사례 발표
· 대학생 블로거 실버영화관 자원봉사활동
· 1차년도 희망메이커 긴급의료비 지원(4명)
· SK행복우물 프로젝트 확대 진행
(2개 개발 · 8개 수리)
· 사랑의 헌혈 나눔 자원봉사
· 2차년도 행복한 초록교실 진행
(성남 · 용인지역 1,200명 교육)

2014

· 3차년도 행복한 초록교실 확대(성남 · 용인 · 울산)
· SK행복우물 프로젝트 그린 포인트 연계 진행
(2개 개발 · 10개 수리)
·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진행(2회)
· 희망메이커 긴급의료비 지원(3명)

사회적 기업

노인전용 극장 실버영화관 지원



실버영화관

SK케미칼은 2009년부터 국내 최초 노인전용 극장이자, 서울시 인증 사회적 기업인 '실버영화관'의 운영비 지원과 함께 구성원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도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2013년 2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총 누적 관람객 수 75만 명을 기록했으며, 2014년의 총 누적 관람객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케미칼은 실버영화관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2010년 서울시 표창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IAGG(세계노년학 · 노인의학 학술대회) 사회적 기업 포럼에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교육 · 장학

행복한 초록교실 프로그램 활동



행복한 초록교실

구성원이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행복한 초록교실' 프로그램은 SK케미칼의 친환경 교육 사회공헌활동이다. 주입식 강의가 아닌 다양한 동영상과 교구를 활용한 흥미로운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2013년에는 SK케미칼 구성원 강사 50명이 성남지역 초등학교 10곳(40학급)을 방문하여 총 1,200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강의를 진행했으며, 2014년에는 지방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생태습지 보호 자원봉사활동

SK케미칼은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장별로 자원봉사 조직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보조 및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진행, 복지관 이용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팀별 워크숍에서도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태습지(하천) 보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사가 위치한 성남시의 운중천 생태습지, 청주의 미평천, 울산공장의 처용공원 · 간절곶 · 솔마루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화활동을 비롯하여 SK케미칼 주요 사업장 인근의 하천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봉사활동을 A.cure로 명명하고 전 사업장에서 동일한 활동을 함으로써 통일감과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하천 보호활동은 사내 그린 포인트 제도와 연계돼 봉사시간별로 포인트가 부여되며 KPI로 평가되고 있다.

*A.cure : '아쿠아'(aqua)와 치료를 뜻하는 '큐어'(cure)의 합성어로 수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함

구성원 자녀 자원봉사활동

SK케미칼은 구성원 자녀 가족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름 ·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구성원 자녀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의 자녀들은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독거 어르신 및 지역 아동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은 물론 SK케미칼 CSR 활동의 의미까지 공유하게 됐다.

사랑의 헌혈 나눔 봉사활동

SK케미칼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70여 명의 구성원들이 헌혈에 참여함과 동시에 별도 헌혈증 기부를 했으며, 총 100여 장의 헌혈증과 의료비가 분당차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로 수술을 앞둔 환아에게 기증됐다.

장애인시설 자원봉사활동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시각장애인시설인 '광명원'과 장애인작업장인 '여천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시설인 '광명원'에서는 평소 외부 출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매년 4회 야외 나들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매월 1회 생산품인 면장갑 · 코팅장갑 작업 보조와 직접 구매를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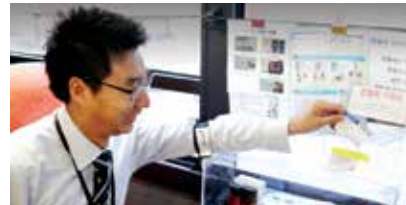
지역사회 · 환경

1사1촌 자매마을 지원

SK케미칼 울산공장은 2008년부터 지역의 평동 · 거남마을과 1사1촌 자매마을을 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우 · 병아리 · 작물 건조기 등 농가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산물 구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마을 축제와 부녀회 및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자매마을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말농장 및 수확절 정기 자원봉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 유기농산물 구매 및 유통망 선진화 사업 지원

친환경 농가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선도하기 위해 SK케미칼은 2005년부터 농촌 유기농산물 구매 및 유통망 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에게 구매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안심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농상생 협력모델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혈 나눔 봉사활동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1사1촌 자매마을 지원



오산환경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오산환경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개최

SK케미칼 오산공장은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미션에 맞게 2008년부터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하여 '오산환경사랑 그림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약 600여 명의 어린이와 시민이 참여하여 각 해당 년도 주제에 맞는 그림과 글짓기를 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즐기고 있다.

사회복지

희망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희망메이커 _ 식목행사



희망메이커 _ 송년행사



희망메이커 _ 대학탐방

희망메이커는 국내외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의 지속적인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팀별(구성원)로 결연 후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SK케미칼 1,6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업장 인근 지역복지관 14곳을 통해 152명의 아동·청소년을 후원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국제어린이양육단체인 한국컴패션을 통해 저소득국가 아동 300여 명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편지 나누기 등을 통해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희망메이커는 단순히 경제적 후원활동에서 벗어나 1팀별 1인의 아동, 청소년을 연계하여 구성원이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는 '희망릴레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대상자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구성원의 전체 후원 금액과 동일하게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전사 희망메이커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지원 활동을 병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한편 지역 환경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식목일마다 희망메이커 아동·청소년과 구성원이 함께 식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름방학 시기에는 울산공장 투어, 워터파크 방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메이커 여름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SK SUNNY 대학생 봉사단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대학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메이커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학교 투어와 1대1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진학과 학습에 대한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미래 진로 및 학습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본사와 울산공장 등에서 희망메이커 아동·청소년과 구성원이 함께 마련하는 송년행사를 진행한다. 함께 공연을 준비·발표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체험 외에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기업 미션에 맞춰 희망메이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희망메이커 대상자와 그 가족 중에서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할 때 SK케미칼 사회공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소 구성원으로부터 모금된 후원금만큼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SK행복우물 개발 프로젝트 진행



SK행복우물 개발 프로젝트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깨끗한 생활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SK케미칼은 개발 전문 NGO인 팀앤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우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케냐의 타나리버, 와추오다, 셀리지역에 5정의 SK행복우물을 제공했으며, 8곳의 기존 우물 펌프를 수리하여 총 14,000여 명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식수를 공급했다. 2014년에는 그린 포인트로 환경 매칭펀드를 조성해 2정의 우물과 10곳의 펌프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

SKC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에 더 큰 행복을 나누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SKC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며 기존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04년 7월 SKC자원봉사단을 발족한 이래 2014년 현재 2,000여 명의 전 구성원이 사회공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SKC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가까운 지역 사회의 더 큰 행복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4

- SKC자원봉사단 발족

2005

-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후원 및 자원봉사
- 울산 사랑의 도시락 배달

2006

- 청소년 후원 매칭펀드

2007

- 우만종합복지관 불우청소년 돕기

2008

- 국립현충원 자매결연

2009

- SK청솔노인복지관 후원 및 자원봉사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및 자원봉사
- 수원화성 문화재 지킴이 활동

2010

- 수원시 장안구청 MOU 체결
- 청소취약지구 환경정화 활동
- 서호천살리기 환경정화 활동
- 수원 화성문화축제 기업 퍼레이드 참가(2012년 종료)

2011

- 끝없는 글방 도서기증
- SK청솔노인복지관 수원공장 감사패
-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공장 감사패

2013

- 수원만나교회 사랑의 빵 만들기 자원봉사
- 진천 김장나누기 행사
- 수원 화성문화축제 후원
- 수원화성 달빛축제 및 국제연극제 후원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공장 감사패
- 제14회 사회복지의날 행사 수원시장 공장장 감사패
- 생태교통 수원 2013 수원시장 공장장 감사패

2014

- 수원SK아트rium 개관 기념 콘서트 지원
- 인도네시아 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IT교육 지원

교육·장학

SKC매칭펀드를 통한 아동·청소년 후원

2006년부터 SKC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기적 후원을 하는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과 회사가 매칭하여 조성된 펀드는 초록우산 등의 복지재단을 통해 1사원 1청소년 자매결연 형태로 맺어지며, 지원금은 주로 교육비로 쓰인다.

자원봉사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매년 겨울, 본사를 비롯한 수원, 진천, 울산의 SKC 사업장에서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SKC 구성원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SK 행복나눔계절을 맞이해 진행하는 행사다. 특히 본사의 경우에는 SK텔레시스, 경기도 사회복지모금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 취약계층 주민에게 연탄, 쌀 등의 겨울나기 생필품을 나누어주는 행복배달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든든한 한 끼가 될 사랑의 도시락 배달

2005년부터 SKC는 매주 목요일마다 울산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독거 어르신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한다. 10년간의 방문 배달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나누며 또 하나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지역자치센터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담당한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랑의 반찬만들기



사랑의 빵 만들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반찬만들기

매월 SKC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반찬만들기'를 후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반찬을 만들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설을 맞아 수원공장 대외협력위원회와 수원시 정자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정자1동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을 찾아 위문품과 함께 전달했다.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

매주 화요일 SKC 구성원은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만나 행복한 홈스쿨'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은 복지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판매하거나 지역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전달한다. 사랑의 빵 만들기 판매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장애인의 날 걷기대회



수원시립노인요양원 어르신 나들이 봉사활동



수원 선화교 벽화그리기



수원 서호천 가꾸기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자원봉사

장애인의 날 걷기대회 행사 참여

매년 SKC가 후원하는 '장애인의 날 걷기대회' 행사에 구성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장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 행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하나로 어울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수원시립노인요양원 어르신 나들이 봉사활동

매년 봄과 가을 SKC 구성원은 수원시립노인요양원 어르신을 모시고 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어르신과 일대일로 조를 이루어 관광명소를 관람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며 사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SKC는 정기적인 나들이 봉사뿐만 아니라 인근 산책봉사, 요양원의 시설보수 등도 함께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 환경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위한 선화교 벽화그리기

2013년 SKC는 수원공장 인근에 위치한 선화교에 벽화그리기 활동을 펼쳤다. 벽화 자원봉사단인 '컨츄리 스마일'과 함께 구성원,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으로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만든 것은 물론 산책로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됐다. SKC는 이번 선화교를 시작으로 인근의 다리에도 벽화를 그려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호천 가꾸기 진행

2010년부터 SKC는 수원시 정자동의 역점사업인 '행복나눔 서호천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SKC는 정자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등과 함께 수원공장 인근의 서호천에 묘목을 식재하고 잡초제거와 전지작업, 하천 주변 생활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실시하여 맑은 하천 되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참여

SKC는 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리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에 참여하여 행궁광장 주변의 쓰레기 줍기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수원 미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국립현충원 환경조성



화풍이월 경로잔치



SK청솔노인복지관 송년잔치



사랑의 일일찻집 행사

수원 미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

매년 SK텔레시스와 함께 SKC는 식목일 기념 식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수원시와 함께 하는 '수원 미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등 지역사회 녹색환경 조성에 힘썼다.

국립현충원 환경조성 및 조화 헌화

2007년부터 SKC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SKC 창립 32주년을 맞은 2008년에는 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묘역을 지정받았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묘역을 찾아 묘비 닦기, 태극기 꽃기, 잡초제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충일과 국군의 날에는 조화를 헌화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린다.

사회복지

화풍이월 경로잔치 지원

SKC는 충북 진천 이월면에서 매년 개최하는 '화풍이월 경로잔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월면 노인회를 비롯해 이장협의회, 적십자회와 이월 적십자부녀회 주간으로 매년 5월에 열리는 경로잔치는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는 이월면의 주요 행사이다. SKC는 기부금 전달과 행사 진행을 도우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있다.

SK청솔노인복지관 송년잔치 후원

매년 연말 SKC는 'SK청솔노인복지관 송년잔치'를 후원하고 있다. 또 지역 내 노인회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한데 모여 기념식과 발표회, 축하공연 등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행사의 점심시간에 맞춰 SKC 구성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뜻도 함께 기린다.

사랑의 일일찻집 행사

SKC는 수원 중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어머니폴리스연합단과 함께 아동 안전보호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사랑의 일일찻집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걷어들인 수익금은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된다.

스포츠 · 문화

수원 화성행궁 문화재 지킴이 활동

SKC는 회사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2009년부터 수원 화성행궁의 창호지 교체 및 주변 환경정화 등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축제 후원

SKC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수원 화성문화축제 기업퍼레이드 참가(2010년~2012년)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화성문화축제, 달빛축제, 국제연극제 등을 후원했으며, 2014년 수원SK아트리움 개관 기념 콘서트를 지원했다.



수원 화성행궁 문화재 지킴이

SK C&C

IT를 통한 사회가치 창출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SK C&C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복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그룹의 철학인 행복추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이란 사회공헌 비전 아래 IT서비스산업이라는 기업의 특성과 구성원의 재능을 반영할 수 있는 IT분야 중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구성원의 진정성 있는 자세 함양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가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힘쓸 것이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1998

- 초록우산 한사랑마을 장애인지원 기부

2004

- 전사적 차원의 자원봉사단 조직 발족
- 성남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구축 및 운영
- 불우아동 우수후원기업 서울시 시장상 외 10건

2005

- 일산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구축 및 운영
- 성남시 저소득가정 청소년 '행복장학금' 장학사업
- 전국 자원봉사대축제 동상 외 5건

2006

- 임직원 가족 봉사캠프 및 임원 부부동반 봉사시행
- 경기도자원봉사대축제 경기도지사상 장려상 외 8건

2007

- 서울, 성남지역 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IT특강'
- 창립기념 '장애인 행복기금! 한마음 마라톤!'

2008

- 임직원 재능기부 전문봉사단 발족
- 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체협 정기 프로그램 운영

2009

- 벽화그리기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 1사1촌 농촌사랑 일손돕기

2010

- 성남시 탄천 나비서식처 조성 및 보호활동
- 수해지역 긴급구호 키트 제작 및 봉사
- 제6회 한국사회공헌대상 지속가능투자부문 대상

2011

- 사회적 기업 (재)행복한웹엔미디어 설립 및 운영
- 성남시민 참여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 경기도자원봉사대축제 경기도지사상 봉사상 외 7건

2012

- 비영리기관 홈페이지 제작 · 후원
- 성남시민 참여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성남시장 표창장(환경부문) 외 11건

2013

- 생애주기별 IT맞춤 교육 실시
- 지방거주 청소년을 위한 IT특강 및 진로교육
- 자회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심기
-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국무총리상' 외 2건

2014

- 장애인 편의시설 앱 개발 · 후원 및 교육
- 노인지원 이동세탁차량 후원 및 봉사
- 소그룹별 팀워크를 통한 '행복나눔봉사'(캠페인) 추진
- 성남시장 우수사회공헌기업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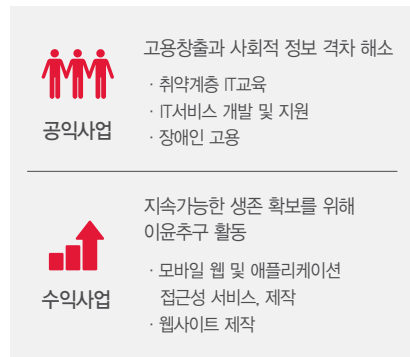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재)행복한웹앤미디어 설립 및 운영

SK C&C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IT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1년 말 사회적 기업 (재)행복한웹앤미디어를 설립하여 정보활용에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13년 설립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고용노동부 비영리재단법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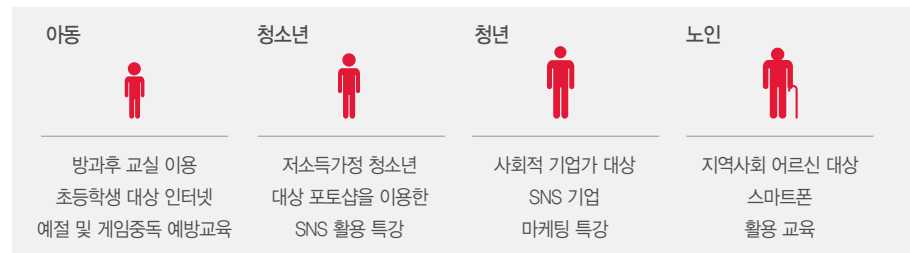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IT 맞춤 교육

교육 · 장학

생애주기별 IT맞춤 교육

SK C&C는 국내 IT서비스산업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IT환경 구축과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경기도 성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IT교육 활동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취약계층의 IT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IT맞춤 교육이라는 테마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분류해 각 연령에 필요한 정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교육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IT 관련 인프라를 구축,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청소년 IT특강

IT정보교육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K C&C 본사 및 지방근무 구성원들이 특강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년에는 총 5개 지역(울산, 대전, 사천, 성남, 서울)의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2,040명에게 IT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그에 따른 진로교육이 주요 내용인 특강을 진행해 학생과 학교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장학금 모금 활동

성남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자는 취지의 '행복장학금' 모금 활동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중 기부 형식으로 모금된 성금은 다음 년도에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인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 발달을 함양하는 꿈강연회도 함께 전개되고 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청소년 IT특강



행복장학금

자원봉사

임직원 가족봉사단 운영

SK C&C는 전 구성원이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구성원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기반으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캠프, 봉사의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임직원 가족봉사단'을 매년 발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30가족(99명)의 가족봉사단이 장애아동의 문화향유 지원 행사에 참여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이런 가치 있는 활동 결과로 SK C&C는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임직원 가족봉사단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의 역량 강화

SK C&C는 구성원 각각이 보유한 역량 및 관심 분야의 재능을 증대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능기부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재능기부 분야에 대한 구성원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연초에 분야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기존 대비 5개의 재능기부 분야가 확대됐다. 2014년에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능기부 분야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전문봉사단 활동 프로세스 |



| 전문 봉사단 현황 |



재능기부 전문봉사단



장애아동 행복한 동행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 활동

SK C&C 구성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지체 장애아동이 사회에 무사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장애아동과 함께 공원, 체육관 등의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이용해보고, 장터 등의 생활터전을 체험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재가장애인 및 독거노인 일상생활 보조 활동

매월 1회 SK C&C 구성원들은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운 재가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식자재 시장 뵈주기 및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보조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홀몸노인을 위한 이동세탁차량 후원 및 봉사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SK C&C는 점점 늘어나는 홀몸노인을 위한 인프라 제공형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SK C&C는 성남시와 함께 어르신들의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인 이동세탁차량을 후원하고 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구성원들이 직접 홀몸노인의 세탁물을 수거하는 자원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SK C&C 행복드림 이동세탁차량

지역사회·환경

행복한 마을 벽화그리기 활동

아름다운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SK C&C는 2011~2013년 동안 구성원 1,800여 명이 릴레이식으로 참여하여 성남시 5개 지역의 환경을 개선했다. 저소득지역 외벽 채색활동 및 길 조성활동, 공용시설물 개보수 등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이중 외벽 채색활동인 '행복한 마을 벽화그리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전개됐다.



행복한 마을 벽화그리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



2014년 행복나무심기행사



장애인 편의시설 앱



비영리기관 홈페이지 기증

행복 숲 보호활동

4월의 식목일을 맞이하여 SK C&C와 자회사 구성원은 한강생태보호 구역에 갯버들 및 조팝나무를 심는 '행복 숲 보호활동' 행사를 진행했다. 단순히 나무만을 심고 끝내는 일회성의 행사를 지양하는 SK C&C는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강생태공원의 유해식물제거 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App 제공

SK C&C는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위한 IT 인프라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건축물, 교통수단, 편의시설, 공공정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여 제공했다.

비영리기관 홈페이지 제작 및 PC 기증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악한 복지기관 및 영세 사회적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간 약 6,0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여 총 7곳의 비영리 복지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증했다. 또한 11곳의 기관에 240대의 중고 컴퓨터를 기증하고, 컴퓨터 정비 등의 활동도 병행했다.

결식아동돕기 기부 캠페인

취약계층 결식아동들이 추운 겨울방학 동안에도 끼니를 잘 챙겨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로 거둬들인 성금은 매년 방학 동안 결식의 어려움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는데 요긴히 쓰이고 있다.

한가위 맞이 송편나눔

지속적으로 봉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 내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주민, 아동들을 위해 마련된 '한가위 맞이 송편나눔' 행사는 임직원들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서로의 정을 다시 확인하며 행복을 키워나가는 자리이다. 참여자들은 보름달모양과 별모양 등의 송편을 빚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민속놀이를 함께 즐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키울 수 있도록 지역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행사에 함께할 것이다.



한가위 맞이 송편나눔

SK 건설

진정성과 지속성이 담긴 사회공헌으로 나눔의 롤모델을 구축하다

SK건설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사회복지, 행복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등 기업의 특성을 살린 대표 사회공헌활동을 다른 기업 및 복지기관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SK건설은 이러한 사회공헌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4

- 임직원 봉사단 활동
(복지기관 방문봉사, 지역사회 지원)

2005

- SK건설 가족봉사활동 진행

2006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 SK건설 CS본부 World Vision 표창
- SK건설 중부고객센터 수원인재학원 감사패
- SK건설 덕수궁 관리소장 감사패

2007

- 희망메이커 활동(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 지원)
- 태국대사관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송고란 축제 후원
- SK건설 태국대사관 감사패
- SK건설 중부본부 강원지사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2008

- SK건설 서울고객센터 성북구청장 표창
- SK건설 중부고객센터 수원시장 표창
- SK건설 중부고객센터 51보병사단 사단장 표창
- SK건설 영남고객센터 부산 연제구청장 표창

2009

- SK건설 중부고객센터 경기도지사 표창

2010

-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환경부장관상)

2011

-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체육협회와 공동으로 'SK배 고교 챔피언 축구대회' 개최
- SK건설 행복나눔봉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SK건설 영남고객센터 부산 금정구청장 표창
- SK건설 중부고객센터 대전 유성구청장 표창

2012

- SK건설 성북구청장 표창
- SK건설 아주경제 건설대상(사회공헌부문 대상)
- SK건설 제4회 아시아투데이그린건설대상(사회공헌부문 대상)

2013

- SK건설 제8회 아시아건설종합대상(사회공헌부문 대상)
- SK건설 영남고객센터 부산 금정구청장 표창
- SK건설 동작구청장 감사장

2014

- SK건설 수도권고객센터 수원시 장안구청장 표창



임직원 자원봉사단



가족봉사단



행복한 초록교실

자원봉사

임직원 자원봉사단 활동

2004년부터 전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SK건설의 자원봉사단은 매주 1회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단체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희망메이커 후원대상자가 이용하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시설에 집중 방문하여 무료 급식, 청소, 빨래 등의 노력봉사와 더불어 후원대상자와 함께하는 학습지도, 정서지원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가족봉사단 활동

2005년부터 SK건설 자원봉사단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매년 4회씩 실시하고 있다. 매회 100명 이상 참가하는 가족봉사단은 서울숲 등 도시 숲 가꾸기 활동과 국내외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희망을 선물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SK건설 마라톤동호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마라톤동호회 회원은 물론 구성원들의 참여와 기부로 마련된 행복기금은 연말에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으로 전달된다.

지역사회·환경

어린이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행복한 초록교실 운영

2009년부터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행복한 초록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행복한 초록교실은 구성원이 환경 강사로 출강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심어주는 전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2014년 6월까지 408개 학교, 1,305 학급, 39,090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더불어 2013년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프로그램(2013-74호)으로 인증받았다.

1산 1천 1로 가꾸기 자연환경보호 실천운동

SK건설은 '1산 1천 1로 가꾸기'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본사 구성원은 연 2회 캠페인 활동과 연계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방 현장에서는 인근의 산, 하천, 가로 중 1개 장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환경관리 및 수목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구매지원을 통한 농촌 살리기

2005년부터 SK건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지원을 통한 '밥상공동체'를 실현하여 우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성원에게 구매지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고, 토마토 수확 등 가족이 참여하는 산지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연의 참된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희망메이커

2011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사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된 '희망메이커'는 현재 전국 680명의 대상자를 고등학교 졸업까지 후원하고 있다. 매월 구성원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매칭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임직원(팀)이 후원 대상자와 결연되어 월 10만 원의 생계비, 교육비와 더불어 문화활동과 멘토링 등의 정서적 지원활동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구성원의 응원 댓글을 통해 국내외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돕는 희망댓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메이커



주거환경 개선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은 2006년부터 전국 4개 고객센터 지역(서울, 수도권, 중부, 영남)에서 매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월 저소득가정을 방문하여 도배, 장판교체, 바닥재 재시공, 지붕보수, 도장공사 등을 실시했으며, 2011년부터 매년 관공서,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과 함께 후원지역의 열악한 주거와 공부방을 개선하고, 벽화를 그려 넣는 '행복마을 가꾸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매년 지원 가정을 재방문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쌀을 비롯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2014년 6월까지 총 36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본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지자체로부터 다수의 감사패를 받았다.

스포츠 · 문화

문화교류 지원

2007년부터 태국대사관과 함께 국내 거주 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송고란 축제를 후원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명절 문화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에콰도르 SK배 고교 챔피언 축구대회 개최

SK건설은 해외 진출국 지역사회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등의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체육협회와 공동주최로 'SK배 고교 챔피언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에콰도르 SK배 고교 챔피언 축구대회



에콰도르 의료보건활동



해외 초등학교 학용품 증정

에콰도르 및 인도 의료보건활동 지원

해외 진출국 국민의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SK건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 및 의약품 지원 등의 의료보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에콰도르에 전문 의료 인력 10명을 투입하여 구충제, 항생제 및 임산부를 위한 약품 등 총 34개 종류 의약품 80박스를 지원했다. 또한 인도에서는 망갈로 지역 내 에이즈 보균자 및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활동

SK건설은 해외 산업 현장 인근 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보호활동 후원, 인재양성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 현장 지역학교에 학용품 및 교육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쿠웨이트 리더십 아카데미(Leadership Academy)를 지원하며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아수니 국립공원 보호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SK 하이닉스

행복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가다

남다른 진정성과 SK하이닉스만의 차별화된 고유 문화로 이루어진 행복나눔. SK하이닉스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 행복나눔은 사업장이 위치한 이천과 청주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구성원의 자발적인 정기기부 참여로 조성되는 ‘행복나눔기금’과 전사 각 조직별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동·청소년들이 재능을 키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10

- 설날맞이 좋은 기억 나누미(美) 행사
- 천안함 희생장병 모금 캠페인
- 창립기념 한마음 봉사활동 (무료급식·문화재 보호·과학교실)(2010년~)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장터 시행
- 노사화합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2011년)
- 문화재청 1문화재 1자킴이 단체상

2011

- 리더십 오블리제 시행(그룹장 이상)
- 1인 1행복나눔기부 리더 참여 및 전 임직원 독려
- 행복나눔기금 사업 MOU 체결 (경기·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생활나눔 수시기부 캠페인
- 한겨레 경제연구소 CSR 우수기업 대상

2012

- 로보 올림픽아드 파트너 결연 및 경진대회 개최 (2012년~)
- 행복 Plus 영양 도시락센터 개소
-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참여(2012년~)
- 이천지역 사랑의 떡 나눔행사
- 임직원 대상 사회공헌 행복나눔 사이트 오픈
- SK 김장나눔·나눔 바자회 참여(2012년~지속)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안전행정부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대통령 표창

2013

- 해비타트 봉사활동 참여
- 이천 온천공원 꽃길 조성 및 긴급수해복구
- 전통시장 활성화 봉사활동
- 행복나눔 꿈의 콘서트 개최
- 한국 SR전략연구소 CSR필름페스티벌 교육봉사대상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SCOST Humanitarian Night 올해의 과학기술나눔상 수상

2014

- 영동 폭설 긴급복구 지원
-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MOU 체결(이천시청)
- 중국 우시 글로벌 봉사활동
- 이천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한마당 개최

행복나눔기금

행복나눔기금 조성

SK하이닉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대표 사회공헌 ‘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의 순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조성되며, 회사는 해당금액의 100%를 매칭그랜트로 지원한다.

조성된 기금은 기초생활지원과 과학예술인재 육성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이 성장하여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된다.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기금이라는 면에서 국내 기업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며, ‘행복나눔기금’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2014년도 기준 무려 86%에 달한다.

행복나눔기금 참여내역

	2011	2012	2013	(9월 기준) 2014
구성원 참여율	69%	78%	80%	86%
모금액 (억 원)	9	20	24	24 + α
수혜아동 수 (명)	1,000	3,600	3,800	3,800 + α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교육 · 장학

Do DREAM 장학금



Do DREAM 장학금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로보 올림피아드



IT 과학탐험대

이공계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동내역

- 고등학교**
 - 충북 반도체(마이스터고) 산학협력
 - 전국 104개 고교 자매 결연
- 대학교 (전문대 포함)**
 - 12개 주요 대학 · 4개 전문대학 산학협력
 - SK하이닉스 반도체 Track 프로그램 운영
 - Track 장학생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지원금액**
 - 연간 약 60억 원 지원

SK하이닉스는 학업에 대한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Do DREAM 장학금'을 해마다 5억 원씩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 소재 지역인 이천(500여 명), 청주(350여 명)의 저소득가정 아동이 지역사회 우수 인재로 뽑혀 SK하이닉스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및 음악인재 후원

문화적 혜택이 미미한 아동 · 청소년들과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소질을 키우기 어려운 음악인재들을 위한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여 음악교육과 정서적 함양을 도모한다. 더불어 재능이 있는 아동은 오디션을 통해 음악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레슨을 후원한다.

로보 올림피아드

'로보 올림피아드'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로봇 키트와 과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재능을 발견하는 교육활동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로보 올림피아드는 매 연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한다. 또한 우수 입상자에게는 국내외 과학과 관련한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IT 과학탐험대

SK하이닉스는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IT 과학탐험대를 운영한다. IT 과학탐험대는 과학에 재능이 있는 초중등 학생에게 수준 높은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IT 과학탐험대는 국내외 과학 견학 프로그램과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공계 산학협력 프로그램

1992년부터 SK하이닉스는 국내 주요 대학교 및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한 이공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계 학교와 함께 산학협력 및 장학 Track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학교에 인력 · 장비 ·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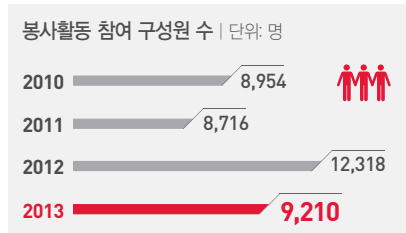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행복나눔 봉사단



가족참여 봉사활동



SK하이닉스는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팀 단위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은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구성원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구성원의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 인정제도, 봉사활동 지원금, 우수봉사자 및 조직에 대한 포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참여 봉사활동

SK하이닉스는 회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그의 가족이 함께 행복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작게는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행복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추억을 쌓으며, 크게는 SK하이닉스 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SK하이닉스 구성원 IT 재능나눔 활동

구성원들은 IT 기업의 특성을 살려 주니어 공학교실, 로보 올림피아드, 반도체 교실 등의 강사로 참여해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과학교육 및 그에 따른 체험의 기회가 적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론 및 체험실습을 제공, 아이들에게 반도체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 환경

긴급 재난 복구지원



긴급 재난 복구지원



산하천 정화활동

SK하이닉스는 수해 및 폭설로 인해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금과 복구인력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 외 각종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구성원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아픔을 나눈다.

농촌 자매결연 활동

SK하이닉스는 행복나눔 봉사단이 맺은 농촌 1사 1촌 자매결연 활동에 따라 도농상생의 활동을 지원한다. 자매결연 농촌의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농번기 일손 지원 등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행복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천 정화활동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의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현재 사업장 소재를 중심으로 각 조직 단위의 봉사단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활동에 따라 산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행복 Plus 영양 도시락



행복 Plus 영양 도시락

‘행복 Plus 영양 도시락’은 이천, 청주지역의 저소득가정에 매주 밀반찬과 도시락을 제공하여 결식 아동의 영양결핍과 불균형을 해소할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는 단순 금액 지원 뿐만 아니라 행복나눔 봉사단과 연계한 정기적인 도시락 배달 활동으로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SK하이닉스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만 18세 이후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단을 통해 후원금(30만 원/년)을 지원한다. 해당 후원금은 지역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의 독립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데 사용되며, 2013년 기준 이천·여주·청주지역 청소년 500명을 후원했다.

희망동지 공부방



희망동지 공부방

‘희망동지 공부방’은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소외 아동들이 좀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프로젝트이다. IT시설 개선을 포함하여 친환경적 시설이 갖춰진 공부방에서 지역의 꿈나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1 결연 가정후원

조직의 특성상 봉사단 활동이 어렵거나, 구성원 수가 적은 팀의 경우에는 아동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연계한 저소득가정을 1:1로 매칭한다. 월 1회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후원가정 아동과 진로상담 및 문화생활 등의 정서적 나눔활동까지 행한다.

노사불이 끝돈기부



노사불이 끝돈기부

SK하이닉스는 창립 이래 ‘회사와 근로자는 하나’라는 노사불이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 급여 끝돈(1,000원 미만)의 자발적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장 지역 기반의 사회복지단체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나눔 사업(도서 기증, 청소년 교복 지원, 장학금 지원, 연탄배달)에 쓰인다.

스포츠·문화

문화재 지킴이 활동

2006년 문화재청을 통해 ‘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협약한 SK하이닉스는 서울, 이천, 청주 사업장에 속한 지역 문화재 보존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월 1회 정기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내역			
	서울	이천	청주
결연문화재	창경궁	설봉산	상당산성
활동내용	문화재 보호 환경정화	환경정화	환경정화
활동기간	월 1회	수시 진행	월 1회

글로벌 사회공헌

중국 생산법인(SKHYCL) 사회공헌활동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법인인 SKHYCL에서는 양로원과 빈곤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각종 기술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 개발을 도모하는 나눔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중국 우시 FAB 사회공헌활동 현황 |

사업명	대상·주제	분류	사업내용
자매결연 프로그램 (1그룹 1복지시설)	노인	양로원	노인대상 정기적 위문 및 건강의로 봉사 여름철 더위 방지 피서 위문 실시
	어린이	고아원	뇌성마비 어린이 대상 정기적 근육치료 봉사 문화박물관 체험 나들이 실시
		특수장애학교	장애 어린이 교육지원 : 무용단, 과학동아리 정기적 방문, 초청공연
자원봉사	교육	이주민빈곤학교	빈곤한 시골 이주민 학교 학생 초청 및 회사 견학
	소방안전 교육		학교방문 소방 대피훈련 및 문화교류활동 지속적 추진
			여름캠프 운영 :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 체험, 수공업, 박물관 관람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자원봉사
	한국어 교육		한국어학과 대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환경	산, 하천 보호	SK하이닉스 도로 및 주변 시민공원 환경정화활동 정기적 추진
기부활동	문화	금연일·금연활동	5월 31일 금연일 맞이, 금연 홍보활동 추진
	물품기증	중고 TV 기증	양로원 대상 중고 TV 기증
주요성과		중고 PC 기증	장애인 복지 자선화 대상 중고 PC 기증
	수상	우시시신구정부	우시시 신구 사회적 책임 선진기업 수상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하이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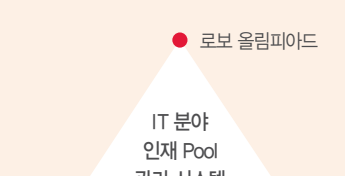
SK하이닉스는 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기업이 되고자 다방면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활동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인재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 IT 산업의 특성을 살린 SK하이닉스만의 과학인재 ‘하이슈타인’ 육성에 앞장설 것이다.

하이슈타인



하이닉스+아인슈타인 조합
SK하이닉스의 과학인재 모델

IT 인재육성 Track



IT 과학탐험대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SK 해운

전 구성원의 행복나눔 실천을 통해 즐거운 경험과 배움을 얻다

2004년 자원봉사단을 발족한 SK해운은 일회성 이벤트나 형식적 활동 위주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와 참된 봉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련 자원봉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지지 확보, 진정성과 성과에 대한 공로 인정, 새롭게 참신한 프로그램 발굴 등의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중이다. 2014년 자원봉사단 창단 10주년을 맞는 SK해운은 ‘함께 만드는 0.5%의 행복 문화!’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행복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4

- 자원봉사단 발족 및 활동 시작
- 그룹 공통 사회공헌활동과 SK해운 자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2004~현재

- 도시락 나눔
- 목욕봉사
- 어린이사랑방
- 신당복지관 바자회 및 김장봉사
- 울타리공동체(농활, 크리스마스 파티 등 지속적 교류)
- 벌룬아트(풍선공예를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 교육 수강,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
- 청소년 해양캠프(수상활동 체험, 수상안전 및 재난대피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행사 지원)

2007~현재

- Happy Sailing(취약계층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수상체험 활동 지원)

2011~현재

- 신입사원 자원봉사 활동(SK해운 소속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인식)

2013

- 제9회 청소년 푸른성장대상 단체부문 대상
- 신당복지관 우수자원봉사단체 수상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기업사회공헌 감사패

교육 · 장학

한국해양소년단 찬조금 및 활동 지원

SK해운 백석현 사장은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청소년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의 총재를 역임하며 찬조금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일환으로 마련된 해양스포츠크체교실 ‘Happy Sailing’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밖에 전국 카누·드래곤보트 대회, 무인도 탐사, 여름해양학교, 해양환경정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풍부한 해양유산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 지원

소년한국일보 지원

SK해운은 2006년부터 읽을거리가 부족한 거제도 마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년한국일보 구독을 지원하며, 시사 상식과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매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

울타리공동체 정기 봉사활동

2004년부터 현재까지 SK해운 구성원은 경기도 파주의 장애인보호시설 울타리공동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바쁜 농사일을 돕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는 등 따뜻한 교류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울타리공동체 정기 봉사활동

도시락 나눔활동

SK해운 구성원은 주 1회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 지역사회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신당복지관에서 정성껏 마련한 도시락을 집으로 직접 배달하며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있다.

어르신 목욕 보조활동

매월 1회 SK해운 구성원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독거노인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 목욕 보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본 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의 개념을 넘어 독거노인의 외로운 마음까지 가족처럼 알뜰히 살피주는 인간적인 나눔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사랑방 활동 지원

SK해운 구성원은 매월 1회 부모의 귀가가 늦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사랑방 활동을 지원한다. 방과 후 교실의 일일 선생님이로 직접 참여하는 SK해운 구성원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지도하며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한다. 또한 가정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안전과 예절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벌룬아트 봉사활동

SK해운 구성원은 서울시 사회복지경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사람, 나무, 강아지 등의 재미있는 모양으로 표현된 풍선을 만들어 증정했다. 매년 벌룬아트 활동으로 많은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웃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



벌룬아트 봉사활동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김장 담그기 행사

바자회 및 김장 담그기 행사 참여

SK해운 구성원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바자회 및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평소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여 거둔 바자회 수익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되며, 구성원이 직접 담근 김장은 저소득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사회복지

Happy Sailing 실시

SK해운은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내 거북선나루터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Happy Sailing'을 진행했다. 취약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활동을 돕는 이 프로그램은 안전교육, 고무보트, 모터보트, 요트,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쉽게 접근하기 힘든 수상체험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삶에 활력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매칭그랜트 활동

SK해운은 2005년부터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성원의 기부로 모인 정성 어린 지원금으로 매월 결손가정 3가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스포츠 · 문화

청소년 해양캠프 개최

매년 여름 SK해운은 강원도 주문진의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초·중등 학생을 위한 청소년 해양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해양캠프는 2007년부터 참가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해 더욱 의미있는 활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본 해양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립적인 가치관과 능동적인 태도를 배양함과 동시에 더 큰 꿈과 미래를 발견할 기회를 얻는다.

글로벌 사회공헌

중국 연변 제1중학교 장학금 지원

SK해운은 연변지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연변 제1중학교 조선족 학생들이 복경대, 청화대, 과학기술대 등 대학에 진학하여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 연변 제1중학교 장학금 수여

SK 증권

경쟁력 있는 자활과 자립의 사회를 희망하다

SK증권의 주요 사회공헌 사업은 청소년 경제교실 운영, 취약계층 자립 추구 활동, 그룹 공동 프로그램 참여, 기부문화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전사 주, 월, 분기별 각 단위조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SK증권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치창출 효과가 큰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원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게는 행복을 전하는 SK증권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행복파트너로 나아갈 것이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4

· SK증권 자원봉사단 결성

2006

· 청소년 경제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시작
· 사회복지법인 '남산원' 초등학교 대상 분기별 경제교실 진행

2007

· 전사 단위조직 중심으로 경제교육 확대 실시

2008

·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실' 실시

2009

· 사단법인 청소년금융협의회와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10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토달 네트워크 참여



청소년 경제교실 _ 이수중학교



금융감독원 주최 '대학생 금융캠프' CEO 강의

교육 · 장학

청소년 경제교실 운영

SK증권은 2006년부터 청소년들의 경제관념 함양과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CEO를 포함한 구성원이 직접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서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K증권의 사회공헌 대표사업이기도 한 '청소년 경제교실'은 청소년들에게 금융과 관련한 자기주도적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경제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2010년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네트워크에 증권사 최초 회원사로 참여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배정 받은 학교에 금융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금융교육 지원은 금융회사인 SK증권만이 할 수 있는 재능기부로, 물품이나 인력지원 수준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SK증권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식을 나눠줌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예화된 사내 강사진의 확충을 비롯해 진로탐색 교육장, 공부방, 복지시설, 야학 등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식 기부'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문화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2006

사회복지법인 남산원 초등학교 대상 분기별 경제교실 진행

2007

전사 단위조직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원생과 도서지역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실시

2008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직접 방문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실' 실시

2009

50여 초·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경제교실 실시 및 사단법인 청소년금융협의회와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10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교육 토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5개 학교에 4회씩 강사 출강

2011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토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5개 학교에 4회씩 강사 출강 및 이화여대 CEO 경제특강 진행

2012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토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4개 학교에 2~3회씩 강사 출강

2013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토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2개 학교에 4회씩 강사 출강 및 대학생 금융캠프(금융감독원 주관)에서 CEO 강의

2014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토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3개 학교에 4회씩 강사 출강 및 이수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도 운영에 따른 진로탐색 교육 진행



해비바트(사랑의 집 짓기)

자원봉사

그룹 공동 프로그램 참여

SK그룹에서 주관하는 공동 행사에 SK증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룹의 경영철학인 행복경영 추구에 일조하고 있다. 2013년 SK증권은 그룹의 발원지인 수원지역에 SK가 단독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해비바트(사랑의 집 짓기) 마을을 건립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무주택 가정을 위한 해비바트 활동으로 SK증권은 CEO를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진정한 땀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2005년부터 SK그룹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 그룹 연말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사랑의 김장나눔, 행복나눔바자회, 결식아동돕기 소액기부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활동



독거노인 폭염대비 후원 전달식

지역별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 지원

SK증권은 본사 및 각 지점별로 주변의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거나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사 및 각 지점의 단위별로 조직된 봉사단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반영하여 노숙자에게는 무료 급식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에게는 복지관 시설물 정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SK증권은 앞으로도 지역별 취약계층과 관련 시설을 세심하게 살피고,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폐쇄지점 가구 재활용을 통한 나눔활동

SK증권은 폐쇄지점이나 지점의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양호한 가구들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무상 기증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증권의 가구를 재활용하여 각종 복지단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2013년 SK증권은 사회적 기업인 (재)행복한녹색재생 측에 책상과 의자를 무상 기증했다.



다일천사병원 후원



행복나눔 CMA 출시

행복나눔 CMA 출시

2011년 SK증권은 가입과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단체(한국장애인재단, 노인복지협회, 아동구호단체 등)로 CMA계좌 수익 일부(0.1%p)를 고객명의로 자동 기부하는 상품인 '행복나눔 CMA'를 출시했다. 기업 특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판매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사회공헌 펀드 적립 활동

SK증권은 구성원의 급여, 우수직원 포상금, 바자회 기금 등 사내 각종 행사에서 발생한 수령액 일부를 적립하는 펀드를 운영하여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성원과 회사 간에 기금을 공동출연하는 매칭그랜트 형태로 운영되어 복지시설 및 공익기관에 두 배의 사랑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14년 5월말 기준 총 2,589만 원이 적립됐다.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생경영 실천

SK증권은 산은캐피탈과 함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SK 협력업체에 대출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2012년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 SK텔레콤 등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SK동반성장 사모펀드(1,000억 원 규모)를 설립하여 운용(무한책임사원(GP))하고 있다. SK동반성장 사모펀드는 SK그룹의 협력사 투자에 특화된 목적펀드로 그룹과 협력사간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관련한 인력을 확보토록 하여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 E&S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장기적인 맞춤 지원활동을 펼쳐나간다

SK E&S는 행복나눔이라는 사회공헌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및 지원활동을 행하고 있다. 특히 SK E&S가 운영하는 발전소 및 도시가스 자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환경, 교육, 장학, 문화, 예술 등의 지원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시가스비 지원은 물론 도시가스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타임록 설치 등을 실행하고 있다.

SK E&S는 지속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장기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7

- 구성원 자원봉사단 발족
- 1인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 시행

2008

- 전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우리자녀지킴이' 시행(도시가스 자회사 7개사 참여)

2009

- 광양천연가스발전소 인근 실업계 고교(4개교) 장학사업 시행

2011

- 광양소방서 주관 소방의 날 기념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상

2012

- 제1회 에너지 절약 및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주관 2012 기업 사회공헌 감사패 수상

2013

- 맞춤형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행(서울·경기 10개 지역, 저소득 노인가정 지원)
- 제2회 에너지 절약 및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주관 봉사활동 사진전 특별상 수상

2014

- 1사1촌 자매결연 협약 체결(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교육 · 장학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 고교 장학금 지급 활동

SK E&S는 2009년부터 산학협력 증진과 이공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광양천연가스발전소 및 오성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실업계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의 조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현황은 각 발전소별로 매년 30명씩, 연간 총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실업계 학생에게 전달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및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SK E&S는 에너지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절약 및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본 공모전을 통해 140명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총 1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에너지절약 및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자원봉사

사업장 인근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

우리농촌 살리기에 힘쓰고 있는 SK E&S 및 도시가스 자회사들은 각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직접 논과 밭에 나가 구슬땀을 흘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바쁜 일을 거드는 것은 물론 지역민과의 유대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SK E&S 및 도시가스 자회사 구성원들은 저소득가정 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목욕돕기, 무료급식 배식활동 등의 다양한 노력봉사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매화원 자원봉사

지역사회·환경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유당공원 환경정화 활동

청정자원인 LNG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 SK E&S 및 도시가스 자회사들은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각 사업장 인근의 주요 산과 하천, 바다의 쓰레기 수거 및 주요 도로의 가꾸기, EM흙공을 활용한 하천 살리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여 나갈 것이다.

사회복지

저소득 노인가정 대상 맞춤형 소원성취 프로젝트



맞춤형 소원성취 프로젝트 전달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 해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SK E&S가 진행하는 소원성취 프로그램은 기존의 일방적인 후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수혜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SK E&S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급, 주거환경 개선, 황혼부부 워킹촬영, 월세·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을 시행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프로그램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매해 연말이 되면 SK E&S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및 김장나눔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업으로서 우리 이웃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단열재 시공 및 난방용품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자회사들은 가스비를 지원하는 등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1사1촌 자매결연



1사1촌 자매결연

SK E&S는 2014년 6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문화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 자매결연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직거래 및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 등 지속적인 교류를 펼친 SK E&S는 앞으로도 농촌사랑을 적극 실천할 것이다.

취약계층 도시가스시설 무상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창립시부터 지금까지 도시가스 자회사들은 도시가스 판매라는 회사의 특성을 활용한 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취약계층 가스시설 무상 점검, 시범안전점검을 통한 정기 자율안전점검과 연소기기의 올바른 사용요령 안내,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대비한 보일러시설 집중 점검 등 ‘취약계층 가스시설 무상 점검 및 교체’ 활동은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손꼽히고 있다.

취약계층 타임콕 무상 설치 지원 활동

도시가스 자회사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시설인 타임콕의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가스렌지 조리시간을 미리 맞춰 놓으면 일정 시간 뒤 가스가 차단되는 타임콕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따뜻한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

SK 가스

우리 사회에
행복 에너지를
확산시키다

SK가스는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대표 환경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행복한 초록교실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유기 농산물 지원금을 통해 친환경 농촌 살리기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사회로의 진화를 위해 (재)플라톤아카데미, 행복연구센터 등을 후원하는 SK가스는 행복 에너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8 

· 자원봉사단체 부문 은평구청장상

2012

- 희망메이커 후원 확대 및 체계화(2004부터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 경제적 지원)
- 저소득계층을 위한 LPG 희망충전기금 출연협약(총 100억 원 출연)
- 행복 에너지 확산을 위한 (재)행복마을의 동사섭 마음수련 프로그램 지원
- 행복 에너지 확산을 위한 (재)플라톤아카데미의 인문학 학술 연구활동 지원
- 행복 에너지 확산을 위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교육 및 연구활동 등 지원

2014

- 저소득계층을 위한 LPG 희망충전기금 2차 출연협약(총 50억 원 출연)

교육 · 장학

(재)플라톤아카데미 지원

SK가스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인문학 지원 공익재단인 (재)플라톤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의 심화와 확산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더욱 깊게 뿌리내리길 희망하고 있다.



인문학 심화사업

- 인문학 연구
- 인문학 학술지 발간
- 인문학 학회 개최 등



인문학 확산사업

- 대중 인문학 강연
- 청소년 대상 인문학교실 등 지원

행복연구센터 지원

행복이라는 독특한 기업철학을 가지고 있는 SK그룹 자회사인 SK가스는 행복에 관한 올바른 철학과 가치를 연구하는 행복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SK가스는 행복연구센터를 통해 참된 행복이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건강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고 있다.

행복연구	행복에 대한 심리적, 과학적 지식 창출	행복문화	뉴스레터, 소책자 발행을 통한 행복문화 확산	행복교육	행복교과서 저술 및 행복 수업 지원
-------------	-----------------------------	-------------	--------------------------------	-------------	---------------------------

행복마을 지원

SK가스는 행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동사섭 등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는 행복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SK가스는 동사섭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대중적인 전파를 위해 일반 · 중급 · 고급과정 및 청소년캠프 등의 동사섭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재)플라톤아카데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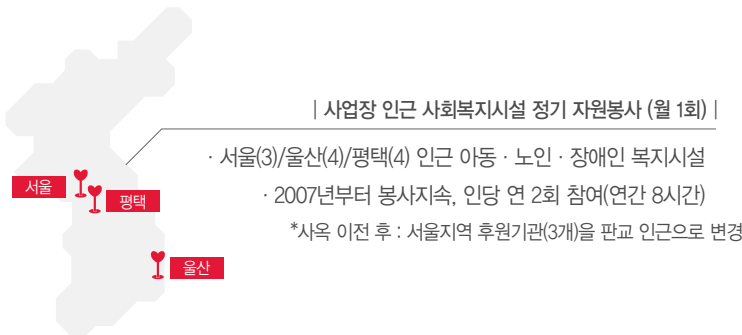


행복연구센터 지원

자원봉사

정기 자원봉사

SK가스는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SK가스는 사업장 인근 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아동)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환경

환경정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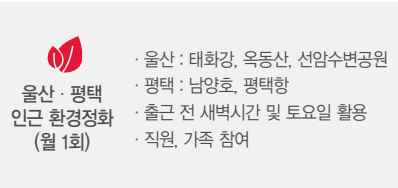
SK가스의 울산·평택기지 구성원들은 매월 출근 전 새벽시간 및 토요일을 활용하여 울산의 태화강, 옥동산, 선암수변공원 및 평택의 남양호, 평택항 등에서 직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한 초록교실 운영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행복한 초록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SK가스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천연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절약 활동을 교육하고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원보존 의식을 함양시키는 공부를 통해 지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농촌 유기농산물 구매지원

우리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SK가스는 구성원들에게 농촌 유기농산물 구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구입하여 안전한 식탁을 형성한 구성원 대부분은 해당 지원활동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판매량 증가로 살림이 풍성해지는 농촌 역시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

희망메이커 활동

SK가스는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과 구성원이 결연하는 '희망메이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비 등의 경제적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장학습, 멘토링, 영화관람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적 지원까지 수행하고 있다.



희망메이커



LPG 희망충전기금

LPG 희망충전기금 활동

2012년 SK가스는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억 원에 달하는 'LPG 희망충전기금' 출연 협약을 이루었다. 그리고 2014년 총 50억 원이 2차 LPG 희망충전기금으로 출연 협약됐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기금 마련으로 SK가스는 행복한 나눔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게 됐다.

2012	100억 원 규모의 'LPG 희망충전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복지사업 시행
2014	50억 원 추가 출연(3월), 총 150억 원의 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기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SK가스는 SK 행복나눔계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장과 연탄, 이불 등의 물품을 전달하는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SK 플레닛

혁신적인 사회문제
솔루션으로
행복의 가치를
높여가다

SK플레닛은 넥스트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광고·마케팅 사업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진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모바일 중심의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SK플레닛은 사회공헌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플레닛은 기존의 일회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12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책자 작성 및 전달
- 11번가, 사회공헌 프로젝트 ‘희망새싹캠페인’ 실시
- 광명보육원 임직원 방문·현장 봉사활동
- 이화여대와 E-STAR 프로젝트 MOU 체결
- 신망원 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 E-STAR 프로젝트 자폐인 디자인스쿨 2기 개최
- 자폐아 그림 공모전 협찬(오티스타 주관)
- SK커뮤니케이션즈, 소규모 학교 졸업앨범 지원 캠페인
- SK그룹 행복나눔 김장행사 현장 봉사활동
- 자폐아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 협찬(오티스타 주관)
- SK커뮤니케이션즈, ‘사랑의 PC증정식’ 개최

2013

🏆

- 2012 끝전모으기 모음액 광명보육원 전달
- 광명보육원 SK나이트 농구경기 관람
- 신망원 SK나이트 농구경기 관람
- 오티스타 IT기기 증정(600만 원 상당)
- 오티스타 전시회(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
-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무료 안경 지원
- 오티스타 디자인스쿨 ‘제주-디자인여행’ 시행
- 성남시 중앙동북자관 희망돌봄교실 과학물품 지원
- i-ports ‘친철한 영배씨’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 지원
- 서울 희망복지사업 표창
- 디지털경영대상_Planet X 및 T0아카데미(1월)
- 대한민국인터넷대상(11월)_상생·모바일IT분야 예코시스템 활성화
-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감사패 수여(11월)

2014

🏆

-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경영대상(3월)_동반성장파트너십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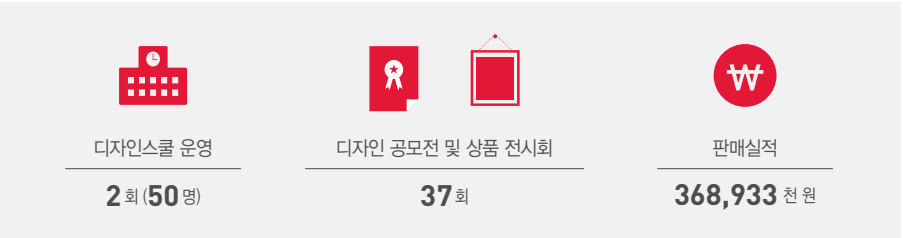
E-STAR 프로젝트

SK는 그룹 차원에서 단순 기부 형태의 사회공헌활동만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SK플레닛 역시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던 기존 사회공헌 형태에서 벗어나 소외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SK플레닛과 이화여자대학교가 진행하는 E-STAR(Ewha-SKplanet Autism Talent and Rehabilitation Project)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에 시작된 E-STAR는 자폐범주성 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s)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자폐인을 선발하여 디자이너로 육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디자인스쿨)이다. 또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제품(카드, 엽서, 메모지 등의 문구류 및 머그 등의 생활용품, 티셔츠 등의 의류, 핸드폰케이스, 배경화면, 음원 등)을 생산으로 연결해 웹사이트 등에서 상시 전시하여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자폐 범주성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고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화를 위해 (주)오티스타를 설립하여 디자인스쿨 수료생 중 4명을 전문 디자이너로 고용했다.

*오티스타 : 오티스타는 사회통합과 재능재활을 위해 2012년 8월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오티스타는 자폐인 대상 디자인 교육 및 직업 교육, 그림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 전시 및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취약계층 교육(오티스타 디자인 아카데미, 자폐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일자리 제공(자폐인 디자이너 채용 : 서비스 수혜 대상자 판매 수익금 재배분 포함), 지역사회공헌(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내의 디자인 상품 전시회) 등이 있다.

| E-STAR 주요 성과 | 2013년 말 기준



Tacademy

교육 · 장학

T아카데미 운영

T아카데미는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가 모바일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설립한 IT 특화 전문교육기관이다. T아카데미는 IT 개발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기획 · 디자인 등 앱 상용화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수료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해 왔다. 2014년 7월 기준 T아카데미는 70,758명의 누적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의 창업 및 취업률은 79.8%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 상용화 앱 137개를 시장에 내놓는 등의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T아카데미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대표 IT 전문교육기관인 T아카데미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바일 전문가 배출, 국내 IT 생태계 활성화 도모, 스타트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바일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담은 T아카데미

인사이드 2014 지원

SK플래닛 T아카데미에서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 멘토링 프로그램 '인사이드(Insider) 2014'를 출범시켰다. 인사이드 2014는 예비 또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참가자간 팀 구성, 멘토로 참여하는 업계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무료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인사이드 2014 우수 참가자에게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014 대한민국 창업리그'의 전국 본선 진출권과 상금 5백만원 등이 지급된다. 또한 엔젤투자자 ·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 기회와 투자자 대상 IR참가 기회가 제공되며, 101 스타트업코리아 등 SK플래닛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신청시 가산점 등의 풍부한 혜택이 부여된다.

희망앱 아카데미 운영

SK플래닛 T아카데미는 서울시 · 성남시와 함께 '희망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앱 아카데미는 IT 분야의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지원자를 선발해 약 6개월간 모바일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생의 취업률이 86.1%에 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희망앱 아카데미를 통해 동반성장 모바일 생태계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SK플래닛은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유입되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ICT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봉사

광명보육원 봉사활동

2011년부터 SK플래닛은 경기도 장흥에 소재한 광명보육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자원봉사활동은 광명보육원 아동에게 구성원이 직접 준비한 미술심리치료 등의 문화 · 예술행사를 체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일아트, 피부미용 등 아이들의 장래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보육원생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제고해주고, 구성원에게는 문화 · 예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등 구성원과 수혜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 월 1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신망원을 방문하여 현장 봉사활동 및 물품후원, SK나이프 농구경기 관람 지원, 초청공연 개최 등 SK의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다.



광명보육원 봉사활동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지역사회 · 환경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2013년 9월 SK플래닛은 T아카데미 출신 앱 개발자들과 함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지 제공을 위한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 'SK행복마을' 건축현장에서 울타리 제작, 목재조립 작업 등을 포함한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SK플래닛은 저소득 취약계층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중앙동복지관 희망돌봄교실 리모델링 지원

SK플래닛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보호시설인 성남시 중앙동복지관 희망돌봄교실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호 아동이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SK플래닛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야간보호사업 시설 구축 및 기부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해피스마일치과버스



희망새싹캠페인



해피스마일매칭

사회복지

해피스마일치과버스

SK플래닛은 OK캐쉬백과 구강전문기업 ㈜제니튼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스마일치과버스’를 실시했다. 2013년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 총 410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플래닛의 해당 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생과 화합에 앞장서고,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희망새싹캠페인

오픈마켓 ‘1번가’의 지원과 고객들의 포인트 소액결제 기부로 개안, 인공와우, 안면기형의 선천적 기형 및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새싹캠페인’을 통해 SK플래닛은 2012년 기준 총 40명의 어린이와 그 가정에 9,120만 원을 지원했다. 희망새싹캠페인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달려라행복버스캠페인

SK플래닛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달려라행복버스캠페인’을 진행했다. 본 캠페인은 T맵으로 대중교통 정보기능을 이용할 때마다 기부가 되는 사실을 SNS(개인 페이스북, 트위터, C로그)에 공유하면, 공유 1건당 100원씩 기부되는 활동이다. SK플래닛은 이렇게 발생한 소액 기부금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2012년 기준 3천만 원의 소액 기부금이 모였으며,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좋은마음센터, 좋은이웃그룹 홈 등 총 42개 사업장 저소득층 학생 600여 명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했다.

글로벌 사회공헌

해피스마일매칭

해외 빈곤국 아동들에게 교육 지원, 보건위생 개선, 생계 유지, 문화 교류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부금을 전달하는 ‘해피스마일매칭’은 SK플래닛 구성원과 회사가 수혜자와 1:1 결연을 맺고 후원하는 소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해외 빈곤국 아동에게는 매월 구성원 급여에서 공제한 1만 원과 회사가 지원한 2만 원을 더한 3만 원을 전달한다. 201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14년 현재 241명의 구성원이 342명의 해외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해피스마일매칭은 큰 부담 없이 사회공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사회공헌의 글로벌화를 이루고 있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SK 브로드밴드

전문성과 지속성을 살린 활동으로 바른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하다

SK브로드밴드는 핵심사업과 연계된 대표 사회공헌 사업과 전사 자원봉사단 운영, 사회적 기업 설립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고객, 주주, 구성원 및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나눔 경영의 기업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ICT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해피인터넷’ 사업은 2014년 신규 파트너십을 통해 ‘바른 ICT 교실’로 확대했다. 국내 기업 최초로 Value Chain과 연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 (재)행복한녹색재생은 대기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우수사례이자, 장애인 고용의 대표모델로 손꼽힌다. SK브로드밴드는 기업문화로 정착된 임직원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3.0 제안 공모전을 도입하고, 단위 조직별 R&C를 기반으로 한 활동 아이템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또 ‘친구맺기(SK Broadband & Friends)’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사 우수활동 아이템 공유와 사회공헌 협력모델 개발에 앞장서는 한편, SK 행복나눔계절 등 그룹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2008 · 전사 자원봉사단 발족 · 지구촌 행복한 홈스쿨 결연 및 후원 · SK 행복나눔계절 참여 개시(바자회, 김장, 연탄나눔 등)	지정기부단체 인증(12월) · 정보통신의 날 정부 포상
2009 · 해피인터넷 사업 개시(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활동) · IPTV 실종 아동 · 노인 찾기 캠페인	2013 · 행복나눔경영 선포(3월), 임원 봉사활동 정례화(4월) · 대한적십자사 스마트모금 캠페인 참여 · 행복한녹색재생, 사회적 기업 인증(9월) · 행복한녹색재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이드북 우수사례 등재 · 그룹사업 참여 확대(SK행복마을, 교육기부박람회 등)
2010 · 해피 IPTV 캠페인(다문화가정 지원 활동) · 그룹사업 참여 확대 (프로보노, SK 행복나눔계절, 소액기부 캠페인 등)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안전행정부 장관상
2011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참여 · 사회적 기업 ‘행복한녹색재생’ 설립 및 PSG 발족 · IPTV 공부방 지원사업(지역아동센터 연계활동) · 전사 자원봉사대상 도입(12월)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4 · 기존 해피인터넷 사업을 확대 · 개편한 ‘바른 ICT 교실’ 사업 개시 (NIA, SK텔레콤, 부스리기사랑나눔회와 신규 파트너십 협약 체결, 8월) · 전사 자원봉사 3.0 제안 공모전 시행 (기존 자원봉사대상 개편) · 해피네이버스 사업(Micro Credit 창업지원 활동) · 친구맺기 프로젝트 개시 (1차로 SK네트웍스와 ‘해피패키지’ 활동 시행) ·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참가(9월, SK홍보관) · 정보문화 유공 장관상 · 대한적십자사 총재 포상
2012 · 해피인터넷 사업 신규 파트너십 협약 체결 (기존 NIA 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추가) · 행복한녹색재생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재)행복한녹색재생



(재)행복한녹색재생

안성에 소재한 재단법인 행복한녹색재생은 2011년 말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최초로 Value Chain과 연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회수 임대 장비(모뎀, 인터넷전화기, STB 등)의 검수 및 세척, 포장 등 자원 재활용 사업을 통해 설립 첫해부터 흑자경영을 지속한 것은 물론 환경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해 2012년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지정기부단체 인증을 받았다. 2014년 현재 상근 52명 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19명(37%)이 근무하고 있다. 행복한녹색재생은 목적사업으로 안성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중고 PC를 지원하는 '사랑의 PC나눔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T·직무·기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취업지원을 위한 IT 활용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지난 3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사업장 내 장애학생 직업훈련을 위한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 전용시설을 마련했고, '행복체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녹색재생은 201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대기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모범사례이자 장애인 고용 대표모델로 꼽히며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행복한녹색재생 Parenting Service Group(PSG, 구성원 프로보노 경영자문단)을 운영하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월례미팅을 통해 행복한녹색재생의 지속경영과 성장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장학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ICT 이용을 돕는 바른 ICT 교실

'바른 ICT 교실'은 SK브로드밴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피인터넷'의 새 이름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한 해피인터넷 사업을 2014년 바른 ICT 교실로 확대 개편했다. 관심매체를 유선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로 확장하고, 건강한 ICT 이용을 위해 유아 대상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의 부작용과 관련한 예방기능을 강화했다.

바른 ICT 교실은 기존 해피인터넷 협력기관인 SK브로드밴드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외에도 SK텔레콤, 부스러그사랑나눔회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 협력사업이자, 기업과 NGO, 기업과 기업 간의 사회공헌 협력모델이다. SK브로드밴드는 축적된 사업경험과 협력기관별 전문성 레버리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바른 ICT 교실 사업을 통해 자녀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바람직한 ICT 이용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바른 ICT 교실 프로그램 |

· **바른 ICT 청소년 프로젝트** : 여름 캠프, 상담·멘토링 등 일련의 연간활동과, 청소년·부모 대상 특강 등을 진행한다. 디지털 디바이스 과다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습관 자체보다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열



바른 ICT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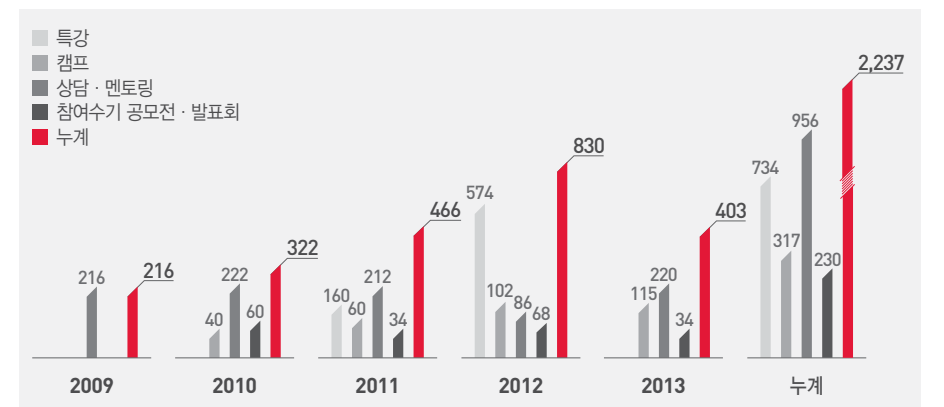


바른 ICT 교실

정, 가정과 공동체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근원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특히 부스러그사랑나눔회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참여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지속적인 관계와 변화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바른 ICT 키즈 교실** :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ICT 이용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방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K 대학생 자원봉사단(SUNNY) 튜터들은 B tv 인기 애니메이션 '원더볼즈'가 디자인된 버스를 타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시설을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구연동화, 캠페인 송과 율동, 기타 에듀테인먼트 활동을 진행한다. 바른 ICT 키즈 교실은 2014년 9월 시범사업 시행 후, 연말까지 매주 2회 진행된다. 현재 '깨미동(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모임)'과 NIA가 전문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 연간 참여인원 | 2009년~2013년, '해피인터넷'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B tv 교육나눔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 격차 해소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 2010~2013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IPTV 공부방(초고속인터넷과 IPTV 회선, TV 단말기,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했다. 또 양방향 학습 솔루션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중 실시간으로 수준별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스마트 쌤' 등 모바일 학습 앱 및 콘텐츠 기부 등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 박람회 SK홍보관 참여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 박람회는 1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교육 분야 최대 행사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13년에 이어 2014년 행사에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와이브스 등 관계사와 함께 SK홍보관 대표로 참여했다. 2013년에는 해피인터넷과 B tv 교육나눔 활동을 출품했고, 2014년에는 바른 ICT 교실 및 (재)행복한녹색재생의 교육기부활동(행복한학교)을 중점 소개했다.

SK브로드밴드 부스는 스마트모금함, 미디어테이블 등 최신 ICT 디바이스와 원더볼즈, 미앤마이로봇, 뽀로로 등 B tv 투자·독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홍보대사로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바른 ICT 테마의 기능성 보드게임 '내 꿈을 부탁해' 체험존은 학생 관람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 박람회 참여

자원봉사

자원봉사 3.0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행복 더하기



자원봉사

SK브로드밴드는 자원봉사가 기업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2014년부터 경영활동과 연계한 '자원봉사 3.0'으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자원봉사 대상을 업그레이드 한 '자원봉사 3.0 제안 공모전'을 통해 조직별로 핵심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관계사 우수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맺기' 프로젝트처럼 효율적인 신규 아이템 개발과, 관계사 간 자율적인 사회공헌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14년은 SK네트웍스의 '드림 패키지' 사업을 친구맺기 1호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SK브로드밴드 구성원들이 그림을 그리고 학용품 등을 넣어 만든 '해피패키지'를 저개발국 초등학생들에게 전달했다.

SK 행복나눔계절, SK프로보노 등 그룹사업 참여·지원



SK 행복나눔계절

SK브로드밴드는 SK 행복나눔계절 등 그룹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연례 김장나눔 행사에는 관계사 중 세 번째로 많은 구성원이 참여했으며, 수원 SK행복마을(해비타트) 현장에서도 임원 봉사활동 외에 단위 조직별 자원봉사팀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SK바자회와 소액기부캠페인, 온누리상품권 나눔과 같은 동절기 연례 나눔활동 외에, 프로보노 관련 활동사례와 자체 운영모델도 그룹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나눔국민대상 장관상 프로보노 부문은 SK프로보노이자, SK브로드밴드 소속인 박영진 매니저가 최초 수상했다. 행복한녹색재생 PSG(구성원 경영자문단)는 사회적 기업과 프로보노 그룹 매칭의 성공사례이자, 관계사 자체 R&C 연계형 프로보노 운영 모델로, 그룹 프로보노 발대식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사회복지

Happy Neighbors 사업 진행

SK브로드밴드는 (사)세계빈곤퇴치회와 함께 빈곤·우울가정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기반의 공동체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활동을 펼치는 해피네이버스(Happy Neighbors)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생활고 비관 가정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자리 자활 사업에 집중해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국지역 아동센터 실무자 교육 및 육성을 통해 중단기적으로 자활 공동체 운영과 확산의 거점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14년에는 안산지역 6개 창업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봉사활동



독거노인 사랑잇기

보건복지부 주관 '독거노인 사랑잇기'는 자원봉사자가 1:1 결연을 맺은 독거 어르신께 주 1회 안부전화를 드리는 봉사활동이다. SK브로드밴드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나눔천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R&C 연계성을 살린 적극적이고 성실한 활동으로, 참여 첫해인 2011년 말, 보건복지부 3개 부문(기업, 사회공헌 실무자, 자원봉사자) 표창을 수상했다.

스마트모금함 구축 및 캠페인 지원



스마트모금함

'스마트모금함'은 관공서, 공항, 터미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금 키오스크(Kiosk)이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모금을 할 수 있어 기부문화 혁신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4월 대한적십자사와 스마트모금함 구축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금함 100대를 기부하고 스마트모금 캠페인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적십자 총재 표창을 수상했다.

SK 텔레시스

매일매일
뜻 깊은 생활 속
나눔을 행하다

SK텔레시스는 ‘행복 극대화’라는 그룹의 철학에 발맞춰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이벤트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양하며, 구성원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SK텔레시스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사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마련할 계획이다.

| 연혁 및 대외수상 현황 |

2007

·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 시작

2008

· 탄소배출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 시작

· SK텔레시스 CSR 비전 'Together One' 사내 공표

2011

· 여주 복지단체와 여주지역 연탄배달 활동 시작

2012

· 동대문 쪽방촌 겨울나기 용품 배달 활동 시작

· 전 구성원 끝전 모으기 동참

자원봉사

사랑의 김장나눔 지원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나눔’에 SK텔레시스도 매년 동참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직접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가정 및 독거노인 등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다. SK텔레시스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나눔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랑의 김장나눔

여주지역 연탄배달 지원 및 자원봉사

SK텔레시스는 차상위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여주지역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매년 겨울 연탄배달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탄배달 활동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월동준비로 분주하고 고단한 취약계층 이웃에게 위로와 사랑의 나눔을 건네고 있다.



연탄배달 자원봉사

동대문 쪽방촌 사랑의 먹거리 나눔활동

매년 SK텔레시스 구성원들은 서울 동대문 쪽방촌에서 겨울을 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쌀과 반찬세트 등이 담긴 사랑의 먹거리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는 물론 신입사원까지 모두 동참하는 나눔활동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직원 나무심기



국립현충원 환경정화

4

SK는 행복나눔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197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는 세계적 학자 양성은 물론 아시아 학문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후 2006년 6월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 모델을 일구고,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힘쓰는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다. 2009년 9월 SK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재단’을 만든 것이다. SK는 각 재단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재단 활동

한국고등교육재단

행복나눔재단

SK미소금융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양성의 요람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974년 고(故) 최종현 회장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세계 수준의 학자로 키워내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설립 이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해외유학장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사회과학, 자연과학, 동양학, 정보통신 분야에서 610여 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했고, 현재 재단의 지원으로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도 18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서구의 선진 과학기술과 학문을 습득하는 해외유학장학제도 이외에도 동양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우수한 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학의 기본 경전과 고전을 가르치는 한학연수장학제도 및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동양학연구장학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내 대학원 정보통신장학제도 및 학부생 대상 대학특별장학제도를 운영하여 각 분야의 인재들이 우수한 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학사업



국제학술사업



지식나눔 사업

한국고등교육재단이 배출한 인재들은 학계, 법조계, 정계, 관계, 언론계, NGO,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방면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여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는 노벨상에 근접한 학자로 인정받는 이도 있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장·차관(급)직을 수행하거나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해 국가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도 적지 않다. 매년 재단 배출인재 중에서 국가석학, 한국공학상, 젊은과학자상, 한국과학상,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는 등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학자군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는 서울대 65명, 고려대 28명, 연세대 19명, 서강대 18명 등 310여 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등과학원 등 70여 명이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대학 및 연구소에도 190여 명이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재단이 배출한 인재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귀중한 지적자산이 되어 학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리드하며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장학사업

해외유학 장학제도

1974년에 시작된 재단의 주 장학제도이다. 세계 수준의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과학, 순수자연과학,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내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 해외 유명대학원에 유학시켜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등록금 일체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669명을 파견했고 현재 184명이 해외유학 중에 있다.



2014년도 해외유학장학생 출국인사

대학원 장학제도

동양의 전통문화와 학문을 계승, 발전시킬 우수한 학자양성을 위해 1990년 시작한 '동양학연구장학제도'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과 학문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7년 시작한 '정보통신대학원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4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했다.

대학특별 장학제도

사회과학, 순수자연과학, 정보통신 분야에서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해 영어, 전공연수, 전공독서 등의 지도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매년 40여 명씩 선발해 대학졸업 시까지 소정의 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1978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6기에 걸쳐 1,20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한학연수 장학제도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 중 동양학 연구를 원하는 우수한 대학생을 매년 10여 명씩 선발, 3년간 한학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과 제자백가를 교육해 한문원전을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1976년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36기에 걸쳐 40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중국유학 장학제도

중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중국 유명대학원에 유학시켜 박사학위를 취득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국제학술사업

국제학술사업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이사장의 유지를 이어받은 최태원 이사장이 재단 교육백년 대계를 이룰 제 2기 사업으로서, '아시아의 학문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재단의 인재양성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아시아로 확대해 아시아 사회발전을 주도 할 각국 학자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국가·지역 간의 학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아시아 사회가 상호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국제학술교류 지원사업

국제학술교류 지원사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1년 혹은 반년간 국내 학자와 협력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매년 50여 명의 아시아 대학교수 및 연구원을 초청해 월 연구비, 왕복항공료, 상해보험료, 입국정착비, 논문비를 지급하고 방한 기간 동안 한국어 강좌, 학술좌담회, 한국문화 여행, 산업체 견학, 논문집 발간 등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청 학자들과의 학술교류 협력을 넓히도록 장려한다. 2000년 제 1기 학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5개국 119개 기관에서 710명의 학자들이 국내 75개 기관에서 방한연구를 수행했다. 본 사업은 국내 대학의 글로벌화와 한국-아시아간 학술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고, 아시아 각국에 한국을 이해하는 지식 엘리트층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 간의 학술·문화·교육 방면에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잠재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학술교류 지원사업 _ 인등산 SUPEX Center



미얀마 양곤대학 아시아연구센터 지원협약식



상하이포럼 2014

아시아연구센터 운영사업

2002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주요 대학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학자들의 학술연구, 학술 회의, 연구출판, 강연 등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북경대학, 청화대학, 복단 대학, 절강대학, 중국인민대학, 남개대학, 북경외국어대학, 중국전매대학, 요녕대학, 연변대학, 몽골 국립대학, 베트남하노이국립대학, 라오스국립대학, 캄보디아왕립한림원, 태국출라롱콘대학, 미얀 마양곤대학 등 아시아 7개국에 17개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총 3,500여 건(연구과제 1,897건, 학술회의 410건, 연구출판 908건 등)의 학술활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Asia Research Network>를 발간하여 센터의 연구성과와 활동을 세계 유관 학술기관과 학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무부와 현지 아시아연구센터를 연결하여 아시아 각국에 한국법을 소개하는 '한국 법해외특강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국제학술포럼사업

한국과 아시아 및 세계 지식인들 간의 학술적, 인적 교류를 촉진해 인류문명의 진보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 수준의 국제학술포럼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국제학술포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와 전, 현직 국가지도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류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2004년 창설한 문명·문화포럼인 '베이징포럼'은 재단이 중국 북경대학, 북경시와 공동주관하며 '문명의 조화와 공동번영'을 대주제로 중국 북경 조어대국민관에서 매년 11월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창설한 '상하이포럼'은 경제전문포럼으로, 재단이 중국 복단대학, 상해시와 협력하여 '경제글로벌화와 아시아의 선택'을 대주제로 매년 5월 중국 상해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상하이포럼은 금융, 에너지, IT 등의 분야에서 세계의 저명학자, 관료, 기업가를 초청해 이론과 정책과 실무적 측면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선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현명한 대응방안을 진단하고 모색하는 학술대토론의 장이다. 이외에도 중국전매대학의 '아시아미디어포럼'(2003~), 중국인민대학의 '국제유학포럼'(2004~), 요녕대학의 '동북아포럼'(2005~), 연변대학의 '두만강포럼'(2008~), 캄보디아왕립한림원의 '동남아문화가치포럼'(2005~) 등을 공동주최하여 지역 간, 분야 간의 인적·학술적 교류를 촉진하면서 학문발전과 학술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중국 LEADERSHIP 교류 프로그램

한·중 대학생 LEADERSHIP 교류 프로그램

한·중 양국의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상호 협력적 리더십을 배양하고 이해 증진을 통해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중국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복단대학에서 선발한 중국학생 35명과 한국 각 대학으로부터 선발한 35명의 학생이 3주간 양국을 상호 방문하며 Learning, Experience, Argumentation, Discovery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2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220여 명의 한·중 양국 대학생을 지원해 왔다.

Understanding China 프로그램

재단의 대중국 학술사업의 성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학계 및 사회일반에게 중국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이해를 확산, 심화시키고자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살아본 중국학자가 바라본 한국'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013년 7월과 9월에 각각 한·중 양국의 저명학자가 참여한 '중국학자 초청 컨퍼런스'(시진핑정부의 대외전략과 사회개혁/2013.7.16, 시진핑정부의 경제정책 : 도전과 전망/2013.9.24)를 개최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한국 내 중국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의 국제관계,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언론, 법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는 'China Lecture Series'를 연중기획으로 매월 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중국 북경대학,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미 3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석학 초청 과학기술 융합 심포지엄

재단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재단 배출학자 중 노벨상에 근접한 학자로 평가받는 이공분야 석학들과 스티븐 추(Steven Chu)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및 양위량(Yang Yuliang) 중국 복단대학 총장(중국과학원 원사)을 초청하여 'New Frontiers in Scientific Innovation : 창조적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학계와 일반 및 유관 분야 학생들에게 이공 분야의 첨단연구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융합학문의 도전과제들을 제시했다.



세계석학 초청 과학기술 융합 심포지엄

지식나눔 사업

Dream Lecture 프로그램

Dream Lecture는 재단 배출 학자들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소개, 진로탐색, 비전찾기 등을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을 일깨우고 학업동기를 북돋우는 지식나눔 프로그램이다. 학교방문 특강과 재단초청 특강으로 나뉘 진행하며, 방문특강의 모토는 '너만의 꿈을 키워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70개 학교 29,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초청특강의 모토는 '더 넓은 세상으로'였으며 2회에 걸쳐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2013년 11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생 학문탐구 및 진로탐색을 위한 지식나눔 MOU'를 체결했으며, 서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Dream Lecture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중에 있다.



Dream Lecture _ 부산 장안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지식나눔 사업

재단이 지원하는 베이징포럼, 상하이포럼, Understanding China 학술회의, China Lecture Series 특강, 각종 국제학술회의 발표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계 및 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 운영

사회적 기업연구소

재단부설 사회적 기업연구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화된 연구기능 수행과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해외 선진기관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전파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 관련 지식을 확산하고자 2013년 설립됐다. 사회적 기업연구소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유가치창출(CSV)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를 초청, '사회적 기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고, 한국의 전반적인 CSR 인식상태와 추세를 파악하는 <CSR Monitor>(ISSN 2288-520X)를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해 오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주요 대학 내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센터와의 협력연구사업, 정부-민간-학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과제 수행, 동아시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및 컨퍼런스 개최, 재단 주관 국제학술포럼에서의 사회적 기업 세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기업 관련 활동 및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 강연

행복나눔재단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

행복나눔재단은 더 많은 이웃들과 더 큰 행복을 나누기 위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이다. 혁신적인 나눔의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뿐 아니라, 이 나눔의 모델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의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기업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모델인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SK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 문화 산업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움의 가치가 확산되는 '교육문화'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스스로 만드는 행복', '함께 성장하는 행복'의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와 함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모두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적 기업 사업



교육문화 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

행복나눔재단은 일회성의 금전적, 물질적 지원보다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비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Biz Model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 모델'과 SK그룹 관계사 고유 역량을 활용한 'SK 역량 활용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개발·확산한다. 또한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투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SK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및 확산

교육, 문화,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며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관 협력 모델 |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설립

행복한학교 _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복한도서관 _ 도서관 활성화 및 도서관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와 함께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작은 도서관 지원 및 도서관부 사업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정보 및 지식 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행복한뉴라이프 _ 출소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제과, 세탁, 바리스타 분야의 직업교육과 실무경험 제공을 통해 출소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_ 청소년 진로 개발을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청소년이 꿈을 찾고 키워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며, 진로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행복전통마을 _ 고택과 전통마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을 기반으로 문화상품 개발 및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행복F&C _ 한식의 우수한 경험을 제시하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다. 수익금은 청년의 자립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재투자되며 전문 한식 인재양성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처로서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행복전통마을 '구름에'



행복한녹색재생



행복ICT



행복한웹앤미디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_ 공공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확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식자재 공동구매 및 대상별 영양에 맞는 표준 메뉴 개발로 결식 이웃에게 양질의 공공급식을 제공하고 핵심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공유하여 전반적인 급식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

| SK 역량 활용 모델 | SK그룹 관계사 고유 역량을 활용해 설립

행복나라 _ 소모성자재(MRO) 구매대행을 맡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새로운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동반성장형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ICT _ SK텔레콤이 ICT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위해 설립한 ICT서비스 전문 사회적 기업이다. ICT 분야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IT 분야 사회진출을 통한 자활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공익적 IT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의 IT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농원 _ SK이노베이션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초화·관목의 재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지역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심적 치유를 위한 원예치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녹색재생 _ SK브로드밴드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현장직무교육, 기업 내 학교, 기업연수제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장비 검수 및 세척, 포장 등 자원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행복한웹앤미디어 _ SK C&C가 장애인 특화 IT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장애인들이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SNS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여 IT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며, 수익금은 장애인 IT 인력 육성과 채용에 재투자된다.

행복한에코폰 _ SK텔레콤이 환경 보호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T에코폰 업무를 수행하던 T에코센터를 전환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기존 대리점 및 NGO,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수익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혁신적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투자

더 많은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시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발굴·육성·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발굴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는 사회적가치와 혁신,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형태로 풀어가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발굴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육성 및 투자연계를 위해 스타트업과 성장기로 구분하여 발굴·선정한다. 선정된 사회적 기업에 전문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여 임팩트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육성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육성을 제공한다. 우수한 멘토,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 및 SK그룹이 갖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지원 기업에 기업별 사업계획서 멘토링을 제공하고, 수상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육성(세상 워크샵)과 기업의 성장수준과 경영역량에 따른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IR Camp 등)을 제공한다.

임팩트투자 사회적 성과와 연계한 임팩트투자 구조 수립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임팩트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임팩트투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은 사회적 기업이 정신, 사업성, 사회적가치 성장 잠재력, 경영역량 등이며, 피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임팩트가 향상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로 성장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임팩트투자를 최근 창업 초기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해 소셜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투자에 건강한 자본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팩트투자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과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 MBA _ 나카라과 해외현장 연수

People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핵심인 ‘사람’에 주목하여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사회혁신 생태계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KAIST와 공동으로 개설한 2년 전일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재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KAIST 경영대학의 우수 교수진과 사회적 기업 창업지향 커리큘럼,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SK 사회적기업가 센터(SK Social Entrepreneurship Center)는 사회적 기업가 MBA 학생의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회적 기업가 MBA 커리큘럼 개발 지원 및 외부 확산,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Infra

‘사람 · 지식 · 자본’을 연결하는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활력 있게 만들어 간다.

사회적 기업 온라인 플랫폼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상상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세상’은 ‘사람 · 지식 · 자본’을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발굴 · 육성 · 투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후원 및 협력

사회적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적정기술 분야의 경연대회 등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사업 및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소셜벤처 경영대회’ 후원
- Enactus Korea ‘National Competition’ 후원
- (사)나눔과기술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후원

교육문화 사업

행복나눔재단은 인재양성이라는 SK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문화 나눔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인재를 키우고 자립을 돕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가 필요한 분야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적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직업교육과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의 가치가 현장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통해 산업의 진보와 성장을 리드하고 있다.

교육 사업

꿈과 열정이 있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SK 해피스쿨’과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통해 지속가능한 나눔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대한 전문성, 나눔에 대한 진정성,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력을 보유한 혁신적 청년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SK 해피스쿨



SK SUNNY

SK 해피스쿨 SK 해피스쿨은 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이 수준 높은 현장교육 및 취업연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과 산업현장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턴십 및 산업전문가 멘토링, 교육 실습장 마련 등 실무현장에 밀착한 전문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SK 해피킹스쿨 _ 전문 요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및 취업지원이 연계된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산업 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만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커리큘럼과 현장환경에 맞춘 실습공간을 갖추고 있다. 요리사가 되기 위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초기술과 인문예술 교육은 물론, 현장실습 및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조리환경에 대한 깊이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SK 해피카스쿨 _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기술교육을 통해 자동차 보수도장사를 양성하는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론이 바탕이 된 기술교육과 산업현장의 체험 및 실습을 통한 실전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생의 현장취업 및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SK SUNNY는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라는 SK 사회공헌 자산을 계승 · 발전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적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 · 주도적 · 실천적인 활동으로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 모델을 발굴하여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며 한국 10개 지역, 중국 5개 지역에서 연 3,500명의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이 젊음의 에너지를 나누고 있다.

문화 사업

교육을 통한 배움의 가치가 현장에서 이어질 때 사회와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행복나눔재단은 공연 산업 활성화 및 한식의 가치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란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의 아티스트 양성 및 콘텐츠 발굴, 기획개발, 제작을 지원하는 문화공헌 전문재단이다. 우수한 문화인력 및 양질의 문화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성장 및 확장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레스토랑 ‘오늘’ 한식의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경험을 입체감 있게 전달하여 한식문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생생한 자연과 문화를 담아낸 음식, 홀 · 바 · 프라이빗 룸의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 소믈리에 · 접객 · 고객관리 등 서비스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통 한식 레스토랑 ‘오늘’은 한식 인재양성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처로써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Interview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

행복나눔재단 | 유항제 총괄본부장

Q 행복나눔재단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소감,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과 청소년 · 청년 대상 전문 직업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SK그룹의 사회공헌 실행조직입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도 사회, 경제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전략적,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행복나눔재단은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 · 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의 비전을 갖고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해피쿠킹스쿨의 경우 초기에는 방과후 학교처럼 이루어졌으나, 요즘은 소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풀타임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1년짜리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리에 입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요리를 커리어로 시작하는 젊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과정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혁신은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끊임 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어느 조직 못지않게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와 구성원이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협력기관 파트너분들, 재단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소중한 경험과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이자 플랫폼으로서, 행복나눔재단의 의의는 무엇인지요?

A 행복도시락 센터의 수익성 강화를 고민하던 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행복도시락 센터들을 사회적 기업화하여 자립을 도모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유망한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을 만들었으며, 사회적 기업들의 수적 팽창 및 빠른 성장을 반영하여 임팩트투자자와 육성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변화와 니즈를 한발 앞서 생각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행복나눔재단은 이를 통해 얻은 좋은 경험이 지원기관들과 정부의 프로그램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인재양성, 사회적 기업 대상 발굴, 육성, 투자 등에 있어서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기업, 기업가, 관련 기관들이 서로 만나고 협업하고 같이 발전하는 상생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Q 행복나눔재단에서 임팩트투자 활동을 시작했는데, 임팩트투자는 국내 사회적 기업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또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나 체계 측면에서 어떠한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어떤 분야에서든 스타트업은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 외부 자금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게 제도권 금융에서의 자금 조달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은 성장기 안착까지의 기간을 오래 걸리게 하는데,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기업

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라는 불신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투자는 그룹 내의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창업 초기와 성장기 진입 단계의 사회적 기업들에 유용한 성장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의 투자는 기업의 경제적가치와 함께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평가는 향후 사업계획의 목표 설정에 적용되어, 사회적 기업들이 두 가지 가치 창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만을 중시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적으로 문제를 덜 만들고, 직 ·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에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다양한 방식의 임팩트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이 시도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행복나눔재단의 향후 계획과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행복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생태계 내 인재양성과 임팩트투자 및 육성 등의 지원사업,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교육문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단의 작은 노력이 주변으로 퍼져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협력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SK미소금융재단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희망찬 내일을
만드는 행복씨앗

SK는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란 뜻을 담고 있는 SK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미소(美少)금융'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여타의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핵심인 미소금융 사업에 동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취약계층(저소득·저신용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SK는 2009년 12월 비영리법인인 SK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다. 전국 20개의 지점망을 갖춘 SK미소금융재단은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실천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 자영업자의 저금리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컨설팅지원 사업, 미소희망봉사단 등의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미소금융 사업



1만호 대출기념



수원출장소 개소식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SK가 설립한 SK미소금융재단이 설립 5년을 넘어서며 지원실적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K는 지난 2009년 정부 친서민 정책의 핵심인 미소금융 사업에 동참하고자 공동지원 협약식을 체결해 매년 200억 원씩 10년간 미소금융 재원으로 2,000억 원의 출연을 약속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을 설립했다.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미소금융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운영자금대출을 기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대상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지원자금 등 용도별 다양한 대출상품을 취급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모토로 지방 중소도시 및 군·읍·면 단위 지역을 직접 찾아가 발로 뛰며 미소금융을 알렸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한 SK미소금융재단은 영등포지점을 시작으로 제주, 울진, 동해, 통영 등 동서남북 20개 지점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 12월, 전국 지점망 구축, 지역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비금융적 관계형서비스 지향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활동을 높게 평가받은 SK미소금융재단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울진군부터 백령도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이동상담, '찾아가는 미소금융'



찾아가는 미소금융

SK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을 운영 중인 대기업 재단 중 가장 먼저 '이동상담'을 시작했다. 2009년 지점 설립과 동시에 차량 내부에 상담 시스템을 탑재한 이동상담차량을 제작해 기존 금융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전국의 지역을 찾아 다녔다. 뿐만 아니라 넷북을 이용해 전통시장 골목을 누비며 걸어 다니는 상담을 진행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쉽고 빠른 현장상담이 가능토록 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설립 이래 대도시를 기반으로 동해, 삼척, 울진군부터 최북단 백령도에 이르기까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숨어있는 전통시장은 물론 소외된 지역까지 가장 먼저 찾아간 SK미소금융재단은 지역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 현장상담

협약 맺은 전통시장 전국 최다, 지역밀착형 금융 지향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이동상담은 전통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간을 내어 지점을 찾기 어려운 상인들이 현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시장 내에 상담소를 마련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대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세워진 20개 지점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업무협약 및 교류를 활발히 행하고 있다. 재단과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에 한해 특별자금 대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살리고 경제가 회복되는 움직임이라 지자체의 호응도 좋다.

2014년 10월 현재, 재단이 협약을 맺은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0여 개로 이는 기업·은행 미소금융 재단 중 최다 숫자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역사회밀착형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영컨설팅 지원

자금은 물론, 컨설팅 홍보 등 비금융적 지원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SK미소금융재단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일손지원 봉사자 배치, 사업장 홍보를 위한 전문가 파견, 대학생학회와 연계한 운영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에 필요한 전문 경영컨설팅은 SK 구성원으로 조성된 자원 봉사단 ‘SK프로보노’가 맡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 이문석 이사장은 “SK미소금융재단의 지원금이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행복의 씨앗이 되어 더 큰 나무로 자라길 희망한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미소금융재단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이 밝은 미소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SK미소금융재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K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www.skmis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출종류 | 대출대상 : 자영업자 및 창업 예정자

자금용도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율(연)	비고
창업자금 *사업장임차자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7,000만 원	5년 이내	4.5%	소요자금의 50% 이상 자기자금 충당
운영자금	2,000만 원	5년 이내	4.5%	6개월 이상 사업자
시설개선자금	2,000만 원	5년 이내	4.5%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500만 원	5년 이내	4.5%	사업기간과 무관함
생계형차량 구입자금	2,000만 원	5년 이내	2.0%	
*단,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1,000만 원	3년 이내	4.5%	
프리랜서사업 자금	1,000만 원	5년 이내	4.5%	1년 이상 사업
청년대학생 긴급자금	300만 원	3년 이내	4.5%	만 29세 이하



SK미소금융DAY

스포츠와 연계한 미소금융 알리기 활동, SK미소금융DAY

SK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 SK스포츠단을 활용해 스포츠 현장을 찾아가 미소금융을 소개하는 ‘SK미소금융 DAY’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야구, 축구, 농구, 핸드볼 등의 경기 당일을 미소금융 홍보의 날로 지정해 현장상담소 설치, 관객 이벤트, 대출자 대표 시구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 가족을 초청하는 문화 나눔활동까지 행하고 있다.

앞으로 SK미소금융재단은 관심과 열기가 높은 스포츠 행사와 연계해 미소금융 알리기를 실현하는 SK미소금융DAY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미소금융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SK의 사회공헌활동은 행복경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행복’은 SK가 기업을 경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루고자 하는 최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SK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일보된 사회공헌 방식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도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SK는 앞으로도 축적된 역량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눌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SK의 도전과 혁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2014 SK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행처	SK자원봉사단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최태원
연락처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개발 · 기획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
www.sk.co.kr	